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H.G. 웰스 (H.G. Wells)

189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8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H.G. 웰스 (H.G. Wells), "The War of the Worlds" (William Heinemann 1898)

저자

H.G. 웰스 (H.G. Wells) · 1866-194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8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
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BOOK ONE · 제I장

전쟁 전야

19세기 말, 인류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이 세상을 아주 예리하고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 지성체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존재들이었지만 말이다. 인간이 저마다의 일상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은 관찰당하고 연구되고 있었다. 마치 현미경을 가진 사람이 물 한 방울 속에서 번식하며 우글거리는 미생물을 살살이 살피듯, 그들도 인간을 세밀하게 관찰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물질을 지배한다는 확신에 차서, 자신들의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며 이 지구 위를 무한한 자만심 속에 오갔다. 현미경 속의 미생물들도 아마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누구도 우주의 더 오래된 세계들을 인류의 위협 근원으로 떠올리지 않았으며, 설령 떠올렸다 하더라도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하거나 희박한 일이라며 치부해 버렸다. 지나간 시대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든다. 지구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화성에 다른 인간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을 뿐이다. 그들이 상상한 화성인은 자신들보다 열등하며, 선교 활동을 반갑게 맞아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 너머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멸망할 짐승의 정신과 다를 바 없듯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정신들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냉정하며 냉혹한 지성을 지닌 채, 질투 어린 시선으로 지구를 주시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느릿하지만 확실하게 세워 나갔다. 그리고 20세기 초, 거대한 환멸의 시대가 도래했다.

독자에게 굳이 상기시킬 필요도 없겠지만,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4천만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따라서 화성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열은 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운설이 사실이라면 화성은 지구보다 더 오래된 행성임이 분명하다. 지구가 뜨거운 용암 덩어리 상태를 벗어나기 훨씬 전부터, 화성 표면에서는 이미 생명체가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화성의 부피가 지구의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화성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온도까지 식는 속도를 더욱 앞당겼을 것이다. 화성에는 공기와 물, 그리고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인간은 참으로 오만하다. 그 오만함에 눈이 멀어,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작가도 화성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발전했으리라는, 아니 그 수준을 넘어 조금이라도 발전했으리라는 생각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또한 화성이 지구보다 오래되었고 지표면의 넓이는 지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태양으로부터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화성은 시간의 시작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종말에는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는 사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못했다.

언젠가 우리 행성에도 닥쳐올 냉각 현상은 이미 이웃 행성에서 상당히 진행되었다. 화성의 물리적 상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지만, 적도 부근조차 한낮 기온이 지구의 가장 추운 겨울 날씨에 겨우 근접할 정도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희박하며, 바다는 표면의 3분의 1만을 덮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계절이 느리게 바뀌면서 양극에는 거대한 만년설이 쌓였다가 녹기를 반복하고, 그 녹은 물이 주기적으로 온대 지역을 범람시킨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득히 먼 미래의 일인 이 마지막 쇠퇴의 단계가, 화성인들에게는 당면한 생존의 문제다. 절박한 필요성은 그들의 지성을 깨웠고, 능력을 확장시켰으며, 마음을 냉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정교한 장비와 지능을 갖춘 그들은 우주 너머를 응시한다. 태양 방향으로 불과 3,5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희망의 새벽별처럼 빛나는 우리 행성을 바라본다. 식물로 푸르고 물로 회색빛을 띠며, 풍요로움을 증명하듯 구름 낀 대기를 두른 지구를 말이다. 그들은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인구가 밀집한 넓은 영토와 해군 함선들로 가득한 좁은 바다를 엿본다.

이 지구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 역시, 그들에게는 원숭이나 여우원숭이처럼 이질적이고 미천한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의 지성은 이미 생명이란 끊임없는 생존 투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화성의 지성체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품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세계는 냉각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이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다

만 그들이 보기에 열등한 동물들로만 가득할 뿐이다. 세대를 거듭하며 서서히 다가오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은, 전쟁을 태양을 향해 확장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무자비하고 철저한 파괴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멸종한 들소나 도도새 같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인종들에게도 똑같은 파괴를 자행해 왔다. 태즈메이니아 원주민들은 인간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이주민들이 벌인 절멸 전쟁으로 인해 불과 50년 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만약 화성인들이 우리와 같은 정신으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과연 자비의 사도라 자처하며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겠는가?

화성인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강하 시점을 계산한 듯 보인다. 그들의 수학적 지식은 분명 우리를 훨씬 능가한다. 또한 그들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일치된 의견 아래 모든 준비를 마쳤다. 만약 우리의 관측 장비가 허락했다면, 우리는 19세기의 한참 이른 시기부터 다가오는 재앙의 징후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스키타파렐리 같은 이들이 붉은 행성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나저나 화성이 수 세기 동안 전쟁의 별로 불려 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묘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정교하게 지도로 그려낸 그 무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의미를 끝내 해석해 내지 못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화성인들은 분명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1894년 충(opposition)이 일어난 시기에, 화성의 밝은 부분에서 거대한 빛이 관측되었다. 처음에는 릭 천문대에서 발견되었고, 이어 니스의 페로탕이, 그 후에는 다른 관측자들이 이 빛을 목격했다. 영국 독자들은 8월 2일 자 《네이처》지를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접했다. 나는 이 섬광이, 화성에 깊이 파인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향해 포탄을 쏘아 보낸 그 거대한 대포를 주조할 때 생긴 불빛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뒤 두 차례의 충이 이어지는 동안, 그 빛이 발생했던 지점 근처에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기이한 무늬들이 관측되었다.

그 폭풍이 우리를 덮친 지도 벌써 6년이 흘렀다. 화성이 충(opposition)에 가까워지던 무렵, 자바의 라벨은 천문 정보 교환망을 통해 경악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화성 표면에서 거대한 백열 가스가 분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은 12일 자정 무렵에 발생했다. 라벨은 즉시 분광기를 사용해 확인했고, 그 결과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불꽃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불꽃의 줄기는 12시 15분경 눈에서 사라졌다. 그는 이 현상을 마치 화성이라는 행성에서 거대한 불꽃이 갑자기, 그리고 격렬하게 뿜어져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마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신문에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실린 짧은 단신 외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가 닥쳐왔음에도,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갔다. 만약 내가 오테쇼에서 유명한 천문학자인 오길비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화성의 분출 소식 자체를 아예 듣지 못했을지도 모

른다. 그는 이 소식에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오길비 씨는 격앙된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함께 화성을 관측하러 가자며 나를 초대했다.

그 후로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나는 그날 밤의 불침번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검고 정적이 감도는 천문대, 구석진 바닥 위로 희미한 빛을 드리우던 빛 가린 등불, 망원경의 태엽 장치가 내는 규칙적인 째깍거림, 그리고 별가루가 흩뿌려진 채 길쭉한 심연처럼 뚫려 있던 지붕의 작은 틈새까지 말이다. 오길비는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짙은 푸른색의 원이 보였고, 그 시야 안을 작은 행성 하나가 헤엄치듯 떠다니고 있었다. 그 행성은 아주 작고 밝으며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로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완벽한 구형이라기엔 약간 납작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작고 은빛으로 따스하게 빛나서, 마치 핀 머리 하나만큼의 빛덩어리 같았다! 행성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사실 그것은 행성을 시야에 고정하기 위해 움직이는 망원경 태엽 장치의 진동 때문이었다.

지켜보고 있자니 행성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다가왔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저 눈이 피로해서 생긴 착각일 뿐이었다. 화성은 우리로부터 4천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4천만 마일이 넘는 거대한 공허가 가로막고 있었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의 먼지들이 떠

다니는 이 공간이 얼마나 막막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지, 이를 실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억하건대, 시야 속 그것(화성) 근처에는 희미한 빛 세 점이 있었다. 아득히 멀리 떨어진, 망원경으로만 보이는 별 세 개였다. 그리고 그 주위는 온통 끝을 알 수 없는 빈 우주의 어둠뿐이었다. 서리가 내린 별빛 밤에 그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당신도 알 것이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어둠은 훨씬 더 깊고 심연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너무나 멀고 작아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믿기지 않는 거리를 가로질러 나를 향해 빠르고 일정하게 날아오고 있었다. 매 분마다 수천 마일씩 거리를 좁히며 다가오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것'이었다. 지구에 엄청난 투쟁과 재앙, 그리고 죽음을 몰고 올 바로 그 존재였다.

그때 나는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저 오차 없는 미사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날 밤에도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정밀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순간, 행성의 가장자리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고 운석이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오는 듯했다. 나는 즉시 오길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가 내 대신 자리를 맡았다. 밤공기는 따뜻했고 갈증이 느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서투른 걸음으로 다리를 쪽 뺀어 가며, 사이편이 놓인

작은 탁자로 걸어갔다. 그사이 오길비는 우리 쪽을 향해 뿔어져 나오는 가스 줄기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그날 밤, 첫 번째 물체가 발사된 지 거의 정확히 24시간 후—꼭 1초 남짓 모자란 시점에—화성에서 지구를 향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록색과 진홍색 잔상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가운데 탁자 위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울 수 있게 불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그때 보았던 그 미세한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빛이 곧 나에게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오길비는 새벽 한 시까지 지켜보다가 결국 포기했다. 우리는 랜턴을 켜고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 아래, 오테쇼와 처트시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화성의 상태에 대해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다. 화성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식의 흔한 생각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비웃기까지 했다. 그는 화성에 유성우가 쏟아지고 있거나,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인접한 두 행성에서 유기적 진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내게 강조했다.

“화성에 인간과 닮은 존재가 있을 확률은 백만 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가 말했다.

그날 밤과 그다음 날 자정 무렵, 그리고 그다음 날 밤에도 수백 명의 관찰자가 불꽃을 목격했다. 이런 일이 열흘 밤 동안 매일 밤 반복되었

다. 열흘째 되는 날 이후로 왜 포격이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발사된 가스 때문에 화성인들이 불편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지구에서 강력한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희미하게 일렁이는 회색 얼룩처럼 보이는 짙은 연기나 먼지 구름이 화성의 맑은 대기 속으로 퍼져 나갔고, 그로 인해 화성의 익숙한 지형들은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일간지들조차 이 소동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화성의 화산에 관한 대중적인 기사들이 곳곳에 실렸다. 기억하기로는 풍자 잡지인 《펀치》가 이 소재를 정치 만평에 아주 재치 있게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이, 화성인이 우리를 향해 쏜 투사체들은 지구를 향해 곧두박질치고 있었다. 그 물체들은 텅 빈 우주의 심연을 가로질러 초당 수 마일의 속도로, 시간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토록 빠른 운명이 우리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평소처럼 사소한 일상에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롭기까지 하다. 당시 삽화 잡지를 편집하던 마컴이 화성의 새로운 사진을 확보했다며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기억난다. 요즘 사람들은 19세기 신문들이 보여주었던 그 풍요로움과 진취적인 기상을 거의 실감하지 못한다. 나 역시 그 무렵에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데 몰두해 있었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도덕 관념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논하는 일련의 논문들을 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산책을 나섰다. (당시 첫 번째 미사일은 아마도 1,000만 마일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별빛이 내리는

밤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황도 12궁을 설명해 주며, 수많은 망원경이 향하고 있는 밝은 점 하나를 가리켰다. 천정으로 서서히 기어오르는 듯한 빛나는 점, 바로 화성이었다. 날씨는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처트시나 아일스워드에서 온 유람객 무리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 곁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지 집들의 위층 창문에는 불빛이 밝혀져 있었다. 멀리 떨어진 기차역에서는 열차를 편성하는 소리가 울리고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거리가 멀어서인지 그 소리는 마치 선율처럼 부드럽게 들렸다. 아내는 하늘을 배경으로 구조물에 매달린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신호등이 얼마나 밝은지 내게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더없이 안전하고 평온해 보였다.

BOOK ONE · 제II장

떨어지는 별

첫 번째 유성이 떨어진 밤이 찾아왔다. 그 유성은 이른 아침, 윈체스터 상공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빠르게 내달리며 대기 높은 곳에서 불꽃의 선을 그렸다. 수백 명은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저 평범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알빈은 그 유성이 지나간 자리에 초록빛 잔상이 남았으며, 그것이 몇 초 동안 빛을 발했다고 묘사했다. 운석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인 데닝은 유성이 처음 나타난 높이가 약 9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였다고 밝혔다. 데닝의 관찰에 따르면, 유성은 그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그 시각 나는 집에 있었고 서재에서 글을 쓰는 중이었다. 내 방의 프랑스식 창문은 오티쇼 방향을 향해 있었고 블라인드도 올려둔 상태였다(그 시절의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외계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그 무엇보다 기이한 물체가 떨어질 때, 내가 고개만 들었더라면 분명

내 눈에 보였을 텐데, 바로 내가 앉아 있던 그 순간에 그 물체는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비행을 목격한 이들 중 일부는 그것이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버크셔, 서리, 미들섹스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그 낙하를 보았을 것이나, 기껏해야 또 다른 운석이 떨어진 것이라 생각했을 뿐일 것이다. 그날 밤, 떨어진 물체를 찾아 나서려 애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른 새벽, 불타는 별을 목격하고 호셀과 오터쇼, 그리고 워킹 사이의 공유지 어딘가에 운석이 떨어졌다고 확신한 불쌍한 오길비가 그것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에 일찍 몸을 일으켰다. 그는 동이 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 채취장 근처에서 마침내 운석을 찾아냈다. 충돌한 물체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모래와 자갈은 사방으로 격렬하게 튀어 나가 황야를 뒤덮었다. 그 파편들은 1.5마일 밖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동쪽에서는 히스 식물이 불타고 있었고, 새벽하늘을 배경으로 가느다란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물체는 거의 완전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 원통이 낙하하며 산산조각을 내버린 전나무 파편들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거대한 원통 모양이었는데, 두껍고 비늘 같은 황갈색 피막이 덮여 있어 윤곽조차 흐릿했다. 지름은 약 30야드에 달했다. 그는 그 덩어리 쪽으로 다가갔다. 크기에 놀랐지만, 형태를 보고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대개 운석은 거의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권을 통과하며 달궈진 열기가 여전했기에, 그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원통 내부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표면이 불

균일하게 식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당시의 그는 그 원통 내부가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스스로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기이한 형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그 물체의 특이한 모양과 색깔에 경악했다. 그러면서도 그 존재가 이곳에 나타난 과정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웨이브릿지 쪽 소나무 숲 너머로 막 떠오른 태양은 벌써부터 따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는 새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재로 뒤덮인 원통 내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뿐이었다. 공유지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운석을 뒤덮고 있는 재 같은 껍질, 즉 회색빛의 딱딱한 찌꺼기 일부가 원통 끝부분의 둥근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조각 조각 부서지며 모래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툭 떨어졌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그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움찔했다.

그는 잠시 동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그는 그 물체를 더 자세히 보려고 원통 근처의 구덩이 속으로 기어 내려갔다. 그는 그때조차도 물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현상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뒤흔

든 사실이 하나 있었다. 재가 오직 원통의 끝부분에서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 그는 원통의 둥근 윗부분이 몸체를 축으로 아주 천천히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움직임이 워낙 미세해서,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근처에 있던 검은 점이 이제는 원통 둘레의 반대편으로 옮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겨우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그조차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둔탁하게 굽히는 소리가 들리고, 검은 점이 한 치쯤 툭 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원통은 인공적인 물건이었다. 속이 비어 있었고, 한쪽 끝은 나사처럼 돌려서 열 수 있는 구조였다. 원통 내부의 무언가가 윗부분을 돌려 열고 있는 것이었다!

“맙소사!” 오길비가 외쳤다. “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 있다고요! 반쯤 구워져 죽어가고 있어요!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그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단번에 그 물체와 화성에서 보았던 섬광을 연결 지었다.

간혀 있는 생명체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끔찍했던 나머지, 그는 열기조차 잊은 채 원통을 돌리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다행히도 아직 달아오른 금속에 손을 대기 직전, 둔탁한 복사열이 그의 발길을 막아 세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멈춰 서더니, 이내 몸을 돌려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와 워킹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아마 저녁 6시쯤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차꾼을 만나 상황을 설명

하려 애썼으나, 구덩이에서 모자까지 벗겨진 채 물고리가 엉망인 그가 늘어놓는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다. 결국 마차꾼은 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호셀 다리 근처의 선술집에서 막 문을 따고 있던 사환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환은 그를 떠돌이 미치광이로 여기고는 그를 술집 안쪽 방에 가두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일로 그는 조금 정신이 들었다. 그러다 자신의 정원에 있는 런던 기자 헨더슨을 발견하고는, 울타리 너머로 소리쳐 자신의 말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헨더슨,” 그가 불렀다. “어젯밤에 그 유성을 봤나?”

“그래서?” 헨더슨이 말했다.

“지금 호셀 공유지에 나타났어.”

“세상에!” 헨더슨이 말했다. “운석이 떨어진 거야! 이거 잘됐군.”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운석이 아니야. 원통이라고, 인공적인 원통이란 말이야! 게다가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어.”

헨더슨은 삽을 손에 든 채 일어섰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가 물었다. 그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

오길비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헨더슨에게 말해주었다. 헨더슨은 잠시 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더니 그는 삽을 내려놓고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 들고는 도로로 달려 나왔다. 두 사람은 즉시 공유지로 서둘러 돌아갔고, 원통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 원통 내부에서 들리던 소리는 멎어 있었다. 대신 원통의 윗부분과 몸체 사이로 밝게 빛나는 금속 테두리가 얇게 드러나 있었다. 그 틈새에서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빠져나가며 가늘게 치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인 뒤 막대기로 비늘 같은 탄 금속을 두드려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두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든 여럿이든 의식을 잃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함께 결론 내렸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위로의 말과 약속을 건네고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모래를 뒤집어쓴 채 흥분과 혼란에 빠진 두 사람이, 상점 주인들이 셔터를 내리고 사람들이 침실 창문을 여는 눈부신 햇살 아래 작은 거리를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헨더슨은 런던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즉시 철도역으로 향했다. 이미 신문 기사들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BOOK ONE · 제III장

호셀 공유지에서.

원통이 놓인 거대한 구덩이 주변으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땅에 박힌 채 놓여 있던 그 거대한 물체의 모습은 이미 앞서 묘사한 바 있다. 원통 주변의 잔디와 자갈은 마치 갑작스러운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검게 그을려 있었다. 원통이 충돌할 때 분명 불꽃이 튀었을 것이다. 헨더슨과 오길비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헨더슨의 집으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간 모양이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는 대여섯 명의 소년이 걸터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발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단 채, 거대한 물체를 향해 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말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주의를 준 뒤에야 아이들은 구경꾼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 두 명과 내가 가끔 고용하던 정원사, 아기를 안은 소녀, 정육점 주인 그렉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철도역 근처를 배회하던 두세 명의 한량과 골프 캐디들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영국 서민들 중 천문학에 대해 막연한 지식조차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오길비와 헨더슨이 남겨둔 그대로 멈춰 있는, 탁자처럼 생긴 원통의 커다란 끝부분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저 생명력 없는 덩어리를 보며, 타버린 시체 더미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 보였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어떤 이들은 떠나갔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 찾아왔다. 나는 구덩이 안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발밑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듯했다. 원통의 윗부분은 확실히 회전을 멈춘 상태였다.

그 물체에 이토록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뒤집힌 마차나 길 위에 쓰러진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아니, 사실 그만큼도 흥미롭지 않았다. 그것은 녹슨 가스 부표처럼 보였다. 저 물체의 회색빛 표면이 흰 산화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원통의 뚜껑과 본체 사이 틈새로 번뜩이는 황백색 금속이 생전 처음 보는 빛깔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려면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했다. 구경꾼 대부분에게 '외계의 것'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 무렵 나는 그 물체가 화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뚜껑이 풀리는 과정도 자동 장치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길비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믿었다. 내 머릿속은 그 안에서 원고가 발견될 가능성이나, 만약 발견된다면 번역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혹은 화성의 동전이나 모형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을지 같은 공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원통의 크기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그런 가설을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나는 그저 그 안이 열리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오전 11시쯤 메이베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라 추상적인 연구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호셀 공유지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저녁판 신문 초판들이 거대한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런던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화성으로부터 온 메시지.”

“워킹에서 전해온 놀라운 이야기”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길비가 천문 교환국으로 보낸 전보로 인해, 영국 본토의 모든 천문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모래 채취장 옆 도로에는 워킹 역에서 온 마차 대여섯 대 이상이 서 있었다. 초밤에서 온 바구니 마차와 꽤나 품격 있어 보이는 마차도 보였다. 그 외에도 자전거가 한 무더기나 쌓여 있었다. 게다가 그날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워킹과 처트시에서 걸어온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덕분에 그곳에는 꽤 상당한 인파가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로 화사하게 차려입은 숙녀 한두 명도 눈에 띄었다.

날씨는 눈이 부실 정도로 뜨거웠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소나무 몇 그루만이 유일한 그늘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타오르던 헤더 풀밭은 불길이 꺼졌으나, 오토쇼를 향한 평지는 눈이 닿는 곳까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 검은 땅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수직으로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밤 로드에는 한 수완 좋은 사탕 가게 주인이 아들을 보내, 수레 가득 초록 사과와 진저 비어를 실어 왔다.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헨더슨과 오길비, 그리고 나중에 왕립 천문관 스텐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키 크고 금발인 남자가 있었고, 그 곁에는 삼과 곡괭이를 든 인부들도 몇 명 보였다. 스텐트는 맑고 높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열기가 많이 식은 듯한 원통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무언가에 몹시 짜증이 난 듯한 기색이었다.

원통의 아랫부분은 여전히 땅에 박혀 있었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오길비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군중 사이로 내가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나를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이 지역의 영주인 힐턴 경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물려드는 군중, 특히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 때문에 발굴 작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도록 가벼운 울타리를 설치하고 도움을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원통 내부에서 가끔 희미한 움직임이 들리기도 하지만, 윗부분을 잡을 만한 손잡이가 없어 인부들이 뚜껑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내게 전했다. 원통의 벽은 엄청나게 두꺼워 보였는데, 우리가 듣는 그 희미한 소리가 어찌면 내부에서 벌어지는 요란한 소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요청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 매우 기뻐다. 덕분에 곧 조성될 울타리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구경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힐튼 경의 저택을 찾아갔으나 그는 집에 없었다. 워털루 역에서 출발하는 6시 기차를 타고 런던에서 올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시각은 5시 15분쯤이었으므로, 나는 집으로 돌아가 차를 마신 뒤 그를 마중 나가기 위해 역으로 걸어갔다.

BOOK ONE · 제IV장

원통이 열린다.

내가 공유지로 돌아왔을 때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워킹 쪽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둘러 오고 있었고, 한두 명은 되돌아가고 있었다. 구덩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는데, 레몬빛 노란 하늘을 배경으로 그들의 실루엣이 검게 도드라져 보였다. 아마도 이백 명쯤은 되어 보였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구덩이 근처에서는 무언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기묘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스텐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러나세요! 물러나라고요!”

소년 하나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가 나를 지나쳐 가며 말했다. “뱅크뱅크 돌면서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고요.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그냥 집으로 갈 겁니다, 정말로요.”

나는 군중 속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대략 이삼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고 밀치며 뒤섞여 있었다. 그 사이에 섞여 있던 한두 명의 여성들 역시 결코 뒤쳐지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물러나시오!” 여러 사람이 외쳤다.

군중이 일렁이자 나는 팔꿈치로 사람들을 밀치며 길을 만들었다. 모두가 몹시 흥분한 기색이었다. 구덩이 안에서는 기이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오길비가 외쳤다. “이 바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시오. 저 빌어먹을 물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누가 알겠소!”

나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워킹의 점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원통 위에 올라선 채 구멍 밖으로 다시 기어 나가려 애쓰고 있었다. 군중이 그를 밀어 넣은 것이었다.

원통 내부에서 나사못이 돌려져 나오기 시작했다. 번뜩이는 나사못이 2피트 가까이 튀어나왔다. 누군가 내게 부딪히는 바람에, 하마터면 나사못 꼭대기 위로 고꾸라질 뻔했다. 몸을 돌리는 순간 나사못이 완전히 빠져나온 모양인지, 원통의 뚜껑이 자갈밭 위로 떨어지며 쾅그랑하고 울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뒤에 있던 사람을 팔꿈치로 밀치고 다시 그 존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잠시 동안 원통의 둥근 구멍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지는 해가 내 눈을 부시게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 한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지구의 인간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분명 인간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지켜보던 나는 곧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회색빛의 물결 같은 움직임이 겹겹이 일렁이더니, 이어서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빛나는 원반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꿈틀거리는 몸체 중앙에서 지팡이 정도 굵기의 작은 회색 뱀처럼 생긴 것이 파리를 틀며 솟아올랐다. 그것은 공중을 헤엄치듯 나를 향해 꿈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것이 나타났다.

갑자기 한기가 엄습했다. 뒤편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원통에서 또 다른 촉수들이 뻗어 나오는 것을 눈을 떼지 않은 채, 몸을 반쯤 돌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려 애쓰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서히 공포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사방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점원을 보았다. 어느덧 나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구덩이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스텐트도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 원통을 바라보았다. 건잡을 수 없는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는 돌처럼 굳어버린 채 그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곰 한 마리 정도 크기로 보이는 크고 회색빛이 도는 둥근 덩어리가 원통에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러운 듯한 움직임으로 솟아올랐다. 그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며 빛을 받자, 젖은 가죽처럼 번들거렸다.

커다란 검은 눈 두 개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을 감싸고 있는 덩어리, 즉 그 생명체의 머리는 둥근 형태였으며, 말하자면 얼굴이라고 부를 만한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 눈 아래에는 입이 있었는데, 입술이 없는 그 태두리는 파르르 떨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침을 흘려댔다. 생명체 전체가 경련하듯 들썩이며 맥동했다. 가느다란 촉수 하나가 원통의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또 다른 촉수 하나는 허공에서 흔들거렸다.

살아있는 화성인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 공포를 자아내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뾰족한 윗입술을 가진 독특한 V자 모양의 입, 눈썹 뼈의 부재, 찌꺼기 모양의 아랫입술 아래로 턱이 없는 모습, 그리고 설 새 없이 떨리는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고르곤의 머리카락처럼 엉겨 붙은 촉수 떼와 낮은 대기 속에서 거칠게 몰아쉬는 폐의 호흡 소리도 있었다.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한 탓에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겁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강렬함은, 생명력이 넘치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고, 비인간적이며, 기형적이고 괴물 같았다. 기름기 흐르는 갈색 피부에서는 곰팡이 같은 느낌이 풍겼고, 느릿하고 서투른 움직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첫 만남, 그 첫 목격의 순간이었음에도 나는 혐오감과 공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갑자기 괴물이 사라졌다. 괴물은 원통의 가장자리를 넘어 구덩이 속으로 쓰러졌는데, 마치 거대한 가죽 뭉치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괴물이 기이하고도 걸걸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고, 곧

이어 구멍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괴물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렸다. 아마 백 야드쯤 떨어져 있을 첫 번째 나무 무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나는 비스듬히 비틀거리며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들에게서 차마 얼굴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소나무와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모래 채취장 주변의 공유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나처럼 홀린 듯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그 생명체들을,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누워 있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쌓인 자갈 더미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검고 둥근 물체가 위아래로 까닥거리는 것이 보였다. 다시금 공포가 엄습했다. 그것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 상점 점원의 머리였다. 뜨거운 서쪽 햇살을 등진 채, 그의 머리는 작은 검은 물체처럼 보였다. 그는 어깨와 무릎을 끌어올려 버티려 했으나, 이내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만 겨우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사라졌다. 아주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억눌렀다.

그때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 원통이 떨어진 자리에는 깊은 구덩이가 파였고, 그 주변으로 모래 더미가 쌓여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다. 초밤이나 워킹 쪽 도로를 따라 오던 사람이라면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을 것이다. 백 명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거대한 불규

칙한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사람들은 도랑 안이나 덩불 뒤, 혹은 문과 울타리 뒤에 흠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 짧고 흥분 섞인 외침을 주고 받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모래 더미를 뚫어지게, 아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타오르는 하늘을 배경으로 진저 비어 수레가 기묘하게 버려진 채 검은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고, 모래 채취장에는 주인 없는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말들은 코걸이를 한 채 먹이를 먹거나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BOOK ONE · 제V장

열선

화성인들이 자신들의 행성에서 지구로 타고 온 원통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을 언뜻 목격한 뒤, 나는 일종의 매혹에 사로잡혀 몸이 마비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히더 풀숲에 무릎까지 파묻힌 채 그대로 서서, 화성인들을 숨기고 있는 그 언덕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호기심이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구덩이 쪽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치밀었다. 나는 결국 크게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상황을 관찰할 만한 유리한 지점을 찾아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면서도 지구에 새로 나타난 이 불청객들을 가리고 있는 모래 언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문득, 문어의 다리처럼 가늘고 검은 채찍 줄기들이 석양을 가로질러 번쩍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뒤이어 가느다란 막대 하나가 마디마디 연결되며 솟아올랐다. 그 막대 끝에는 원반 모양의 물체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비틀거리듯 흔들리며 회전하고 있었다. 도대체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구경꾼 대부분은 한두 무리로 모여 있었다. 한 무리는 워킹 쪽으로 향한 작은 인파였고, 다른 무리는 초밤 방향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분명 나와 같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듯했다. 내 근처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한 남성에게 다가갔다. 이름은 몰랐지만 이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정말 끔찍한 짐승들이군!” 그가 말했다. “세상에나! 정말 끔찍한 짐승들이야!” 그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구덩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까?”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에 잠겼다. 한동안 나란히 서서 그곳을 지켜보았다.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위안을 얻었던 것 같다. 이윽고 나는 위치를 옮겨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 서니 주변보다 한 야드 정도 높은 시야가 확보되었다. 잠시 후 그를 다시 찾아보았을 때, 그는 이미 워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노을은 서서히 저물어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왼쪽 멀리 워킹 방향으로 모여든 군중은 점점 더 늘어나는 듯했고, 이제는 그곳에서 희미한 웅성거림까지 들려왔다. 초밤 쪽으로 모여든 작은 무리는 흩어졌다. 원통이 놓인 구덩이에서는 움직임의 기척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었으며, 워킹에서 새로 도착한 이들 또한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황혼이 모래 구덩이 위로 느릿하고 간헐적으로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다. 원통 주변의 저녁 정적이 깨지지 않은 채 유지되자, 그 움직임은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 듯 보였다. 검은 형체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다가오더니, 멈춰 서서 살피다가 다시 전진하기를 반복했다.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얇고 불규칙한 초승달 모양으로 퍼져 나갔는데, 마치 가느다란 빨로 구덩이를 에워싸려는 듯한 형국이었다. 나 역시 내가 있던 자리에서 구덩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마차꾼을 비롯한 사람들이 겁도 없이 모래 채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말발굽 소리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도 들려왔다. 한 소년이 사과를 실은 수레를 밀며 지나가는 것도 보았다. 그러다 채취장에서 30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호셀 방향으로부터 다가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했다. 검은 점처럼 뭉쳐서 다가오는 그 무리 중 맨 앞에 선 사람이 흰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이것이 사절단이었다. 급히 협의를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화성인들은 그 혐오스러운 외형에도 불구하고 분명 지성적인 존재였기에, 신호를 보내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우리 또한 지성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깃발이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펄럭였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 곳에 누가 있는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길비와

스텐트, 헨더슨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작은 무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거의 원형을 이룬 군중의 돌레가 마치 안쪽으로 끌려 들어오듯 좁혀졌다. 그 뒤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다.

갑자기 번쩍하며 빛이 일더니, 구덩이에서 빛을 내는 초록빛 연기가 세 번에 걸쳐 뭉게뭉게 뿜어져 나왔다. 연기는 차례대로 솟구치며 정지해 있던 공기 중으로 곧장 흩어졌다.

이 연기(아마도 불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는 너무나도 밝았다. 그래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마다 머리 위의 질푸른 하늘과 검은 소나무들이 늘어선 채 처트시 방향으로 흐릿하게 펼쳐진 갈색 공유지의 풍경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듯 보였고, 연기가 흩어진 뒤에도 그 자리는 한동안 어둡게 남아 있었다. 동시에 희미하게 싹싹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덩이 너머에는 흰 깃발을 정점으로 세운 채 사람들이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모여 있었다. 이 기이한 현상에 압도된 사람들은 검은 땅 위에 곧추선, 작고 검은 형체들의 무리처럼 보였다. 초록색 연기가 피어 오르자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한 초록빛으로 번뜩였다가, 연기가 사라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어 싹싹거리는 소리가 서서히 웅웅거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이내 길고 커다란 저음의 웅웅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때 구덩이 속에서 둔탁한 형체 하나가 천천히 솟아올랐고, 그 형체로부터 빛줄기의 잔상이 깜빡이며 흘러나오는 듯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불꽃이 번쩍이며 튀어 올랐다. 밝은 섬광이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맹렬히 옮겨붙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분사기가 사람들을 내리치며 하얀 불꽃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했다. 마치 사람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아주 잠시 동안 불덩이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그때 그들이 파멸하며 내뿜는 빛에 의지해 나는 보았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과, 그들을 뒤따르던 이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을 말이다.

나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저 멀리 떨어진 작은 군중 사이로 죽음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 매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소리도 거의 없이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이 번쩍이더니, 한 남자가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보이지 않는 열선이 그들을 훑고 지나가자 소나무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마른 가시덤불들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덩어리로 변했다. 그리고 멀리 내프힐 방향을 보니 나무와 울타리, 그리고 목조 건물들이 갑자기 불타오르며 번쩍이는 모습이 보였다.

불타는 죽음이자 보이지 않는 필멸의 열선이 맹렬하고도 꾸준한 기세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불길에 휩싸인 덩불들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경악하고 망연자실하여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모래 구덩이에 서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렸고, 말 한 마리가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더니 이내 돌연히 숨이 끊어졌다. 이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독하게 뜨거운 손가락이 나와 화성인 사이의 히더 초원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다. 모래 구덩이 너머로 굽이진 선을 따라 검게 그을린 땅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올랐다. 멀리 왼쪽, 워킹 역에서 공유지로 이어지는 길이 넓게 펼쳐진 곳에서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곧이어 쇠뿔거리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가 멎었고, 검은 돔 모양의 물체는 구덩이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바람에, 나는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충격에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만약 그 죽음의 파동이 원을 그리며 온전히 휩쓸고 지나갔다면, 경악에 빠진 나는 분명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나를 비껴갔고, 그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다. 대신 내 주변의 밤은 순식간에 낮설고 어두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물결치듯 기복이 있는 공유지는 이제 거의 검게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다. 다만 초저녁의 질푸른 하늘 아래 회색빛으로 창백하게 빛나는 도로들만은 예외였다. 사방은 어두웠고, 사람들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리 위로는 별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서쪽 하늘은 여전히 창백하고 밝은, 거의 녹색에 가까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서쪽의 잔광을 배경으로 소나무 꼭대기와 호셀의 지붕들이 검고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화성인과 그들의 장비들은 그들의 불안정한 거울이 흔들리던 가느다란 돛대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흩어진 덩불과 외딴 나무들은 여전히 연기를 내뿜으며 불길이 일렁였고, 워킹 역 쪽의 집들은 고요한 저녁 공기 속으로 불꽃 기둥을 치솟아 올리고 있었다.

그 사실과 형언할 수 없는 경악을 제외하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흰 깃발을 휘날리던 작은 검은 점들의 무리는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 버렸고, 저녁의 정적은 내가 느끼기에 거의 깨지지 않은 듯했다.

나는 이 어두운 공유지 위에 무력하고 무방비한 채,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마치 외부에서 무언가 나를 덮치듯, 공포가 갑작스럽게 엄습해 왔다.

나는 힘겹게 몸을 돌려 히더 풀밭 사이를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공포는 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성인에 대한 공포일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황혼과 정적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극심한 패닉이었다. 그 공포가 나를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며 달아났다. 한 번 몸을 돌린 뒤로는 차마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농락하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안전한 곳에 막 다다랐을 무렵, 원통 주변의 구덩이 속에서 이 신비로운 죽음이 빛의 속도처럼 순식간에 튀어나와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BOOK ONE · 제VI장

초밤 로드에서 나타난 열선

화성인이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조용하게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은 화성인이 열전도율이 거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강력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리고 등대의 포물선 거울이 빛을 쏘아 올리듯,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매끄러운 포물선 거울을 이용해 원하는 물체에 이 강력한 열을 평행 광선 형태로 투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과정이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식이 어떠하든, 열의 광선이 핵심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다. 무엇이든 불에 탈 만한 것이라면 그 열선이 닿는 즉시 화염에 휩싸인다. 납은 물처럼 흘러내리고, 철은 무른 상태가 되며, 유리는 금이 가거나 녹아내린다. 또한 열선이 물에 떨어지면 물은 그 즉시 수증기로 폭발한다.

그날 밤, 원통이 떨어진 구덩이 주변에는 마흔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별빛 아래 누워 있었다. 그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버렸거나 뒤틀려 있었다. 호셀 공유지에서 메이베리까지 이어진 들판은 밤새도록 텅 빈 채로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학살에 관한 소식은 아마도 초밤과 워킹, 그리고 오테쇼에 거의 동시에 전해졌을 것이다. 비극이 일어났을 당시 워킹의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상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호셀 공유지로 이어지는 울타리 사이 길을 따라, 그리고 호셀 다리를 건너며 모여들었다. 아마도 젊은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몸을 단장한 채 나타났을 것이다. 그들은 평소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기면 그러하듯, 이번 사건을 함께 산책하며 가벼운 추파를 던질 구실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해 질 녘 길가를 따라 울려 퍼졌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눈에 선할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워킹의 사람들은 원통이 열렸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불쌍한 헨더슨이 자전거를 탄 전령을 우체국으로 보내 저녁 신문사에 특별 전보를 보내긴 했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탁 트인 벌판으로 나오자, 흥분한 기색으로 모여 앉아 속닥거리는 무리들이 보였다. 사람들은 모래 구덩이 너머에서 회전하는 거울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새로 나타난 이들도 분명 머지않아 그 현장의 흥분에 휩쓸리고 말았다.

스텐트와 오길비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화성인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호셀 공유지에서 병영으로 전보를

보냈다. 이 기이한 생명체들이 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병사 한 중대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전보를 보낸 뒤, 그들은 불행한 전진을 이끌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군중이 목격한 그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내가 본 모습과 매우 일치한다. 세 차례 뿔어져 나온 초록색 연기, 낮게 울려 퍼지던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번쩍이던 불꽃 말이다.

하지만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건졌다. 열선의 하단을 헤더가 자란 모래 언덕이 가로막아 준 덕분이었다. 만약 포물면 거울의 높이가 불과 몇 야드만 더 높았더라면, 그 사건을 전할 수 있는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번쩍이는 빛과 쓰러지는 이들을 목격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황혼 속을 뚫고 그들을 향해 달려들며 덩불에 불을 지르는 듯한 광경이었다. 이어 구덩이에서 울려 퍼지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뚫고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빛줄기가 그들의 머리 바로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빛은 길을 따라 늘어선 너도밤나무 꼭대기를 태웠고, 벽돌을 쪼개고, 창문을 박살 냈으며, 창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모퉁이에서 가장 가까운 집의 박공벽 일부를 산산조각 내며 무너뜨렸다.

나무들이 타오르며 내는 갑작스러운 쿵 하는 소리와 쏜 하는 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공포에 질린 군중은 잠시 머뭇거리며 휘청거리는 듯했다. 불꽃과 타는 나뭇가지들이 도로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불덩어리처럼 날아들었다. 사람들의 모자와 옷에도 불이 붙었다. 그때 공유지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로운 비명과 외침이 뒤섞이던 중, 갑자기 기마 경찰 한 명이 혼란을 뚫

고 말을 달려 나타났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사람들은 즉시 뒤를 돌아보며, 다시 워킹으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려고 뒤에 있는 이들을 밀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치 양 떼처럼 눈이 뒤집힌 채 앞만 보고 달아난 모양이었다. 높은 독 사이로 길이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구간에서 군중은 뒤엉켰고,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많은 인파가 모두 탈출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세 명, 그러니까 여자 둘과 어린 소년 하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깔린 채, 공포와 어둠 속에 버려져 죽어갔다.

BOOK ONE · 제VII장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가.

나 자신만 놓고 본다면, 나무에 부딪히고 헤더 덤불을 헤치며 비틀거렸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 외에는 도망치던 당시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 주변에는 화성인이 불러온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가득했다. 무자비한 열선의 칼날이 머리 위에서 휘둘러지며 사방을 휩쓸다가, 이윽고 내리꽂히며 내 생명을 앗아갔던 것만 같다. 나는 교차로와 호셀 사이의 도로로 빠져나왔고, 그 길을 따라 다시 교차로까지 달렸다.

결국 더는 나아갈 수 없었다. 격렬한 감정과 필사적인 도주로 인해 기력이 다해버린 나는, 길가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지고 말았다. 가스공장 옆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 근처였다. 나는 쓰러진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던 모양이다.

나는 묘한 당혹감에 휩싸인 채 몸을 일으켜 앉았다. 잠시 동안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조차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짓누르던 공포는 마치 옷가지처럼 몸에서 툭 떨어져 나간 듯했다.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깃을 고정하던 단추는 터져 나가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눈앞에 실재하는 것은 세 가지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밤과 우주, 그리고 대자연의 거대함, 나 자신의 무력함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무언가 뒤집힌 것처럼, 관점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렸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별다른 전조는 없었다. 나는 곧바로 다시 평소의 모습, 즉 품위 있고 평범한 시민의 자아로 돌아와 있었다. 정적에 잠긴 공유지나 내가 도망치던 충동, 그리고 치솟던 불길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금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비탈진 다리 위를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머릿속은 그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근육과 신경은 기력을 모두 소진한 듯했다. 아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을 것이다. 다리 아치 너머로 머리 하나가 솟아오르더니, 바구니를 든 인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곁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뛰어가고 있었다. 소년은 내게 밤 인사를 건네며 지나쳐 갔다. 말을 붙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으로 인사를 대신하며 다리를 건너갔다.

메이베리 아치 위로 기차가 지나갔다. 불빛을 머금은 흰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고, 환하게 불을 밝힌 창문들이 긴 애벌레처럼 이어져 남쪽을 향해 질주했다. 달그락거리는 소음과 함께 기차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리엔탈 테라스라 불리는 예쁜 박공지붕 주택가 중 한 곳, 어느 집 대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다. 그것은 광기 어린,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쩌면 나는 유별난 기질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흔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때때로 나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기묘할 정도로 분리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마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느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삶의 모든 긴장과 비극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이런 감정에 강하게 휩싸였다. 내 꿈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었다.

문제는 저 멀리 불과 2마일도 안 되는 곳에서 죽음이 맹렬히 몰아치고 있는데도, 이곳의 풍경은 이토록 평온하기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부조화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가스 공장에서는 분주한 소음이 들려왔고, 가로등은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공유지 쪽 소식은 좀 어떤가?” 내가 물었다.

대문 앞에는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뭐라고요?" 남자 중 한 명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공유지 쪽 소식은 좀 어떤가요?" 내가 물었다.

"방금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오?" 사람들이 물었다.

"사람들이 공유지 일로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대문 너머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화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들어보지 못했소?" 내가 물었다. "화성에서 온 생명체들 말요."

"그만하면 됐어요." 대문 너머의 여인이 말했다. "고마워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화가 치밀었다. 내가 본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려 애써 보았지만, 도저히 말로 옮길 수가 없었다. 내가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하자 사람들은 다시 나를 비웃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들려올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했다.

내 몰골이 너무도 초췌했던 탓에, 문가에 서 있던 아내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좀 마셨다. 그리고는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마자 내가 목격한 일들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차게 식힌 저녁 식사가 이미 차려져 있었지만, 내가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내가 불러일으킨 두려움을 달래주려고 말했다. “저것들은 내가 본 생물 중 가장 움직임이 둔해. 구덩이 안에 머물면서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것들이야!”

“그러지 말아요, 여보!” 아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말했다.

“불쌍한 오길비!” 내가 말했다. “그가 거기서 죽은 채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니!”

적어도 내 아내는 내가 겪은 일을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진 것을 보고, 나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와인을 마시라고 권하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놈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군.” 내가 말했다.

나는 오길비가 말해준 내용을 되뇌며 그녀와 나 자신을 달래기 시작했다. 화성인이 지구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나는 중력 문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지구 표면의 중력은 화성 표면보다 세 배나 강하다. 따라서 화성인의 근력이 그대로라면, 지구에서의 몸무게는 화성에서보다 세 배나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화성인에게 자신의 몸은 마치 납으로 만든 외투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예컨대 다음 날 아침, <더 타임스>와 <데일리 텔레그래프> 모두 이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두 가지 명백한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대기가 화성보다 산소를 훨씬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르곤의 비중이 훨씬 적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화성인들에게 이 과잉된 산소가 주는 활력은 그들의 신체 무게가 늘어난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 분명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는 화성인이 지닌 기계적 지능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근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생각하고 있었다. 음식과 와인을 곁들이고, 익숙한 식탁의 안락함에 기대어, 아내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더해지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용기를 얻으며 상황을 낙관하게 되었다.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군.” 나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들이 위험한 건 분명 공포에 질려 미쳐버렸기 때문이야. 아마

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적어도 지성을 가진 생명체 따위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야.”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구덩이에 포탄을 떨어뜨려 놈들을 전부 몰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사건이 몰아치던 당시의 강렬한 흥분 탓에, 나의 감각은 분명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날 저녁 식탁의 풍경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난다. 분홍빛 전등갓 아래로 나를 살피던 아내의 달콤하면서도 불안한 얼굴, 은제 식기와 유리 기물들이 놓인 하얀 식탁보—당시에는 철학 저술가들조차 이런 소소한 사치를 누리곤 했다—그리고 내 잔에 담긴 진홍빛 와인까지, 모든 것이 사진처럼 선명하다. 식사를 마친 나는 담배를 피우며 견과류를 씹었다. 오길비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화성인의 근시안적인 소심함을 비난하면서 말이다.

모리셔스 섬의 어느 점잖은 도도새는 아마 자신의 둥지에서 위세를 떨치며, 짐승의 고기를 찾아온 무자비한 선원들이 가득 실린 배의 도착에 대해 이렇게 떠들었을지도 모른다. “여보, 내일이면 저놈들을 쫓아 죽여버리자구.”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기이하고도 끔찍한 나날들 속에서 내가 먹게 될 마지막 문명적인 식사였다.

BOOK ONE · 제VIII장

금요일 밤.

그날 금요일에 일어난 온갖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들 중에서도 내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과 그 사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일련의 사건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금요일 밤, 누군가 컴퍼스를 가져와 워킹 모래 채취장 주변으로 반경 5마일의 원을 그렸다면, 그 원 밖에서 새로운 방문객들 때문에 감정이나 습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스텐트의 친척이거나, 혹은 호셀 공유지에서 죽어 있는 서너 명의 자전거 여행객이나 런던 사람들의 친척이 아닌 이상 말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원통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여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것이 독일의 최후통첩만큼이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날 밤 런던에서는 불행한 헨더슨이 보낸 전보가 허위 사실로 치부되었다. 포탄의 나사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그의 보고는 거짓으로 간

주된 것이다. 저녁 신문사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그에게 전보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헨더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결국 신문사는 특별판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경 5마일 이내의 지역조차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남녀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지역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거나 야식을 먹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뒤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고 있었으며, 젊은 연인들은 골목길을 거닐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학생들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을 거리에는 웅성거림이 돌았을지도 모른다. 선술집마다 생소하면서도 지배적인 화젯거리가 오갔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령이 나타나거나, 뒤이어 벌어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가 나타날 때면 사람들은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의 일상은 일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과 같이 수없이 지나온 세월 동안 그래왔던 방식 그대로 흘러갔다. 마치 하늘에 화성이라는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워킹 역과 호셀, 초밤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워킹 분기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열차가 멈췄다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다른 열차들은 측선에서 입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내리거나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흘러갔다. 마을에서 온 한 소년은 스미스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해가

며 오후 소식이 담긴 신문을 팔고 있었다. 화물차들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분기역에서 울리는 기관차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화성인이 나타났다!"라는 사람들의 외침과 뒤섞였다. 9시쯤 되자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하려는 흥분한 사람들이 역으로 몰려들었으나, 그 소란은 술 취한 이들이 일으키는 정도를 넘지 않았다. 런던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 안의 사람들은 객차 창밖의 어둠을 살폈다. 그들은 호셀 방향에서 드물게 깜빡이다 사라지는 불꽃이 튀어 오르는 것과, 별빛 사이로 붉은 빛과 얇은 연기 막이 훑날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황무지에 불이 난 것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란을 감지할 수 있었던 곳은 공유지 주변뿐이었다. 워킹 경계 쪽에서는 대여섯 채의 별장이 불타고 있었다. 세 마을의 공유지 쪽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기심에 찬 군중이 초밤 다리와 호셀 다리 양쪽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머물렀다. 사람들은 오가면서도 군중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용기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화성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군데군데 군함의 탐조등 같은 빛줄기가 공유지를 휩쓸고 지나갔고, 곧이어 열선이 그 뒤를 따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광활한 공유지는 고요하고 황량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 내내 타버린 시신들이 별빛 아래 널브러져 있었다. 많은 사람이 구덩이 안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금요일 밤의 상황은 이러했다. 이 원통은 마치 독이 묻은 화살처럼 우리 지구의 표면을 뚫고 박혀 있었다. 하지만 독은 아직 제대로 퍼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통 주변에는 적막한 공유지가 펼쳐져 있었고, 곳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어두운 물체들이 뒤틀린 자세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불타는 덩불이나 나무도 군데군데 보였다. 그 너머로는 소란스러운 소동이 일렁이고 있었으나, 그 경계 너머까지 염증이 번지지 않는 상태였다.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명의 흐름이 태고로부터 그래왔듯 여전히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다. 곧 혈관과 동맥을 막고, 신경을 마비시키며, 뇌를 파괴할 전쟁의 열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밤새도록 화성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준비 중인 기계들을 다듬고 조작하며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따금씩 녹색색의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밤 11시경, 군인 한 중대가 호셀을 통과해 들어왔다. 그들은 봉쇄선을 구축하기 위해 공유지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되었다. 얼마 후, 두 번째 중대가 초밤을 지나 행군해 왔고 공유지 북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 날 낮 이른 시각에 잉커만 병영에서 나온 장교 여러 명이 공유지에 머물렀는데, 그중 에덴 소령이 행방불명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연대장은 초밤 다리까지 찾아와 자정까지 군중을 상대로 이것저것 캐물었다. 군 당국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밤 11시경 후사르 기병 1개 대대와 맥심 기관총 두 정, 그리고 카디건 연대 소속 병사 약 400명이 올더숏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자정에서 몇 초가 지난 시각, 워킹의 처트시 도로에 모여 있던 군중은 북서쪽 소나무 숲으로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 별은 녹색 빛을 띠었으며, 여름철 번개처럼 소리 없는 광휘를 내뿜었다. 이것이 두 번째 원통이었다.

BOOK ONE · 제IX장

전투의 시작.

토요일은 내 기억 속에 긴장감이 감돌던 날로 남아 있다. 그날은 무더위와 습기로 인해 온몸이 나른한 하루였다. 나중엔 듣기로는 기압계의 수치도 급격히 요동쳤다고 한다. 아내는 겨우 잠을 청했지만,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정원으로 나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공유지 쪽에서는 종다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유 배달부가 평소처럼 찾아왔다. 수레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는 최신 소식을 물으려 옆문 쪽으로 나갔다. 그는 밤사이 화성인들이 군대에 포위되었으며, 곧 대포가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익숙하고도 안심이 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워킹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소리였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유 배달원이 말했다.

이웃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침 식사를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이웃은 군대가 오늘 중으로 화성인을 생포하거나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너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참 아쉽군요.” 그가 말했다. “다른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면 참 흥미로울 텐데 말입니다. 우리도 한두 가지는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울타리 근처로 다가와 딸기 한 움큼을 내밀었다. 정원을 가꾸는 열정만큼이나 수확물도 풍성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플릿 골프 링크스 주변의 소나무 숲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다.

“저기 또 하나가 떨어졌다고들 하더군요.” 그가 말했다. “그 망할 물건 말입니다. 두 번째 원통 말이죠. 하지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황이 다 정리될 때쯤이면 보험사 놈들이 꽤나 큰돈을 물어내야 할 겁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아주 유쾌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숲에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말하며,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나에게 가리켜 보여주었다. “솔잎과 잔디가 두껍게 쌓여 있어서, 며칠 동안은 땅을 밟을 때마다 뜨거울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러더니 그는 불쌍한 오길비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내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일을 하는 대신 공유지 쪽으로 걸어 내려가기로 했다. 철도 교량 아래에 이르자 병사 무리가 보였다. 아마 공병대였을 것이다. 그들은 작고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고, 단추를 풀어헤친 더러운 붉은색 재킷 사이로 푸른 셔츠와 어두운 색 바지, 그리고 종

아리까지 오는 장화가 드러나 있었다. 병사들은 운하 너머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다리 쪽 도로를 따라 시선을 옮겼고, 그곳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카디건 소속 병사 한 명을 발견했다. 나는 한동안 이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날 저녁에 화성인을 목격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병사들 중 누구도 화성인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화성인에 대해 아주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질문을 쏟아냈다. 병사들은 군대의 이동을 누가 허가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들은 호스 가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반적인 공병은 보통 병사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높았기에,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전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꽤 예리하게 토론했다. 내가 열선에 대해 설명하자,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엄폐물 밑으로 기어 올라가서 놈들을 덮치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라고.” 한 명이 말했다.

“집어치워!” 다른 이가 소리쳤다. “이런 열선 앞에서 숨는 게 무슨 소용이야? 꼼짝없이 구워질 뿐이라고! 우리가 할 일은 땅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참호를 파는 것뿐이야.”

“참호는 무슨! 넌 늘 참호 타령이지. 스니피, 너는 아예 토끼로 태어났어야 했다니까.”

“그럼 놈들은 목도 없단 말인가?” 세 번째 남자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체구가 작고 생각에 잠긴 듯한 가무잡잡한 사내였다.

나는 내가 묘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문어라고, 내 눈에는 문어로 보여.” 그가 말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들 하지만, 이번에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놈들이라고 해야겠군!”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야.” 첫 번째 화자가 말했다.

“그 빌어먹을 것들을 당장 포격해서 끝장내버리면 안 됩니까?” 작은 체구의 검은 피부를 가진 남자가 말했다.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포탄은 어디 있나?” 첫 번째 화자가 물었다. “시간이 없어. 내 조언은 하나뿐이네. 서둘러서, 당장 해치우라는 거지.”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잠시 후 나는 그들을 뒤로 하고, 아침 신문을 최대한 많이 구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 길었던 오전과 그보다 더 길었던 오후의 상황을 일일이 묘사하며 독자를 지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호셀 공유지를 살짝이라도 엿보는 데 실패했다. 호셀과 초밤의 교회 종탑마저 이미 군 당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을 걸었던 병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장교들은 바쁠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군대가 나타나자 다시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담배 가게 주인인 마셜에게서 그의 아들이 공유지에서 죽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들었다. 군인들은 호셀 외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잠그고 떠나라고 명령한 상태였다.

점심 식사는 두 시쯤에야 마쳤다. 앞서 말했듯 날씨가 무척 덥고 나
른했던 탓에 몹시 지쳐 있었다. 오후에는 기운을 차리려고 찬물로 목욕
을 했다. 네 시 반쯤 되어 저녁 신문을 사러 역으로 향했다. 아침 신문
에는 스텐트와 헨더슨, 오길비 등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매우 부정확
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
화성인은 모습을 단 한 치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덩이
안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듯했다.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고, 연기는
끊임없이 줄기처럼 피어올랐다. 겉보기에 그들은 전투를 준비하느라
분주해 보였다. 신문에는 "신호를 보내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만 반복될 뿐이었다. 한 공병의
말에 따르면, 긴 장대에 깃발을 매단 사람이 도랑에 들어가 신호를 보
냈다고 했다. 화성인은 그런 시도를 우리가 소가 우는 소리에 반응하듯
무심하게 넘겨버렸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모든 무장과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몹
시 흥분했다. 상상력은 전투적으로 변해갔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의 기발한 방식으로 침략자들을 격퇴했다. 전투와 영웅적 활약을 꿈꾸
던 학창 시절의 환상이 되살아난 기분이었다. 당시 내가 보기에 이것은
공정한 싸움조차 아니었다. 저 구덩이 속에 갇힌 화성인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오후 3시쯤부터 처트시나 애들스톤 쪽에서 대포 소리가 일정한 간격
으로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두 번째 원통
이 떨어진 곳은 불타는 소나무 숲이었다. 사람들은 그 원통이 열리기
전에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번

째 화성인 무리에 맞서 싸울 야포가 초밤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였다.

저녁 6시경이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여름 별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곧 닥쳐올 전쟁에 대해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그때 호셀 공유지 쪽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연달아 총성이 울려 퍼졌다. 뒤이어 땅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한 굉음이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급히 잔디밭으로 달려 나갔다. 오리엔탈 대학 주변의 나무 꼭대기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붉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 보였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의 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스크의 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대학 건물의 지붕선은 마치 백 톤짜리 거포가 휩쓸고 지나간 듯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 집 굴뚝 중 하나도 포탄을 맞은 것처럼 금이 가며 깨져 나갔다. 깨진 굴뚝 조각들이 기와 위를 요란하게 굴러 내려와, 내 서재 창가 쪽 화단에 붉은 파편 더미를 이루며 떨어졌다.

나와 아내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대학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진 지금, 메이베리 언덕의 능선은 분명 화성인의 열선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나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는, 예의를 차릴 겨를도 없이 그녀를 도로로 내몰았다. 그리고는 하녀를 밖으로 불러내, 그녀가 그토록 찾던 상자는 내가 직접 위층으로 올라가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여기 계속 머물 수는 없어.” 내가 말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공유지 쪽에서 다시 포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나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러다 문득 레더헤드에 있는 그녀의 사촌들이 떠올랐다.

“레더헤드!” 나는 갑작스러운 소음을 뚫고 크게 외쳤다.

그녀는 내게서 시선을 돌려 언덕 아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레더헤드까지는 어떻게 가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언덕 아래로 기병대 무리가 철도 교량 밑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세 명은 오리엔탈 대학의 열린 정문을 향해 말을 타고 질주했고, 다른 두 명은 말에서 내려 집집마다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무 꼭대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자 태양은 마치 핏빛처럼 붉게 보였고, 세상 모든 만물에 낮설고 섬뜩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여기 있어. 여기라면 안전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즉시 스포티드 독(Spotted Dog) 여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주인에게 말과 개가 끄는 수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이쪽 언덕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움직이기 시작하리라는 걸 알았기에 나는 서둘러 달렸다. 여관에 도착하니 주인은 집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바(bar) 안에 있었다. 한 남자가 내게 등을 돌린 채 서서 주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1파운드는 받아야 합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그런데 그걸 몰고 갈 사람이 없군요.”

“2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낯선 이의 어깨 너머로 내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자정 전까지는 가져다 놓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맙소사!” 여관 주인이 말했다. “뭘 그리 서두르시는 거요? 지금 내 돼지를 파는 중인데. 2파운드를 주고, 게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까지 하겠다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나는 급히 집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한 뒤, 개가 끄는 마차를 확보했다. 당시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비우는 일이 나만큼이나 시급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우선 마차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뒤 길을 따라 몰고 나갔다. 그러고는 아내와 하인에게 마차를 맡겨둔 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챙겼다. 우리가 가진 은식기 같은 것들을 급히 꾸렸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집 아래쪽의 너도밤나무들은 불타고 있었고, 길을 따라 늘어선 울타리들도 붉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말에서 내린 기병 한 명이 달려왔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내가 보따리에 싣은 보물들을 들고 앞문을 나서자, 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식인가?”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뵈히 바라보더니, "접시 덮개 같은 물건을 타고 기어 나왔다"라며 무언가를 소리 높여 외치고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도로를 가로질러 불어왔고, 그 연기에 가려 그의 모습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아내도 남편과 함께 런던으로 떠나며 집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약속했던 대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하인의 짐 상자를 챙겨 나왔다. 상자를 아내 곁에 있는 개 수레 뒤에 실은 뒤, 고삐를 잡고 아내 옆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탔다. 잠시 후 우리는 연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메이베리 언덕의 반대편 경사면을 따라 올드 워킹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눈앞에는 평온하고 햇살이 내리쬐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길 양옆으로는 밀밭이 끝없이 이어졌고, 흔들리는 간판을 단 메이베리 여관이 보였다. 앞쪽에는 의사의 마차가 가고 있었다. 나는 언덕 아래에 이르러 내가 떠난 언덕 쪽을 돌아보았다. 붉은 불꽃의 줄기가 섞인 검은 연기가 굵은 띠를 이루며 정지된 공중으로 치솟고 있었고, 그 연기는 동쪽의 푸른 나무 꼭대기 위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기는 이미 동서로 멀리 뻗어 나가 있었다. 동쪽으로는 바이플릿 소나무 숲까지, 서쪽으로는 워킹까지 연기가 번져 있었다. 길 위에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뜨겁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기관총이 웅웅거리며 돌아가다 이내 멎었고, 이어서 간헐적으로 소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 화성인이 열선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을 지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운전이 능숙한 편이 아니었기에, 즉시 말에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두 번째 언덕이 검은 연기를 가리고 있었다. 나는 채찍으로 말을 후려치고는, 워킹과 샌드가 우리와 그 요동치는 소란 사이에 놓일 때까지 고삐를 늦춰 말을 달리게 했다. 나는 워킹과 샌드 사이에서 의사를 따라잡아 그를 지나쳐 갔다.

BOOK ONE · 제X장

폭풍 속에서

레더헤드는 메이베리 언덕에서 약 12마일 떨어져 있다. 파포드를 지나 펼쳐진 울창한 초원에는 건초 향기가 감돌았고, 길 양옆의 울타리에는 들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하고 화사했다. 우리가 메이베리 언덕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울려 퍼지던 격렬한 포성은 시작될 때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멎었고, 그 덕분에 저녁은 매우 평온하고 고요했다. 우리는 별 탈 없이 9시쯤 레더헤드에 도착했다. 말에게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주는 동안, 나는 사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가는 내내 아내는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다. 마치 불길한 예감에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화성인들이 그저 몸이 너무 무거워서 구덩이에 갇혀 있을 뿐이며, 기껏해야 구덩이 밖으로 조금 기어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아내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할 뿐이었다. 여관 주인에게 했던 약속만 아

니었더라면, 아내는 그날 밤 리더헤드에 머물자고 내게 간곡히 권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헤어질 때 아내의 얼굴이 무척 창백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나 역시 하루 종일 열띤 흥분 상태였다. 문명 사회를 가끔 휩쓰는 전쟁의 광기와 매우 흡사한 무언가가 내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래서 그날 밤 메이베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전혀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방금 들은 마지막 일제 사격이 화성인 침략자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신호일까 봐 두려울 정도였다. 당시 내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자면, 나는 그 최후의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돌아갈 준비를 마쳤을 때는 거의 11시였다. 밤은 예상외로 어두웠다. 사촌 형님의 집에서 불빛이 비치는 통로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눈앞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공기는 낮처럼 뜨겁고 눅눅했다. 머리 위로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우리 주변의 관목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사촌 형님의 하인이 등불 두 개를 모두 밝혔다. 다행히 나는 이 길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문가에 서서 내가 이룬마차에 올라탈 때까지 나를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사촌 형님과 형수님은 나란히 서서 행운을 빌어주었다.

처음에는 아내의 공포가 전염되어 마음이 다소 우울해졌으나, 곧 생각은 다시 화성인에게로 향했다. 당시 나는 그날 저녁의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 충돌을 촉발한 구체적인 상황조차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옥책을 거쳐 돌아왔는데, 샌드나 올드 워킹 쪽

이 아닌 그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옥컴을 지나는데 서쪽 지평선 너머로 핏빛 광채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하늘을 향해 천천히 번져 나갔다. 몰아치는 폭풍우 구름이 검고 붉은 연기 덩어리들과 뒤섞여 있었다.

리플리 거리는 적막했다. 불이 켜진 창문 한두 개를 제외하면 마을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파포드로 이어지는 길 모퉁이에서 나는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을 돌린 채 모여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언덕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내가 지나쳐 온 고요한 집들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비어 있는 폐가였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밤의 공포에 맞서 경계하며 숨죽이고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리플리에서 파포드를 지나올 때까지 나는 웨이강 계곡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붉은 섬광을 볼 수 없었다. 파포드 교회를 지나 작은 언덕을 올라서자 섬광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내 주변의 나무들은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를 알리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 있는 파포드 교회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메이버리 언덕의 윤곽이 나타났다. 붉은 빛을 배경으로 나무 꼭대기와 지붕들이 검고 날카로운 형상을 띠며 드러났다.

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불길한 초록빛 섬광이 내 주변의 도로를 비추더니 애들스톤 쪽으로 뻗은 먼 숲을 드러냈다. 고삐가 팽팽

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몰려오던 구름 사이로 마치 초록색 불꽃의 실타래가 꿰뚫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 보였다. 그 빛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던 구름을 순식간에 밝히더니, 내 왼쪽 들판으로 떨어졌다. 세 번째로 떨어진 유성이었다!

폭풍이 몰려오자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보랏빛 번개가 번뜩이며 나타났다. 곧이어 머리 위에서 로켓이 터지는 듯한 천둥소리가 울려 퍼졌다. 겁에 질린 말은 재갈을 물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메이베리 언덕 기슭을 향해 완만한 경사가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 내려갔다. 번개가 치기 시작하자, 내가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번쩍임이 이어졌다. 뒤를 잇는 천둥소리는 기묘한 파열음을 동반하며 쉴 새 없이 몰아쳤다. 그것은 일반적인 천둥의 울림이라기보다, 거대한 전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 번쩍이는 빛은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어지러웠고, 경사로를 내달리는 내 얼굴에는 가느다란 우박이 거세게 몰아쳤다.

처음에는 눈앞의 길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메이베리 언덕 반대편 사면을 따라 무언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처음에는 집의 젖은 지붕인가 싶었으나, 번뜩이는 빛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을 보니 그것은 무언가 빠르게 구르는 움직임이었다. 형체는 잡히지 않았다. 잠시 어둠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이내 대낮처럼 환한 빛이 번쩍였다. 그러자 언덕 꼭대기 근처에 있는 고아원의 붉은 건물들과 소나무의 초록빛 꼭대기들이 나타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물체도 선명하고 밝게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목격한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것은 집 몇 채보다도 높은 거대한 삼각대 형태의 괴물이었다. 그것은 어린 소나무들을 짓밟으며 나아갔고,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들을 사정없이 부수어 버렸다. 번쩍이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 걸어 다니는 기계는 히더 풀밭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나아갔다. 기계 아래로는 마디마디 연결된 강철 로프들이 매달려 흔들렸고, 그것이 지나갈 때 내는 요란한 소음은 천둥소리와 뒤섞여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번쩍하는 섬광이 일 때마다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계는 두 발을 공중에 든 채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움직였고, 다음 섬광이 일 때면 마치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처럼 백 야드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우유 짜는 의자가 땅 위를 거칠게 구르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본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다만 그 의자 대신, 삼각대 받침대 위에 놓인 거대한 기계 덩어리를 상상하면 된다.

그때 갑자기 내 앞의 소나무 숲이 갈라졌다. 마치 사람이 갈대밭을 헤치고 나갈 때 갈대들이 꺾이며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나무들은 힘없이 꺾여 나가며 앞을 향해 튀어 나갔고, 곧이어 두 번째 거대한 삼각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나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마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을 몰아 달리고 있었다! 두 번째 괴물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말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세차게 돌렸다. 순식간에 이륜마차가 말 쪽으로 기울어졌다. 마차의 축이 요란한 소리

를 내며 박살 났고, 나는 옆으로 튕겨 나가 얇은 물웅덩이 속으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나는 거의 곧장 밖으로 기어 나와, 발이 여전히 물에 잠긴 채 가시덤불 더미 아래 몸을 웅크렸다. 말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불쌍한 짐승, 목이 부러진 모양이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뒤집힌 이룬마차의 검은 덩어리가 보였고, 바퀴의 실루엣이 여전히 천천히 회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잠시 후, 거대한 기계가 내 곁을 성큼성큼 지나쳐 파포드 쪽 언덕 위로 향했다.

가까이서 본 그 물체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이했다. 그것은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무생물적인 기계가 아니었다. 금속음이 울리는 규칙적인 발걸음을 내디디며 움직이는 기계였으나, 동시에 기묘한 몸체 주위로는 길고 유연하며 번쩍이는 촉수들이 흔들리며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촉수는 어린 소나무 한 그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며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 나갔고, 꼭대기에 얹힌 돛쇠 덮개는 마치 주변을 살피는 머리처럼 앞뒤로 움직였다. 본체 뒤편에는 거대한 어부의 바구니를 닮은 흰색 금속 덩어리가 달려 있었으며, 괴물이 내 곁을 휩쓸고 지나갈 때 사지의 관절에서는 초록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은 사라졌다.

당시 내가 본 것은 번쩍이는 번개 때문에 온통 희미하기만 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과 짙은 검은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이 지나가며 천둥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귀를 찢는 듯한 환희에 찬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알로! 알로!" 그리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그것은 반 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동료와 합류했고, 두 물체는 함께 들판에 놓인 무언가를 향해 몸을 굽혔다. 들판에 떨어진 저 '물체'는 화성에서 우리를 향해 쏘아 올린 열 개의 원통 중 세 번째 것이 틀림없다.

나는 몇 분 동안 빗속과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빛에 의지해, 멀리 울타리 너머를 움직이는 저 거대한 금속 생명체들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가느다란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박이 내리다 몇기를 반복할 때마다 저들의 형체는 안개 속으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번개가 잠시 잦아들 때면, 밤의 어둠이 다시 저들을 집어삼켰다.

위에서는 우박이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웅덩이 물이 차올라 온몸이 흠뻑 젖었다. 멍한 충격에 사로잡힌 탓에, 한동안은 독 위로 기어 올라가 몸을 말리거나 당장 닦친 위험을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내 근처에는 감자밭에 둘러싸인, 방 한 칸짜리 작은 나무 오두막 하나가 있었다. 나는 마침내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몸을 낮게 웅크린 채 엎페할 수 있는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 그곳을 향해 달렸다. 오두막 문을 거칠게 두드려 보았으나,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두드리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이동 경로의 대부분을 도랑을 이용해 기어갔고, 그 거대한 기계들의 눈을 피해 메이베리 방향의 소나무 숲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다.

나는 이 혼란을 틈타 젖은 몸을 떨며 집을 향해 나아갔다. 나무들 사이를 헤매며 오솔길을 찾으려 애썼다. 숲 안은 정말이지 칠흑같이 어두웠다. 번갯불은 점차 잦아들었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우박은 무성한 나뭇잎 사이를 뚫고 기둥처럼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기 때문이다.

내가 목격한 모든 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더라면, 나는 즉시 바이프리트를 거쳐 스트리트 코밤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리하여 레더헤드에 있는 아내에게 돌아가 합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주변을 둘러싼 기이한 상황과 비참한 몸 상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온몸에 멍이 들고 지쳤으며, 흠뻑 젖은 데다 폭풍우로 인해 귀마저 먹먹하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그 생각 하나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기였다. 나는 나무 사이를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도랑에 빠졌고, 판자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켈리지 암즈에서 내려오는 길목으로 물을 튀기며 나아갔다. 물을 튀겼다고 말한 이유는, 폭우로 인한 빗물이 진흙탕이 되어 모래를 휩쓸며 언덕 아래로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내게 부딪혔고, 나는 그 충격에 뒤로 휘청거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더니 옆으로 몸을 날렸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걸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저만치 달려가 버렸다. 마침 이 지점은 폭풍의 기세가 너무나 거세서, 언덕 위로 길을 내며 올라가는 것조차 무척이나 고된 일이었다. 나는 왼쪽 율타리에 바짝 붙어 율타리 판자를 붙잡고 간신히 앞으로 나아갔다.

언덕 꼭대기 근처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것에 발이 걸렸다. 번쩍이는 번갯불 사이로 발치에 검은색 모직 옷가지 더미와 장화 한 켤레가 보였다.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는지 채 확인하기도 전에 번갯불은 사라졌다. 나는 다음 번개가 치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시 번개가 내리쳤을 때, 나는 그가 건장한 체격의 사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옷차림은 저렴해 보였으나 지저분하지는 않았다. 그는 몸 아래로 머리를 굽힌 채 울타리 근처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마치 울타리에 거세게 내동댕이쳐진 듯한 모습이었다.

시신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억누르며,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자 시신을 뒤집었다. 그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목이 부러진 듯했다. 번개가 세 번째 번쩍였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내 눈앞에 들이닥쳤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내가 마차를 빌렸던 '스포티드 독' 여관의 주인장이었다.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넘어 지나 언덕 위로 계속 걸어 올라갔다. 경찰서와 켈리지 암즈 여관을 지나 내 집을 향해 길을 잡았다. 언덕 위에서 불타는 곳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호셀 공유지 쪽에서는 여전히 붉은 빛이 일렁였고, 쏟아지는 우박을 뚫고 붉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몰려오고 있었다. 번쩍이는 빛 사이로 살펴보니, 내 주변의 집들은 대부분 무사해 보였다. 켈리지 암즈 여관 근처 도로에는 검은 더미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메이베리 다리 쪽 도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문을 닫고 잠근 뒤 빗장까지 걸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계단 발치로 가서 주저앉았다. 머릿속에는 성큼성큼 움직이는 금속 괴물들과 울타리에 부딪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이겨진 시신만이 가득했다.

나는 벽을 등지고 계단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BOOK ONE · 제XI장

창가에서.

이미 말했듯이, 내 감정의 폭풍은 스스로 소진되어 버리는 버릇이 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내 몸이 차갑게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계단 카펫 위에는 작은 물웅덩이들이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식당으로 가서 위스키를 몇 모금 마신 뒤,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을 마친 뒤 나는 서재로 올라갔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서재 창밖으로는 나무들과 철로 너머로 호셀 공유지가 내려다보였다. 급히 떠나느라 이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복도는 어두웠다. 창틀 너머로 보이는 풍경과 대조되어, 방 안쪽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 보였다. 나는 문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뇌우가 지나갔다. 오리엔탈 대학의 탑들과 그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멀리 떨어진 모래 채취장 근처의 공유지가

선명한 붉은 광채에 휩싸여 보였다. 그 빛을 가로질러, 기괴하고 낯선 거대한 검은 형체들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방향의 온 들판이 불길에 휩싸인 듯했다. 광활한 언덕 위로 미세한 불꽃들이 솟아올라, 사그라드는 폭풍의 돌풍에 맞춰 일렁이며 뒤틀리고 있었다. 그 불길은 머리 위로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에 붉은 빛을 반사했다. 이따금 근처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창가로 밀려와 화성인의 형체를 가렸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검은 물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서재의 벽과 천장에 불빛이 어른거렸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무언가 타는 듯한 날카롭고 매캐한 송진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창밖으로 시야가 탁 트였다. 한쪽으로는 워킹 역 주변의 집들이 보였고, 다른 한쪽으로는 바이플릿의 검게 그을린 소나무 숲이 펼쳐졌다. 언덕 아래 철도 야치 근처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메이베리 도로를 따라 늘어선 집들과 역 근처의 거리들도 불타는 폐허가 되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처음에는 철도 쪽에서 보이는 빛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검은 더미와 강렬한 섬광이 보였고, 그 오른쪽에는 노란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들이 줄지어 있었다. 곧 그것이 탈선한 열차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채 불타고 있었고, 뒤쪽 객차들은 아직 선로 위에 남아 있었다.

집들과 기차, 그리고 초밤 방향으로 불타는 들판이라는 세 곳의 주요 빛줄기 사이로, 어둠이 깔린 들판이 불규칙한 조각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는 희미하게 빛을 내며 연기를 내뿜는 땅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불꽃이 박힌 그 검은 별판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그 모습은 무엇보다도 밤의 포터리스를 떠올리게 했다. 처음에는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야 워킹 역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배경으로, 검은 형체들이 줄지어 철길을 가로질러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수년 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세상이 이토록 불타는 혼돈으로 변해버리다니! 지난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원통에서 쏟아져 나온 저 느릿느릿한 덩어리들과 이 거대한 기계 괴물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아직은 짐작만 할 뿐이었다. 나는 마치 남의 일을 관찰하듯 묘한 거리감을 느끼며 책상 의자를 돌려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검게 그을린 들판을, 특히 모래 채취장 근처의 번뜩이는 빛 속을 오가는 세 대의 거대한 검은 형체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분주해 보였다. 나는 그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지능을 가진 기계 장치일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아니면 인간의 뇌가 몸속에 자리 잡고 몸을 다스리듯, 화성인이 각 기계 안에 앉아 조종하고 지휘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물체들을 인간이 만든 기계와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이런 의문을 품었다. 만약 지능이 낮은 동물이 철갑선이나 증기 기관을 본다면 과연 어떻게 느낄까?

폭풍이 지나간 뒤 하늘은 맑게 개었다. 불타는 대지에서 피어오른 연기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던 작은 점 같은 화성이 서쪽 하늘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군인이 내 정원으로 들어왔다. 울타리를 굽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를 짓누르던 무기력함에서 깨어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울타리 너머로 그가 힘겹게 기어오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른 사람을 마주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췌!”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울타리 앞에서 망설이며 멈춰 섰다. 그러고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 모퉁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몸을 굽힌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거기 누구냐?” 그도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창문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며 살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신만이 아시겠죠.”

“숨으려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내가 말했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낸 뒤, 다시 문을 잠갔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았고, 코트 단추도 풀어헤친 상태였다.

"맙소사!" 내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자 그가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가 절망하며 몸짓을 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우리를 쓸어버렸습니다. 그저 통째로 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왔다.

"위스키 좀 마세요." 나는 독한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건네며 말했다.

그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더니 갑자기 탁자 앞에 주저앉아 두 팔에 머리를 파묻고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나머지 견잡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절망조차 잊은 채, 기이한 망연자실함 속에서 그를 곁에 서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진정하고 내 질문에 답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겨우 입을 떼면 그는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그는 포병 부대의 마부였는데, 전투에 투입된 것은 7시쯤이었다고 했다. 당시 공유지 너머에서는 포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화성인의 첫 번째 무리

가 금속 방패를 앞세워 두 번째 원통을 향해 천천히 기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 때였다.

잠시 후, 이 방패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삼각대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것은 내가 목격한 첫 번째 전투 기계였다. 그가 몰던 대포는 모래 채취장을 통제하기 위해 호셀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대포가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대포를 운반하던 포수들이 후방으로 물러나던 중, 그의 말이 토끼굴을 밟는 바람에 말이 넘어졌고 그는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대포가 폭발했다. 탄약이 터져 나가며 사방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는 타버린 시신과 말의 사체 더미 아래에 깔린 채 정신을 차렸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소.” 그가 말했다. “말의 앞부분이 내 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지. 우리는 모두 몰살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소. 그리고 그 냄새란, 세상에! 마치 타버린 고기 냄새 같았소! 말이 떨어지면서 내 등에도 상처를 입었는데, 몸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그 상태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소. 불과 일 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일상 같았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굉 하는 소리와 함께 획 하고 모든 게 휩쓸려 버렸단 말이요!”

“전멸이야!” 그가 말했다.

그는 죽은 말 밑에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공유지 너머를 몰래 훑쳐 보았다. 카디건의 병사들이 산개 대형을 갖추어 구덩이를 향해 돌격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저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갔을 뿐이었다. 그러자 괴물은 몸을 일으키더니, 몇 안 되는 도망자들 사이로 공유지를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걷기 시작했다. 머리 모양의 덮개는 마치 수도사의 후드를 쓴 사람의 머리처럼 이리저리 움직였다. 일종의 팔에는 복잡한 금속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는 초록색 불꽃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 장치의 깔때기 모양 입구에서는 열선이 연기를 내뿜으며 뿜어져 나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포병의 눈에 비친 공유지에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미 검게 타버린 해골처럼 변한 것들을 제외하면, 공유지의 모든 덩불과 나무는 불타고 있었다. 후사르 기병대는 지형의 굴곡 너머 도로에 있었기에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맥심 기관총 소리가 한동안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이내 멎었다. 그 거인은 워킹 역과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집들만은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 그러다 순식간에 열선이 쏟아졌고, 마을은 불타는 폐허 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나서 그 존재는 열선을 멈추더니, 포병을 등지고 두 번째 원통이 숨겨진 연기 자욱한 소나무 숲을 향해 뒤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존재가 움직이는 순간, 구덩이 속에서 두 번째로 빛나는 거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번째 괴물이 첫 번째 괴물의 뒤를 따라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포병은 뜨겁게 달궈진 헤더 풀과 재를 가로질러 호셀 공유지를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간신히 도로 옆 도랑으로 몸을 피했고, 덕분에 워킹까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워킹에 도착한 그의 이야기는 격앙된 어조로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지옥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몇 있었으나, 대부분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불에 타거나 데어 있었다. 포병은

화염을 피해 길을 돌아가야 했고, 화성인 거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거의 타들어 가는 폐허가 된 담장 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는 화성인 하나가 한 남자를 뒤쫓아 강철 축수로 낚아챈 뒤, 남자의 머리를 소나무 줄기에 들이받아 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포병은 기회를 틈타 달려 나가 철도 제방 너머로 몸을 던졌다.

그 후로 그는 위험을 피해 런던 방향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메이베리 쪽을 향해 몸을 숨기며 살금살금 이동했다. 사람들은 참호나 지하실에 숨어 지냈고, 살아남은 이들 중 다수는 워킹 마을이나 센드 쪽으로 도망쳤다. 그는 갈증에 시달리다 철도 아치 근처에서 부서진 수도관 하나를 발견했다. 도로 위로 물이 마치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

그에게서 조금씩 전해 들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내게 이해시키려 애쓰며 점점 차분해졌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정오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식료품 저장실에서 양고기와 빵을 찾아 방으로 가져왔다. 화성인의 눈에 땀까 두려워 등불도 켜지 않은 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간신히 빵과 고기를 찾아냈다.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주변 사물들이 조금씩 형체를 드러냈고, 창밖의 짙뻘한 덤불과 꺾인 장미 나무들도 점차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혹은 어떤 짐승들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급히 달려간 모양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검게 그을리고 초췌해진 그의 얼굴은, 분명 내 얼굴 또한 그와 같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조용히 2층에 있는 내 서재로 올라갔다. 나는 열린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단 하룻밤 사이에 계곡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불길은 이제 잦아든 상태였다. 불꽃이 치솟던 자리에는 연기 줄기만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속이 빈 집들과 검게 그을린 나무들의 무수한 잔해는 이제 무자비한 새벽빛 아래 앙상하고도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도 여기저기 운 좋게 살아남은 물건들도 있었다. 잔해 사이로 하얗고 깨끗한 모습의 철도 신호기나 온실의 끝부분 같은 것들이 보였다. 전쟁의 역사상 이토록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인 파괴는 전례가 없었다. 동쪽에서 밝아오는 빛을 받아 세 대의 금속 거인들이 구덩이 주변에 서 있었다. 그들의 덮개는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황폐한 광경을 살피기라도 하는 듯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구덩이가 더 넓어진 것 같았다. 밝아오는 새벽빛을 향해 선명한 초록빛 증기가 구덩이 안에서 밖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그 증기는 솟구치고, 휘몰아치고, 흩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초밤 근처에는 불기둥들이 솟아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 불기둥들은 핏빛 연기 기둥으로 변했다.

BOOK ONE · 제XII장

웨이브리지와 세퍼턴이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새벽빛이 밝아오자, 우리는 화성인을 지켜보던 창가에서 물러나 아주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포병은 그 집이 머물 만한 곳이 아니라는 내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런던으로 향한 뒤, 그곳에서 자신이 속한 기병 포병 제12포병대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리더헤드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화성인의 위력에 압도당한 나는 아내를 데리고 뉴헤이븐으로 가서, 곧장 국외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런 괴물들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런던 주변 지역이 필연적으로 처참한 전쟁터가 될 것임을 이미 분명히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리더헤드 사이에는 세 번째 원통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다. 만약 나 혼자였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포병이 나를 만류했다. 그는 "현명한 아내를 과부로 만드는 건 결코 자

비로운 일이 아니지"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그의 뜻에 따라 숲을 엄폐물 삼아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우리는 스트리트 코범까지 함께 갔고, 그곳에서 헤어졌다. 거기서부터 나는 엽섬을 거쳐 크게 우회하는 경로로 리더헤드에 가기로 했다.

당장이라도 출발해야 했지만,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동행자가 나를 만류했다. 그는 나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집안을 살살이 뒤져 플라스크를 찾아내게 했고, 그 안에 위스키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비스킷 봉지와 고기 조각들을 챙겨 넣을 수 있는 모든 주머니를 채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집을 살금살금 빠져나와, 어젯밤 내가 타고 왔던 그 조잡한 길을 따라 최대한 빨리 달렸다.

집들은 모두 버려진 듯했다. 길 위에는 열선에 맞아 즉사한 시신 세구가 검게 그을린 채 서로 엉겨 붙어 있었다. 여기저기에는 사람들이 급히 떨어뜨리고 간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시계나 슬리퍼, 은순가락 같은 보잘것없는 귀중품들이었다. 우체국 방향으로 꺾어지는 길 모퉁이에는 상자와 가구들을 가득 실은 작은 마차 한 대가 바퀴가 부서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말도 없는 마차였다. 돈궤는 급하게 부서져 열린 채로 잔해 아래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고아원의 별채는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 근방의 다른 집들은 그리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열선이 굴뚝 꼭대기만을 훑고 지나간 듯했다. 하지만 메이베리 언덕에는 우리를 제외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주민 대부분은 내가 리더헤드로 차

를 물고 나갔던 길인 올드 워킹 도로를 통해 대피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버린 모양이었다.

우리는 밤새 내린 우박에 흠뻑 젖어버린 검은 옷의 사체를 지나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 있는 숲으로 들어섰다. 사람 그림자 하나 마주치지 않은 채, 우리는 숲을 헤치며 철로를 향해 나아갔다. 철로 건너편의 숲은 그저 흥측하게 그을리고 검게 타버린 폐허에 불과했다. 나무 대부분은 쓰러져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서 있었다. 초록빛 대신 짙은 갈색 잎을 매단 채, 음울한 회색 줄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 쪽에서 일어난 불은 근처 나무들을 그을린 정도에 그쳤을 뿐, 불길이 번져 나갈 발판을 잡지 못했다. 한곳에는 토요일에 나무꾼들이 작업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벌목되어 갓 다듬어진 나무들이 공터에 놓여 있었고, 제재기와 그 엔진 옆에는 톱밥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사람이 떠난 임시 오두막이 있었다. 오늘 아침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모든 것이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새들조차 울음을 멈춘 듯했다. 우리가 서둘러 길을 재촉하는 동안, 나와 포병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이따금씩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한두 번 정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도로 근처에 다다랐다. 도로에 가까워질수록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나무 줄기 사이로 기병 세 명이 워킹을 향해 천천히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 세우자, 그들은 멈춰 섰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그들은 제8기

병대의 중위 한 명과 이등병 두 명이었다. 그들은 마치 경위의와 닮은 장비를 지니고 있었는데, 포병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헬리오그래프라고 했다.

“오늘 아침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처음이군요.” 중위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와 얼굴에는 열의가 가득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포병은 언덕 아래 도로로 뛰어 내려와 경례를 붙였다.

“어젯밤에 대포가 파괴되었습니다, 중위님. 그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포병대에 합류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중위님. 이 길을 따라만 마일쯤 더 가면 화성인들이 보일 겁니다.”

“도대체 놈들이 어떻게 생겼단 말인가?” 중위가 물었다.

“갑옷을 입은 거인들입니다, 중위님. 높이가 백 피트에 달합니다. 다리는 세 개고, 몸체는 알루미늄 같으며, 머리에는 후드를 쓴 채 아주 거대합니다, 중위님.”

“에이, 설마!” 중위가 말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디 있나!”

“보게 되실 겁니다, 중위님. 그들은 일종의 상자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서 불을 쏘아 사람을 즉사시켜 버립니다, 중위님.”

“무슨 소리야, 총이라니?”

“아닙니다, 중위님.” 포병이 열선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중위가 말을 끊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여전히 길가 독 위에 서 있었다.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중위가 말했다. “저도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이보게,” 중위가 포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집에서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았네. 자네는 어서 가서 마빈 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말하게나. 준장님은 웨이브리지에 계시네. 길은 아나?”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다시 말을 돌려 남쪽으로 향했다.

“반 마일이라고 했나?” 그가 물었다.

“기껏해야 그 정도일 겁니다.” 내가 대답하며 나무 꼭대기 너머 남쪽을 가리켰다. 그는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길을 더 따라가다 보니, 도로 위에서 세 명의 여성과 두 명의 아이들이 노동자의 오두막을 정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작은 손수레를 가져다 놓고는, 지저분해 보이는 짐 꾸러미와 낡은 가구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우리가 지나갈 때 말을 걸어올 겨를조차 없어 보였다.

애들스톤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농가 마차 몇 대가 빼적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평평한 초원을 가로질러 들판의 울타리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다. 12파운드급 포 여섯 문이 워킹을 향해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된 채 놓여 있었다. 포병들은 대기하며 포 옆에 서 있었고, 탄약 마차들은 군기가 잡힌 듯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마치 검열을 받는 것처럼 곧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거 다행이군!” 내가 말했다. “어쨌든 저들도 한 번은 제대로 쏠 수 있을 테니까.”

포병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난 계속 가겠어.” 그가 말했다.

웨이브리지 쪽으로 더 나아가 다리를 막 지나자마자, 흰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긴 방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편으로는 더 많은 대포가 배치되어 있었다.

“어쨌든 활과 화살로 번개에 맞서는 격이지.” 포병이 말했다. “저놈들은 아직 열선을 본 적이 없거든.”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장교들은 남서쪽 나무 꼭대기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땅을 파던 병사들도 때때로 작업을 멈추고 같은 방향을 응시했다.

바이플릿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기병대 스무 명 남짓이 말을 탄 이와 내린 이로 나뉘어 사람들을 쫓아다

니며 통제하고 있었다. 마을 거리에는 흰 원 안에 십자가가 그려진 검은 정부 마차 서너 대와 낡은 옴니버스 등 여러 탈것이 물건을 싣느라 분주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은 일요일 예배라도 드리러 가는 듯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상태였다. 군인들은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느라 무척 애를 먹고 있었다. 우리는 커다란 상자와 난초가 심긴 화분 스무 개쯤을 짊어진 초라한 노인이, 화분들을 두고 가려는 하사관에게 화를 내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저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화성인들을 가리고 있는 소나무 꼭대기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그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게 아주 귀한 거라고 설명하던 참이었어.”

“죽음이다!” 내가 외쳤다. “죽음이 오고 있어! 죽음이!” 그가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러길 바라며, 나는 서둘러 포병의 뒤를 따라갔다.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군인은 그를 떠나고 없었고, 그는 여전히 상자 곁에 서 있었다. 상자 뚜껑 위에는 난초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그는 나무 너머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웨이브리지의 그 누구도 본부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알지 못했다. 마을 전체가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곳곳에는 수레와 마차가 뒤섞여 있었고, 온갖 종류의 운송 수단과 말들이 기묘할 정도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골프나 보트 놀이를 하려는 차림의 신사들, 예쁘게 차려입은 부인들 같은 마을의 젊잖은

주민들은 분주히 집을 꾸리고 있었다. 강가에서 빈둥거리던 이들도 활기차게 짐 싸는 일을 도왔으며, 아이들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개의 사람들은 평소의 일요일과는 전혀 다른 이 놀라운 변화를 오히려 즐기는 듯 보였다. 이 모든 소란의 한복판에서 인품 좋은 교구 목사는 아주 용기 있게 이른 예배를 집전하고 있었고, 그의 종소리는 흥분된 소음 사이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나와 포병은 음수대 계단에 걸터앉아 가져온 음식으로 제법 괜찮은 식사를 마쳤다.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병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척탄병들이었다. 그들은 포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하거나 지하실로 몸을 숨기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철도교를 건너갈 때 보니, 철도역 안팎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북적이는 승강장에는 상자와 꾸러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군대와 대포가 처트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열차 운행은 중단된 듯했다. 나중에 편성된 특별 열차에 타기 위해 사람들이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전해 들었다.

우리는 정오까지 웨이브리지에 머물렀고, 정오 무렵 웨이 강과 템스강이 만나는 셰퍼턴 갑문 근처에 이르렀다. 그 시간의 일부는 두 노부인이 작은 수레에 짐을 싣는 것을 도우며 보냈다. 웨이 강은 어귀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 지점에서는 보트를 빌릴 수 있었고 강을 건너는 나룻배도 있었다. 셰퍼턴 쪽에는 잔디밭이 딸린 여관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나무들 사이로 셰퍼턴 교회의 탑이 솟아 있었다—그 탑은 나중에 첨탑으로 교체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난민 무리를 마주했다. 아직까지는 대혼란 상태까지는 아니었으나, 오가는 배들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숨을 헐떡이며 몰려왔다. 어떤 부부는 집 밖의 작은 문짝 하나를 돌이켜 나누어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집안 살림살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한 남자는 셰퍼턴 역으로 가서 탈출을 시도해 보겠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농담을 던지는 이도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화성인을 그저 아주 강력한 인간 집단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그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눈치였다. 사람들은 이따금 초조한 기색으로 웨이 강 너머 처트시 쪽 초원을 힐끗거렸으나, 그곳은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배가 정박한 곳을 제외하면 템스강 건너편은 모든 것이 고요했다. 서리(Surrey) 쪽의 소란스러운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커다란 페리선은 방금 막 운행을 마친 참이었다. 여관 앞 잔디밭에는 군인 서너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빨리 바라보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질 뿐이었다. 마침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였기에 여관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저게 대체 뭐야?” 뱃사공이 외쳤다. 그러자 내 근처에 있던 한 남자가 킁킁거리는 개를 향해 “닥쳐, 이 멍청한 놈아!”라고 소리쳤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처트시 방향에서 들려온, 둔탁하게 울리는 쿵 소리였다. 총성이었다.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오른쪽 강 건너편, 나무들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병 부대가 일제히 응사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포들이 차례로 묵직한 포성을 내뿜으며 합창하듯 불을 뿜었다.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전투의 소란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전투는 우리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적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앞에는 평평한 초원과 태평하게 풀을 뜯는 소들, 그리고 따스한 햇살 아래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은빛 버드 나무들뿐이었다.

“군인들이 막아줄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여자가 반신반의하며 말했다. 나무 꼭대기 너머로 뿌연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때 갑자기 강 상류 멀리서 연기가 솟구치는 것이 보였다. 연기는 공중으로 흩날리더니 그대로 멈춰 섰다. 곧이어 발밑의 땅이 들쭉이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기가 진동했다. 근처 집들의 창문 두세 개가 박살 났고, 우리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저기 있다!” 파란 저지를 입은 남자가 외쳤다. “저기! 저게 보여? 저기라고!”

장갑을 두른 화성인들이 하나둘씩, 하나, 둘, 셋, 넷,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화성인들은 작은 나무들 너머, 처트시를 향해 길게 뻗은 평평한 초원을 지나 강을 향해 급히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처음에는 마치 후드를 쓴 작은 형체들 같았는데, 날아가는 새처럼 구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때 다섯 번째 기계가 우리를 향해 비스듬히 다가왔다. 화성인들의 장갑을 두른 몸체가 태양 빛을 받아 번뜩였고, 그들은 대포를 향해 빠르게 돌진해 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모습은 눈에 띄게 커졌다. 가장 왼쪽 끝에 있던, 즉 가장 멀리 있던 기계 한 대가 거대한 상자를 공중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자 금요일 밤에 이미 목격했던 그 유령 같고도 끔찍한 열선이 처트시 방향으로 뿔어져 나와 마을을 강타했다.

기이하고도 빠르며 무시무시한 그 생명체들을 마주하자, 물가에 모여 있던 군중은 순간 공포에 질린 듯 보였다. 비명이나 고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러다 곧 거친 웅성거림과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고, 물을 침범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 남자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어깨에 메고 있던 여행용 가방을 놓치지도 못한 채 몸을 돌렸고, 그 가방 모서리에 부딪힌 나는 비틀거렸다. 어떤 여자는 나를 손으로 밀치고는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몸을 돌렸지만, 그렇다고 생각조차 못 할 만큼 겁에 질린 상태는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끔찍한 열선뿐이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물속으로 들어가!” 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다가오는 화성인을 향해 돌진했다. 자갈이 깔린 강변을 지나 물속으로 머리부터 뛰어들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내가 달려가는 사이, 배를 타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줄지어 물로

뛰어내렸다. 발밑의 돌들은 진흙 때문에 미끄러웠다. 강물은 수위가 매우 낮아서,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속을 20피트가량 달렸다.

그때 화성인이 불과 200야드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머리 위로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나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배에서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며 내는 침병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울렸다. 사람들은 강 양쪽 기슭으로 황급히 상륙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성인의 전투 기계는 이쪽저쪽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발로 걷어찬 개미집 속에서 개미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와 같았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나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화성인의 머리 부분이 강 건너편에서 여전히 포격을 가하고 있는 포병 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기계가 전진하면서, 열선을 작동시키는 장치로 보이는 물체를 느슨하게 풀어 내렸다.

순식간에 그것은 강둑에 닿았고, 단 한 걸음 만에 강 중간까지 걸어 들어갔다. 앞다리의 무릎이 건너편 강둑에서 굽혀지더니, 다음 순간 그것은 셰퍼턴 마을 근처에서 다시 원래의 높이만큼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즉시, 강 오른쪽 기슭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여섯문의 대포가 마을 외곽에 숨겨져 있다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충격이 연달아 터져 나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첫 번째 포탄이 덮개 위 6야드 상공에서 터지는 순간, 괴물은 이미 열선을 생성하는 장치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다른 네 마리의 화성인 괴물들은 보았으나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에만 못 박혀 있었다. 그와 동시에 몸체 근처의 공중에서 포탄 두 발이 연이어 터졌다. 덮개가 때맞춰 회전하여 네 번째 포탄을 받아냈으나, 미처 피할 수는 없었다.

포탄이 그 존재의 정면에서 그대로 터져 나갔다. 덮개가 부풀어 오르더니 번쩍이며 튕겨 나갔고, 붉은 살점과 번뜩이는 금속 파편들이 수십 조각으로 흩어졌다.

“맞았다!” 나는 비명인지 환호인지 모를 소리를 내지르며 외쳤다.

내 주변 물속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 순간 밀려온 환희 덕분에 나는 물 밖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머리가 잘려 나간 거인은 술 취한 거인처럼 비틀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기적적으로 균형을 되찾은 그것은 더 이상 발걸음을 조절하지 않았다. 열선을 발사하던 카메라를 뺏뺏하게 치켜든 채, 그것은 셰퍼턴을 향해 빠르게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덮개 안에 있던 화성인의 살아있는 지성은 이미 살해되어 사방으로 흩뿌려진 뒤였다. 이제 그 물체는 파멸을 향해 회전하며 나아가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금속 장치에 불과했다. 그것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직선으로 돌진했다. 셰퍼턴 교회의 탑을 들이받은 그것은 마치 공성퇴가 부딪친 것처럼 탑을 박살 냈다. 그러고는 옆으로 비껴나가더니, 갈팡질팡 나아가 내 시야에서 벗어난 강물 속으로 엄청난 기세로 처박혔다.

격렬한 폭발이 공기를 뒤흔들었고, 물과 증기, 진흙, 그리고 산산조각 난 금속 파편들이 분수처럼 하늘 높이 치솟았다. 열선 발사 장치가 물에 부딪히는 순간, 물은 즉시 증기로 변해 흩어졌다. 잠시 후, 진흙탕 속의 조수(潮水)처럼 거대한 파도가 상류의 굽이진 곳을 돌아 휩쓸러 내려왔다. 그 파도는 거의 데일 듯이 뜨거웠다. 화성인의 기체가 무너지며 내는 요동과 굉음 사이로, 해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비명과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동안 나는 열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요동치는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다. 길을 막고 있던 검은 옷의 사내를 밀쳐내며 굽이진 물길 너머를 바라보았다. 버려진 보트 대여섯 척이 뒤섞인 파도 위에서 목적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 하류 쪽에서 쓰러진 화성인이 보였다. 화성인은 강을 가로질러 누워 있었고, 몸의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다.

잔해에서는 짙은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용돌이치며 휘날리는 증기 사이로, 물을 휘저으며 진흙과 거품을 공중으로 튀겨 올리는 거대한 팔다리가 간간히 흐릿하게 보였다. 측수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흔들리며 휘둘러졌다. 그 움직임이 속수무책으로 목적 없이 방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마치 파도 속에서 상처 입은 어떤 생명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했다. 기계에서는 적갈색 액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공장 지대의 사이렌 소리 같은 격렬한 비명이 내 주의를 끌었다. 견인로 근처, 무릎까지 물

에 잠긴 한 남자가 나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화성인들이 처트시 방향에서 강독을 따라 거대한 보폭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세퍼턴의 대포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소리에 나는 즉시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숨을 참으며, 수면 아래에서 가능한 한 멀리 고통스럽게 헤엄쳐 나갔다. 내 주변의 물은 거세게 소용돌이쳤고, 온도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눈가에 맺힌 머리카락과 물기를 털어내려 고개를 들었을 때, 증기는 소용돌이치는 하얀 안개가 되어 피어올랐다. 그 안개는 처음에는 화성인들의 모습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몰아쳤다. 그러다 안개 너머로 회색빛의 거대한 형체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안개 때문에 그 형체들은 더욱 거대해 보였다. 화성인들은 이미 내 곁을 지나쳐 간 상태였다. 그중 둘은 거품이 일며 요동치는 동료의 잔해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성인은 물속에서 그의 곁에 서 있었다. 하나는 나로부터 아마도 200야드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레일럼 방향에 있었다. 열선을 생성하는 장치들이 높게 흔들렸고, 쉿쉿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광선들이 이리저리 내리쬘렀다.

공기는 온갖 소리로 가득했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소음들이 뒤섞여 있었다. 화성인들이 내는 요란한 소음,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 나무와 울타리, 창고들이 불길에 휩싸이며 쓰러지는 둔

탁한 소리, 그리고 불길이 타오르며 나는 파열음과 포효가 한데 어우러졌다.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아 강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뒤섞였다. 열선이 웨이브리지를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훑고 지나갈 때마다 눈부신 백색 섬광이 번쩍였고, 그 빛은 곧이어 섬뜩한 불꽃들이 연기 속에서 어지럽게 춤추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근처의 집들은 수증기 속에서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창백하게 서서 제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집들 뒤편으로는 불길이 이리저리 넘실거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이었을까, 나는 거의 끓는 듯한 물속에 가슴까지 잠긴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탈출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압도당한 채였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강에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갈대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사람이 다가오자 풀숲을 가로질러 급히 도망치는 작은 개구리들 같았고, 혹은 견인으로 위를 갈팡질팡하며 공포에 질려 뛰어다니는 모습 같기도 했다.

그때 갑자기 열선의 하얀 섬광이 나를 향해 덮쳐왔다. 열선이 닿는 곳마다 집들이 녹아내리며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무들은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했다. 열선은 견인로를 따라 위아래로 번뜩이며 이리저리 도망치는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채 5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물가에 닿았다. 열선은 강을 가로질러 세퍼턴 쪽으로 뻗어 나갔고, 열선이 지나간 자리의 물은 증기를 머금은 채 끓어오르는 파도로 일렁였다. 나는 해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시 후, 거의 끓는점에 달한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뜨거운 물에 데어 눈앞이 흐릿해지고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치솟으며 쉿쉿 소리를 내는 물살을 헤치며 해안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만약 발을 헛디뎠더라면 그대로 끝이었을 것이다. 나는 화성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웨이 강과 템스 강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 길게 뻗은 넓고 벌거숭이 같은 자갈밭 위로 무력하게 쓰러졌다. 나는 오직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화성인의 발이 내 머리에서 채 20야드도 안 되는 거리까지 내려앉았던 희미한 기억이 난다. 그 발은 느슨한 자갈밭을 향해 곧장 내리찍으며 자갈을 이리저리 흩뿌렸고, 다시 위로 솟구쳐 올랐다. 한참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화성인 네 마리가 동료의 잔해를 나누어 씹어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연기 너머로 보였다가 다시 희미해지기를 반복하며, 그들은 강과 초원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끝없이 멀어져 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OOK ONE · 제XIII장

내가 어떻게 부목사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지상 무기의 위력을 갑작스럽게 깨달은 화성인들은 호셀 공유지의 원래 위치로 후퇴했다. 그들은 서두르는 와중에 파괴된 동료의 잔해까지 깊어지고 있었기에, 나처럼 길을 잃고 방치된 사소한 희생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들이 동료를 버려두고 곧장 진격했다면, 당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12파운드 포병 부대뿐이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화성인들은 그들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분명 런던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들의 등장은 백 년 전 리스본을 파괴했던 지진만큼이나 갑작스럽고, 끔찍하며, 파괴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성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행성 간의 비행을 거듭하며 원통이 하나씩 차례로 내려왔고, 매 24시간마다 새로운 병력이 보충되었다. 그사이 적의 엄청난 힘을 완전히 실감한 육군과 해군 당국은 맹렬한 기세로 대비에 나섰다. 매 분마다 새로운 대포가 배치되었다. 황혼

이 내릴 무렵에는 킹스턴과 리치먼드 인근 언덕 경사지에 늘어선 교외 주택들과 모든 숲속에,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검은 포구들이 숨겨진 채 자리를 잡았다. 호셀 공유지에 자리 잡은 화성인 진영을 에워싼, 약 20제곱마일에 달하는 검게 그을리고 황폐해진 구역을 따라 경찰병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훗날 화성인이 접근할 때 포병들에게 이를 알릴 헬리오그래프를 지니고 있었다. 경찰병들은 화성인 진영을 둘러싼 검게 탄 폐허와 마을, 그리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푸른 소나무 숲이었던 검게 그을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역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러나 화성인들은 이제 인류의 포병 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인간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야 그 누구도 두 원통 근처 1마일 이내로는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존재들은 오후 초반 내내 분주히 움직이며 물건들을 옮기는 데 전념한 듯했다. 그들은 애들스톤 골프 링크스에 있는 두 번째 원통과 파포드에 있는 세 번째 원통의 내용물을 모두 가져와, 원래 있던 호셀 공유지의 구덩이로 옮겨 놓았다. 검게 그을린 헤더 풀과 사방으로 흩어진 폐허 위로는 한 화성인이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나머지 화성인들은 거대한 전투 기계를 버려둔 채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밤늦도록 그곳에서 쉬지 않고 작업했다. 구덩이에서 솟구쳐 오르는 짙은 녹색 연기 기둥은 메로우 근처의 언덕에서도 보였으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반스테드와 앵섬 다운스에서조차 보였다고 한다.

내 뒤에서는 화성인들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내 앞에서는 인류가 전투를 위해 집결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불길과 연기가 치

숫는 웨이브리지로부터 런던을 향해,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쏟으며 길을 나섰다.

강물을 따라 떠내려오는 아주 작고 외딴 버려진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나는 흠뻑 젖은 옷들을 대부분 벗어 던진 채 그 배를 쫓아갔고, 결국 배에 올라타 그 파멸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배에는 노가 없었지만, 나는 삶은 듯이 감각이 없는 손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물을 저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나는 할리포드와 월턴을 향해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아주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여정을 이어갔다. 내가 강줄기를 따라간 이유는, 만약 그 거인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물 위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화성인이 쓰러지며 쏟아낸 뜨거운 물이 나를 휩쓸고 하류로 떠내려갔다. 덕분에 1마일 가까이 되는 긴 거리 동안 양쪽 강둑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웨이브리지 방향의 초원을 가로질러 서둘러 달려가는 검은 형체들을 발견했다. 할리포드는 이미 버려진 듯했고, 강을 마주 보고 있는 집들 중 몇 채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푸른 하늘 아래, 마을은 지독히도 고요하고 황량했다. 연기와 가느다란 불꽃 줄기만이 오후의 열기 속으로 곧게 솟아오를 뿐이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길을 막는 일 없이 집이 타오르는 광경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니 강둑의 마른 갈대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내륙에서는 불길이 늦게 수확한 건초밭을 따라 꾸준히 번져 나가고 있었다.

겪어야 했던 그 격렬한 폭력의 여파로 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쳐 있었고, 수면 위로 내리쬐는 열기는 너무나 강렬했다. 나는 한참 동안 이나 물 위를 표류했다. 그러다 다시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다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태양은 맨등을 뜨겁게 달구었다. 마침내 물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월턴의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열병과 어지럼증이 공포를 압도했다. 나는 미들섹스 강둑에 상륙해 긴 풀숲 사이에 쓰러졌다. 죽을 만큼 몸이 아팠다. 시간은 아마 오후 4시나 5시쯤이었을 것이다. 잠시 후 몸을 일으켜 사람 한 명 마주치지 못한 채 0.5마일가량을 걸었으나, 이내 울타리 그늘 아래에 다시 몸을 누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던 그 순간, 혼잣말을 두서없이 중얼거렸던 기억이 난다. 갈증도 심했다. 물을 더 마셔두지 않은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다.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화가 치밀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레더헤드에 도착하고 싶다는 무력한 갈망이 나를 몹시 괴롭혔다.

부목사가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그늘음이 묻은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을 치켜든 채, 하늘 위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이른바 고등어 무늬 구름이 깔린 상태였다. 한여름의 노을빛이 살짝 스며든 옅은 구름들이 줄을 지어 겹겹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가 나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물 좀 있소?” 내가 불쑥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 한 시간 동안 계속 물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서로의 상태를 살폈다. 아마도 그는 나를 보고 꽤나 기이한 물골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물에 흠뻑 젖은 바지와 양말만 걸친 채 알몸이나 다름없었고, 화상을 입은 데다 얼굴과 어깨는 연기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으니 말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으며, 턱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낮은 이마 위로는 벗겨처럼 밝은 색의 곱슬머리가 뿔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눈은 다소 큰 편이었는데, 열은 푸른색 눈동자는 초점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그가 말했다. “이것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느다란 흰 손을 내밀며, 거의 불평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째서 이런 일이 허락된단 말인가?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침 예배를 마치고 오후 일과를 위해 머리를 식히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길과 지진, 그리고 죽음이 들이닥쳤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이 화성인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나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는 무릎을 움켜쥐고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아마도 30초 정도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머리를 좀 식히려고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 그가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땅이 흔들리더니, 죽음이 닥쳐왔지!”

그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턱은 거의 무릎에 닿을 정도로 깊게 떨거어진 상태였다.

이윽고 그는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주일학교까지,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한 건가? 웨이브리지는 또 무엇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교회는 또 어땠고! 불과 3년 전에 다시 지었거늘, 이제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 버렸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도시가 불타며 내뿜는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솟아오르는도다!” 그가 외쳤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마른 손가락으로 웨이브릿지 방향을 가리켰다.

“선버리에서 멀었습니까?” 내가 무덤덤한 어조로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가 물었다. “이 괴물들이 도처에 깔린 겁니까? 지구가 저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까?”

“선버리에서 멀었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성찬식을 집전했을 때만 해도——”

“상황이 바뀌었소.”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오. 아직 희망은 있소.”

“희망!”

“그래요. 이 모든 파괴 속에서도 희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내 견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내 말이 길어질수록 그의 눈에 서리던 흥미는 이내 사라졌고, 다시 예전처럼 멍한 눈빛으로 변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떠나 허공을 헤맸다.

“이것이 종말의 시작임이 틀림없소.”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종말이라니! 주님의 위대하고도 두려운 날이 오고야 마는구려!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덮쳐달라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로부터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간청하게 될 그날 말이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억지로 짜내던 생각을 멈추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그를 내려다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말했다.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라면 종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진과 홍수, 전쟁과 화산 폭발이 인류에게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신께서 웨이브리지만은 예외로 두셨을 것 같습니다? 신은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자비도 없다.”

“그 어느 쪽도, 어찌면 다른 쪽도 아닐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는 더욱 냉정하고 신중해져야 합니다. 불과 세 시간 전에도 저 너머에서 그들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죽다니!”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다. “하나님의 사자(使者)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연히 사건의 한복판에 휘말린 것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저건 대체 뭐지?” 그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이 헬리오그래프 신호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인간이 도움을 주려 애쓰며 보내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 사건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은 이토록 고요하지만 말입니다. 하늘에서 번뜩이는 저 빛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화성인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리치먼드와 킹스턴 근처의 언덕들이 솟아 있고 나무들이 몸을 숨겨주는 저 런던 방향에는, 아마 진지를 구축하고 대포를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화성인들이 다시 이쪽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내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벌떡 일어나 몸짓으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들어봐!” 그가 말했다.

물 건너 낮은 언덕 너머에서 멀리 떨어진 포성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고, 기이한 울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러더니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풍덩이 한 마리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울타리를 넘어 우리 곁을 지나갔다. 서쪽 높은 하늘에는 초승달이 희미하고 창백하게 떠 있었다. 웨이브리지와 셰퍼턴에서 피어오른 연기, 그리고 뜨겁고 정지된 듯한 노을의 광채 위로 달이 걸려 있었다.

“북쪽으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BOOK ONE · 제XIV장

런던에서.

화성인이 워킹에 떨어졌을 때, 내 남동생은 런던에 있었다. 당시의 대생이었던 동생은 곧 있을 시험을 준비하느라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기에,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화성인의 도착 소식을 처음 접했다. 토요일 아침 신문에는 화성이라는 행성과 행성 생명체 등에 관한 긴 특집 기사들이 실려 있었다. 그 기사들 곁에는 짧고 모호하게 작성된 전보 한 통이 실려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간결함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군중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란 화성인이 속사포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보의 마지막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화성인이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빠진 구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올 능력조차 없어 보인다. 아마도 이는 지구의 중력이 가진 상대적 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마지막 문장을 토대로, 신문의 주필은 매우 안심할 만한 글을 덧붙여 썼다.

물론 그날 내 동생이 다니던 보습학원의 생물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모두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거리에는 특별히 흥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후판 신문들은 커다란 헤드라인을 달고 단편적인 소식들을 떠들어댔을 뿐이다. 8시 전까지 신문이 전할 수 있는 내용은 호셀 공유지 주변의 군대 이동과 워킹에서 웨이브리지 사이의 소나무 숲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8시가 되자,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지가 특별 부록을 통해 전신 통신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발표했다. 사람들은 타버린 소나무들이 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리더헤드를 왕복하며 차를 몰았던 그날 밤, 전투에 관해 알려진 사실은 그게 전부였다.

내 동생은 우리를 걱정하지 않았다. 신문 기사를 통해 원통이 우리 집에서 족히 2마일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그날 밤 나에게 달려오기로 마음먹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것들'이 죽기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동생은 오후 4시쯤 전보를 보냈으나 나에게 도착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뮤직홀에서 보냈다.

런던에서도 토요일 밤에 뇌우가 몰아쳤다. 내 동생은 마차를 타고 워털루 역에 도착했다. 자정 열차가 출발하는 승강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동생은 사고 때문에 그날 밤 워킹으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사실 당시 철도 당국조차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역 안은 매우 평온했다. 관계자들은 바이플릿과 워킹 분기점 사이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평소 워킹을 거쳐 가던 극장행 열차들을 버지니아 워터나 길드퍼드 쪽으로 우회시키느라 분주했다. 또한 사우샘프턴과 포츠머스로 향하는 일요일 리그 관광 열차의 경로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 야간 신문 기자 한 명이 동생을 교통 관리자로 착각하고 길을 막아섰다. 동생이 그 관리자와 조금 닮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동생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철도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열차 고장이 화성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사건을 다룬 다른 기록을 읽어보니, 일요일 아침 "런던 전역이 워킹에서 전해진 소식에 전율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토록 과장된 표현을 쓸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많은 런던 시민은 월요일 아침에 공포가 몰려오고 나서야 화성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소식을 접한 이들조차 일요일 신문에 급히 실린 전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게다가 런던 사람 대부분은 일요일 신문을 읽지도 않는다.

게다가 런던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 또한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공포도 느끼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어젯밤 7시경, 화성인들이 원통에서 나왔다. 그들은 금속 방패로 몸을 감싼 채 움직이며 워킹 역과 인근 주택들을 완전히 파괴했고, 카디건 연대 대대 하나를 몰살했다. 현재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화성인의 장갑 앞에서는 기관총도 전혀 소용이 없었으며, 야포마저 무력화되었다. 경기병들이 처트시로 말을 달려 들어가고 있다. 화성인들은 처트시나 원저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리 서부 지역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으며, 런던 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용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

《선데이 선》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다. 한편 《레퍼리》지는 매우 영리하고도 신속하게 이 사태를 다룬 ‘안내서’ 기사를 통해, 마치 마을에 갑자기 맹수들이 풀려난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런던의 그 누구도 장갑을 두른 화성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괴물들이 느릿느릿 움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초기 보고서들에는 "기어간다"거나 "고통스럽게 꿈틀거린다"와 같은 표현이 거의 예외 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전보도 화성인의 진격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일요 신문들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혹은 소식이 끊겼을 때조차도 별도의 특별판을 찍어냈다. 하지만 당국이 언론사에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넘겨준 늦은 오후가 되기 전까지, 대중에게 전할 만한 새로운 소식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당국은 윌턴과 웨이브리지, 그리고 그 일대 주민들이 런던 방향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만을 발표했을 뿐이었다.

내 동생은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아침 일찍 파운들링 병원 교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동생은 침공에 관한 언급과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들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동생은 <레퍼리>지를 한 부 샀다. 신문 속 소식을 접한 동생은 겁에 질렸고, 통신이 복구되었는지 확인하려 다시 워털루 역으로 향했다.

신문 배달원들이 퍼뜨리는 기이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마차, 자전거를 탄 사람들, 그리고 멧을 차려입고 걷는 수많은 인파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관심을 보일 뿐이었고, 설령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이웃 동네의 일이라 생각하는 정도였다.

역에 도착해서야 동생은 원저 노선과 처트시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역의 짐꾼들은 아침에 바이플릿 역과 처트시 역으로부터 놀라운 전보가 여러 통 왔었지만, 갑자기 끊겨 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은 그들에게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얻어낼 수 없었다.

"웨이브리지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정보의 전부였다.

열차 운행은 이미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사우스웨스턴 철도망의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이 역에 서성이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신사가 내 동생에게 다가와 사우스웨스턴 회사를 향해 격렬하게 비난을 쏟아냈다. "이건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해." 노신사가 말했다.

리치먼드와 퍼트니, 그리고 킹스톤 방면에서 기차 한두 대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하루 나들이로 보트를 타러 나갔다가, 갑자기 폐쇄된 운하 갑문을 마주하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블레이저를 입은 한 남자가 내 동생에게 다가와, 기이한 소식들을 쏟아내며 말을 걸었다.

“사람들이 귀중품이 든 상자 같은 걸 신고 마차나 수레를 몰아 킹스톤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몰지, 웨이브리지, 윌턴 쪽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다들 처트시 쪽에서 무거운 포성 같은 총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기병들이 화성인이 오고 있으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쳤다더군요. 햄프턴 코트 역 근처에서도 총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린 그저 천둥소리인 줄로만 알았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화성인들이 그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그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나중에 그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하철 이용객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요일 나들이객들도 반스, Wimborne, 리치먼드 파크, 큐 등 남서부의 휴양지 곳곳에서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막연한 소문을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종착역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오후 5시경, 역에 모여 있던 군중은 엄청난 흥분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거의 항상 닫혀 있는 사우스이스턴 역과 사우스웨스턴 역 사이의 연결 선로가 개통되어, 그 선로를 따라 거대한 대포를 실은 화차와 병사

들로 가득 찬 객차들이 줄지어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대포들은 킹스톤을 방어하기 위해 올위치와 채텀에서 끌어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너희들 잡아먹힐걸!” “우리는 괴물을 길들이는 사람들이라고!” 같은 말들이 오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한 무리가 역으로 들어와 승강장에 있는 시민들을 물리기 시작했고, 내 형은 다시 거리로 나갔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구세군 소녀 무리 가 노래를 부르며 워털루 로드를 따라 내려왔다. 다리 위에서는 한 무리의 건달들이 시냇물을 따라 얼룩덜룩하게 떠내려오는 기묘한 갈색 오물을 구경하고 있었다. 해는 막 저물어가고 있었다. 시계탑과 국회 의사당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다. 그 하늘은 황금빛이었고, 붉은 자줏빛 구름이 가로로 길게 줄무늬를 그리며 펼쳐져 있었다. 근처에서는 시신이 떠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곳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은 자신이 예비군이라고 말하며, 서쪽에서 헬리오그래프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내 형에게 전했다.

웰링턴가에서 내 형은 건장하고 거친 사내 둘과 마주쳤다. 그들은 방금 막 플리트가에서 쏟아져 나온 참이었는데, 손에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신문과 눈에 띄는 벽보를 들고 있었다. "끔찍한 재앙이야!" 사내 중 한 명이 웰링턴가를 따라 걸어가며 다른 사내에게 소리쳤다. "웨이브리지에서 교전 중! 상세 보도! 화성인 퇴각! 런던이 위험하다!" 형은 그 신문을 한 부 사기 위해 3펜스를 지불해야 했다.

그제야 그는 이 괴물들이 지닌 진정한 위력과 공포를 비로소 실감했다. 화성인은 그저 느릿느릿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 몇 마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기계 몸체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지성체였다. 또한 그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으며, 아무리 강력한 대포라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으로 타격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높이가 거의 100피트에 달하며, 급행열차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강렬한 열선을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거미 모양의 기계"라고 묘사되었다. 호셀 공유지 인근, 특히 워킹 지역에서 런던에 이르는 곳에는 주로 야포로 구성된 위장 포대가 설치되었다. 전투 기계 다섯 대가 템스강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운 좋게도 한 대는 파괴되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포탄이 빗나갔고, 포대들은 그 즉시 열선에 맞아 전멸하고 말았다. 군대의 막대한 손실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낙관적이었다.

화성인들은 격퇴당했다. 그들도 무적은 아니었다. 화성인들은 다시 워킹 주변의 원형 구역에 자리 잡은 원통들이 모인 삼각형 지대로 퇴각했다. 사방에서 헬리오그래프를 든 신호병들이 그들을 향해 압박해 들어갔다. 윈저, 포츠머스, 울더숏, 울리치, 심지어 북부에서까지 대포들이 급히 이동하고 있었다. 울리치에서 온 95톤급 장거리 와이어포도 그중 하나였다. 주로 런던을 방어하기 위해 총 116문의 대포가 배치되었거나 급히 설치되는 중이었다. 영국 역사상 이토록 방대한 군사 자원이 이토록 빠르게 집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추가로 떨어질 원통들은 즉시 파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고성능 폭약을 급히 제조하여 배포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분명 기괴하고도 엄중했으나, 대중에게는 공황에 빠지지도, 공황을 부추기지도 말 것을 권고했다. 화성인이 극도로 낮설고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아무리 많아 봐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류에 맞설 화성인은 기껏해야 스무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당국은 원통의 크기를 근거로, 아무리 많아도 원통 하나당 화성인이 다섯 마리, 즉 총 열다섯 마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마리는 이미 처리된 상태였으며,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랐다. 대중은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받을 것이며, 위협을 받는 남서쪽 외곽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조치들도 마련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런던은 안전하며 당국이 충분히 이 난관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듭된 확인과 함께, 이 사실상의 선언은 마무리되었다.

이 내용은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뾰뚱한 종이에 아주 커다란 글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주석을 달 시간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내 형은 신문의 평소 지면들이 이 소식을 실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하게 잘려 나가고 비워졌는지 보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고 말했다.

웰링턴 거리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분홍색 신문을 펴리며 펼쳐 읽는 모습이 보였고, 스트랜드 거리에는 이 선발대를 뒤쫓는 수많은 잡상인의 외침이 갑작스럽게 울려 퍼졌다. 버스에서 허둥지둥 뛰어내려 신문을 한 부라도 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무

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간에, 이번 소식은 분명 그들을 강렬하게 흥분시켰다. 내 형의 말에 따르면, 스트랜드에 있는 한 지도 가게는 장사를 하려고 덧문을 걷어내는 중이었고, 일요일 예복을 차려입고 심지어 레몬색 장갑까지 낀 한 남자가 가게 창문 안쪽에서 서둘러 서리(Surrey) 지역의 지도들을 유리창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형은 손에 신문을 든 채 스트랜드를 지나 트라팔가 광장 쪽으로 가다가, 웨스트 서리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을 보았다.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채소 장수들이나 쓸 법한 수레에 가구 몇 점을 실은 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다리 방향에서 수레를 몰아 오고 있었다. 그 바로 뒤를 건초 수레 한 대가 뒤따라 왔는데, 그 안에는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 대여섯 명과 상자, 보따리들이 실려 있었다. 이들의 얼굴은 초췌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옴니버스에 탄 사람들이 안식일을 맞아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은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은 마차 안에서 그들을 힐끗거리며 쳐다보았다. 피난민들은 광장에 멈춰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스트랜드를 따라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보다 조금 뒤쳐진 곳에서는 평상복 차림의 한 남자가 앞바퀴가 작은 구식 삼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다. 그는 행색이 지저분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내 형은 빅토리아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길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마주쳤다. 형은 어쩌면 나와 마주치거나 내 소식을 듣게 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형의 눈에 띈 것은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의 수가 유난히 많다는 사실이었다. 피난민 중 일부는 옴

니버스에 탄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기도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화성인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장대 같은 다리를 단 보일러 같았다니깐요.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이한 경험에 흥분하여 들떠 있었다.

빅토리아를 지나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상대로 선물집들이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었다. 길모퉁이마다 사람들이 모여 신문을 읽거나 흥분 섞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 기이한 일요일의 방문객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 내 형의 말에 따르면, 도로의 모습은 마치 더비 경마 대회가 열리는 날의 엡섬 하이 스트리트처럼 인파로 가득 찼다고 한다. 형은 도망쳐 나온 이들 중 몇 명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 워킹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어젯밤 워킹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그에게 확인했을 뿐이다.

“바이플리트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른 아침에 자전거를 탄 남자가 마을을 지나가더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서 피하라고 경고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남쪽에서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연기 뿐이었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처트시 쪽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웨이브리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 문을 잠그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이런 정서가 팽배했다. 이토록 큰 혼란을 겪으면서까지 침략자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비난이 었다.

여덟 시쯤 되었을 때, 런던 남부 전역에서 육중한 포성 소리가 분명 하게 들려왔다. 큰길의 소음 때문에 내 형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강가로 이어지는 한적한 뒷골목을 따라 걸어가자 소리가 아주 또렷하 게 들렸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리전트 공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 지 걸어가 새벽 두 시경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나를 몹시 걱정하고 있 으며, 닥쳐온 재난의 규모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졸 였다. 토요일에 내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생각도 군사적인 세부 사항들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침묵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수많은 대 포와, 갑자기 유랑민의 땅처럼 변해버린 시골 풍경을 떠올렸다. 또한 그는 높이가 100피트에 달하는 '장대 같은 다리를 단 보일러'의 모습을 상상해 보려 애썼다.

옥스퍼드 거리에는 피난민을 잔뜩 실은 수레가 한두 대 지나가고 있 었고, 메릴본 로드에도 몇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 는 속도가 워낙 느린 탓에, 리전트 스트리트와 포틀랜드 플레이스는 평 소 일요일 밤처럼 산책객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리전트 파크 가장자리를 따라 등성등성 켜진 가스등 아래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많이 보였다. 밤공기는 따뜻하고 고요했으며, 약간의 답답함마저 느껴졌다.

간간이 포성이 들려왔고, 자정이 지나자 남쪽 하늘에서는 먼 번개가 번쩍이는 듯했다.

그는 내게 최악의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신문을 읽고 또 읽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던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목적 없이 다시 밖으로 배회하듯 나갔다. 돌아온 그는 시험 공부를 하려 애써 보았으나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다. 자정에서 조금 지난 시각에 잠자리에 든 그는 월요일 새벽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거리에서 달려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그리고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섬뜩한 꿈을 꾸다 깨어났다. 천장에는 붉은 빛의 잔영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누워, 해가 뜬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미쳐버린 것인지 의아해했다. 그러다 이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다.

그의 방은 다락방이었다. 그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거리 위아래로 그의 창틀 소리에 화답하듯 십수 번의 메아리가 일었고, 자다 일어난 온갖 흐트러진 차림의 머리들이 창문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있다!" 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화성인이 오고 있다!" 그러고는 서둘러 옆집으로 달려갔다.

앨버니 스트리트 병영에서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닿는 곳마다 있는 교회들은 격렬하고 무질서한 경종을 울려대며 사람들의 잠을 깨우느라 분주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건

너편 집들의 창문들이 하나둘씩 어둠을 뚫고 노란 불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밀폐된 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마차는 모퉁이를 돌며 갑자기 소란스럽게 나타나더니, 창문 아래에 이르러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절정에 달했다가 멀리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뒤를 바짝 이어 택시 두 대가 뒤따라왔다. 이들은 곧 이어질 수많은 탈것의 긴 행렬을 알리는 전조였다. 이 차량들은 대부분 초크 팜 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유스턴 역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는 대신 북서부 철도의 특별 급행열차들이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 형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경찰들이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형의 뒤에 있던 문이 열리더니, 복도 맞은편 방에 사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셔츠와 바지, 슬리퍼 차림이었고, 뭉뚱은 허리춤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베개에 눌러 형클어진 상태였다.

“대체 저게 뭐야?” 그가 물었다. “불인가?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두 사람 모두 창밖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경찰관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들으려 애썼다. 골목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모퉁이마다 무리를 지어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형의 하숙방 동료가 말했다.

내 형은 그에게 모호하게 대답하고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형은 옷을 한 벌씩 챙겨 입을 때마다 창가로 달려가, 점점 고조되는 거리의 소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신문을 파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쳐 대기 시작했다.

“런던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 킹스턴과 리치먼드의 방어선이 돌파당했다! 템스 계곡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주변 모든 곳이 그러했다. 아래층 방들, 길 양옆과 건너편의 집들, 그리고 뒤편의 파크 테라스와 메릴본 지역의 수백 개 거리도 마찬가지였다. 웨스트본 파크 지구와 세인트 판크라스, 서쪽과 북쪽의 킬번과 세인트 존스 우드, 햄스테드, 그리고 동쪽의 쇼어디치와 하이버리, 해거스톤, 혹스턴까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른바 일링에서 이스트 햄에 이르는 거대한 런던 전역이 모두 그러했다. 사람들은 눈을 비벼가며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고, 목적 없는 질문을 던지며 밖을 살폈다. 다가올 공포의 폭풍이 거리로 첫 숨을 내뿜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거대한 공황이 시작되는 새벽이었다. 일요일 밤, 아무것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잠들었던 런던은 월요일 새벽녘이 되어서야 생생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며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형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마침 집들의 난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이른 새벽빛을 머금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던 때였다. 걷는 이들과 탈것에 올라탄 사람들의 행렬은 매 순간 점점 더 늘어났다. "검은

연기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다시 "검은 연기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똑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형이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또 다른 신문 판매원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형은 즉시 신문 한 부를 샀다. 그 판매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 도망치듯 뛰어가면서도, 달리는 와중에 신문을 한 부당 1실링씩 팔아치우고 있었다. 이윤 추구하고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광경이었다.

내 형은 이 신문에서 총사령관이 보낸 그 비극적인 보고서를 읽었다.

“화성인은 로켓을 이용해 검고 독성이 강한 증기를 거대한 구름처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포병대를 질식시켰고 리치먼드와 킹스턴, 워블턴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는 길목의 모든 것을 파괴하며 런던을 향해 천천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은 연기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은 즉시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으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인구 600만의 거대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며, 달아나고 있었다. 머지않아 도시의 모든 인파가 북쪽을 향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올 터였다.

"검은 연기다!" 사람들이 외쳤다. "불이야!"

이웃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여 소란을 피웠고,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길 위쪽 급수통으로 부주의하게 몰던 마차가 충돌하며 박살 났다. 집집마다 병적인 노란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지나가는 몇몇 마차들은 등불을 끄지 않은 채 번쩍이며 지나갔다. 그리고 머리 위로는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맑고, 일정하며, 평온한 빛이었다.

그는 등 뒤의 방 안에서,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발소리를 들었다. 집주인 여인이 가운과 솔을 느슨하게 두른 채 문가로 나왔고, 그녀의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그 뒤를 따라 나왔다.

내 형은 이 모든 일의 중대함을 깨닫기 시작하자, 서둘러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형은 가지고 있던 돈 전부인 약 10파운드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BOOK ONE · 제XV장

서리에 일어난 일.

할리포드 근처의 평탄한 초원, 울타리 아래에서 부목사가 내게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때였다. 동시에 내 형은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로 피난민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성인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서로 엇갈리는 여러 증언을 토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화성인들 대부분이 그날 밤 9시까지 호셀 공유지의 구덩이에서 준비 작업에 몰두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언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초록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여덟 시쯤 확실히 세 대가 나타났다. 그것들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바이플릿과 파포드를 지나 리플리와 웨이브릿지 방향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저무는 해를 등지고 대기 중이던 포병부대의 시야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성인들은 한데 뭉쳐 움직이지 않고 일렬로 늘어서서 전진했는데, 각 개체 사이의 거리는 대략 1.5마일 정

도 되어 보였다. 그들은 사이렌 소리 같은 울음소리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으며, 그 소리는 음의 높낮이가 급격하게 변하며 울려 퍼졌다.

어퍼 할리포드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바로 리플리와 세인트 조지 힐을 향해 울려 퍼지던 그 울부짖음과 포성이었다. 리플리의 포병들은 결코 그런 자리에 배치되어서는 안 될 미숙한 자원병들이었다.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무의미한 일제 사격을 한 차례 퍼부은 뒤, 버려진 마을을 가로질러 말과 발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사이 화성인은 열선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평온한 모습으로 포병들의 대포 위를 걸어갔다. 화성인은 대포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쳐 그들 앞을 통과했고, 그렇게 페인실 공원에 있던 대포들을 예기치 않게 마주하여 파괴해 버렸다.

하지만 세인트 조지 힐의 사내들은 지도력이 더 뛰어났거나 혹은 기개가 더 강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소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에, 가장 가까이 있던 화성인에게는 전혀 발각되지 않은 듯했다. 사내들은 마치 사열이라도 받는 것처럼 신중하게 총을 겨누었고, 약 1,000야드 거리에서 사격을 가했다.

포탄이 그의 주변에서 사방으로 번쩍이며 터졌다. 그는 몇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다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군인들은 정신없이 서둘러 포를 재장전했다. 쓰러진 화성인이 길게 울부짖자, 즉시 남쪽 나무들 너머로 그 소리에 응답하듯 두 번째 거대한 형체가 번쩍이며 나타났다. 포탄 중 하나가 삼각대의 다리 하나를 박살 낸 모양이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은 땅에 쓰러진 화

성인을 모조리 빗나갔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두 동료도 열선을 포병 부대 쪽으로 겨누었다. 탄약이 폭발했고, 대포 주변의 소나무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미 언덕 능선을 넘어 달아나던 병사 중 겨우 한두 명만이 화를 면했다.

그 후 세 화성인은 서로 상의를 한 뒤 멈춰 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감시하던 경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이후 30분 동안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머물렀다고 한다. 쓰러졌던 화성인은 자신의 덮개 속에서 느릿느릿 기어 나왔다. 멀리서 본 그 작은 갈색 형체는 마치 식물을 쪼먹는 작은 병충해처럼 보여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지대를 수리하는 듯 보였다. 9시쯤 작업이 끝났는지, 곧 나무 위로 그의 덮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세 명의 파수꾼 곁으로 네 명의 화성인이 더 다가왔다. 그들은 저마다 두꺼운 검은색 원통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화성인들은 기존의 파수꾼 세 명에게도 똑같은 원통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명의 화성인은 세인트 조지 언덕과 웨이브릿지, 그리고 리플리 남서쪽에 있는 샌드 마을을 잇는 곡선 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눈앞의 언덕 너머에서 수십 발의 로켓이 솟구쳐 올랐다. 이 로켓들은 디턴과 에서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포병 부대에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똑같이 관 모양의 무기로 무장한 전투 기계 네 대가 강을 건너왔다. 할리포드에서 북쪽으로 뻗은 길을 따라 우리 부목사와 내가 지치고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서둘러 가던

중,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검게 실루엣을 드러낸 전투 기계 두 대가 우리 눈에 들어왔다. 들판을 뒤덮은 우윳빛 안개가 기계 높이의 3분의 1까지 차올라 있었기에, 우리 눈에는 마치 전투 기계들이 구름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광경을 본 부목사는 목구멍에서 가냘픈 비명을 내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성인으로부터 도망쳐 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길을 벗어나 이슬 맺힌 췌기풀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옆의 넓은 도랑 속으로 몸을 숨겼다. 뒤를 돌아보던 부목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는 내 쪽으로 달려와 합류했다.

둘은 걸음을 멈췄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던 기계는 선버리를 향해 서 있었고, 멀리 떨어진 기계는 저녁별이 떠 있는 쪽, 즉 스테인스 방향 저 멀리 흐릿한 회색 형체로 보였다.

가끔씩 들려오던 화성인들의 울부짖음이 멎었다. 화성인들은 자신들의 원통을 둘러싼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진영에 자리를 잡고는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그 초승달 모양의 양 끝단 사이 거리는 12마일에 달했다. 화약이 발명된 이래, 이토록 정적에 휩싸인 전투의 시작은 없었다. 우리에게도, 혹은 리플리 근처에 있던 관찰자에게도 그 광경은 똑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화성인들은 마치 어두운 밤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밤을 밝히는 것이라고는 가느다란 달빛과 별빛, 낮의 잔광, 그리고 세인트 조지 언덕과 페인실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줄기뿐이었다.

하지만 그 초승달 모양의 대열을 마주한 채 사방에—스테인스, 훈슬로, 디튼, 에서, 오컴, 강 남쪽의 언덕과 숲 뒤편, 그리고 강 북쪽의 평평한 초원 지대에 이르기까지, 나무 군락이나 마을 집들이 몸을 숨기기에 충분한 곳이라면 어디든—대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신호용 로켓이 터지며 밤하늘에 불꽃을 뿌린 뒤 사라지자, 대기 중이던 모든 포병대의 사기는 팽팽한 긴장된 기대감으로 고조되었다. 화성인이 사선 안으로 발을 들이기만 하면, 저 움직임 없는 병사들의 검은 형체들과 초저녁 어둠 속에서 검게 번뜩이던 대포들은 즉각 천둥 같은 포성과 함께 격렬한 전투의 불을 뿜을 터였다.

수천 명의 경계하는 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생각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단 하나, 바로 수수께끼였다. 화성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인류가 조직을 갖추고 규율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쏘아 올리는 불꽃과 포탄의 갑작스러운 타격,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꾸준히 포위해 들어가는 우리의 움직임을, 마치 소란스러운 벌집을 공격할 때 벌들이 보여주는 격렬한 일치단결로 해석하고 있을까?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다고 꿈꾸고 있는 것일까? (당시에는 화성인들에게 어떤 먹이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저 거대한 파수꾼 같은 형상을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뒤엉켜 요동쳤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런던을 향해 도사리고 있을, 거대하고 미지의 숨겨진 힘들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인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았을까? 훈슬로의 화약 공장들이 텅이 될 준비를 마쳤을까? 런던 시민들은 자신들의 거

대한 주거지를 모스크바처럼 완전히 불태워버릴 용기와 결단력을 갖추고 있을까?

우리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우리는 울타리 뒤에 몸을 웅크린 채 밖을 살폈다. 그때 멀리서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곧이어 더 가까운 곳에서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렸고, 연이어 또 다른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우리 곁에 있던 화성인이 자신의 관을 높이 치켜들더니 대포를 쏘듯 발사했다. 땅이 들썩일 정도로 육중한 폭음이 터져 나왔다. 스테인스 방향에 있던 화성인이 그에 응답했다. 섬광도, 연기도 없었다. 그저 묵직한 폭발음만이 울려 퍼졌을 뿐이다.

연이어 울려 퍼지는 묵직한 포성 소리에 흥분한 나머지, 나는 내 몸의 안전이나 데인 손의 통증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울타리 위로 기어 올라가 선버리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때 두 번째 포성이 뒤따랐고, 커다란 포탄 하나가 머리 위를 가로질러 혼술로 방향으로 날아갔다. 나는 포탄이 지나간 자리에 연기나 불꽃, 혹은 그 파괴의 흔적이라도 남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깊고 푸른 하늘과 그 속에 홀로 떠 있는 별 하나뿐이었고, 그 아래로는 흰 안개가 낮고 넓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충돌하는 소리도, 뒤따르는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정적의 1분은 어느새 3분으로 길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부목사가 내 곁에 일어서며 물었다.

“하늘만이 아시겠지!” 내가 말했다.

박쥐 한 마리가 번쩍이며 지나가더니 사라졌다. 멀리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다 이내 잦아들었다. 나는 다시 화성인을 바라보았다. 화성인은 이제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빠르게, 구르듯 움직이고 있었다.

언제 어디선가 숨겨진 포대에서 불길이 그를 향해 쏟아질 것만 같아 매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저녁의 고요함은 깨지지 않았다. 화성인의 형체는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안개와 깊어가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본능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올랐다. 선버리 쪽을 바라보니 마치 원뿔 모양의 언덕이 갑자기 솟아오른 것처럼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그 형체가 멀리 떨어진 풍경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어 강 건너 월턴 너머로도 그와 비슷한 봉우리가 하나 더 보였다. 우리가 응시하는 사이, 언덕처럼 보이는 이 형체들은 점점 낮고 넓게 퍼져 나갔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저 멀리 구름처럼 검은 언덕들이 세 번째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갑자기 아주 고요해졌다. 멀리 남동쪽에서, 그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듯 화성인들이 서로를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멀리서 대포가 터지는 둔중한 소리가 공기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지만 지구의 포병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나중에 나는 황혼 속에 모여든 그 불길한 언덕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앞서 묘사한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대열 속에서 있던 화성인들은 저마다 총처럼 생긴

관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언덕이나 숲, 집들이 모여 있는 곳, 혹은 대포를 숨기기 적당한 그 어떤 은폐물이라도 향해 거대한 통을 발사했다. 어떤 화성인은 이를 단 한 번만 쏘고, 어떤 이는 우리가 목격했던 경우처럼 두 번을 쏘다. 리플리에서 목격된 화성인은 당시 무려 다섯 개나 발사했다고 전해진다.

이 통들은 땅에 부딪히는 순간 폭발하는 대신 산산조각이 났다. 그 러고는 즉시 엄청난 양의 무겁고 검은 증기를 뿜어냈다. 증기는 거대한 흑색 적운처럼 소용돌이치며 위로 치솟았고, 마치 가스로 이루어진 언덕처럼 주변 지역으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퍼져 나갔다. 그 증기에 닿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톱 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렀다.

이 증기는 무거웠다. 그 어떤 질은 연기보다도 무거웠다. 충격과 함께 요동치며 처음 솟구쳐 올랐던 증기는, 이내 공기 중으로 가라앉으며 기체라기보다는 액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면을 따라 흘러내렸다. 증기는 언덕을 버려둔 채 계곡과 도랑, 그리고 물길을 따라 흘러 들어갔다. 마치 화산의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모습과도 같았다. 증기가 물과 맞닿는 곳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수면은 즉시 가루 같은 거품으로 뒤덮였고, 이 거품은 천천히 가라앉으며 새로운 거품이 생겨날 자리를 내주었다. 이 거품은 전혀 녹지 않았다. 가스가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목격하면서도, 정작 그 가스가 빠져나간 물은 아무런 해로움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이 증기는 일반적인 기체처럼 퍼져 나가지 않았다. 증기는 덩어리진 채로 지표면의 경사를 따라 느릿느릿 흘러내렸고, 바람이 불어도 좀처럼 밀려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공기 중의 안개나 습기와 결합하여 먼지 형태로 땅에 내려앉았다. 청색 스펙트럼에서 네 개의 선을 형성하는 미지의 원소가 관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물질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

검은 연기가 흩어지며 일으킨 격렬한 소동이 일단 가라앉자, 연기는 지면에 아주 낮게 깔렸다. 연기가 비처럼 내리기 전부터 이미 지표면에 밀착되어 있었기에, 지상에서 50피트 정도 높이만 올라가도 그 독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높은 집의 지붕이나 위층, 혹은 커다란 나무 위라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날 밤 스트리트 코밤과 디튼에서 실제로 증명된 사실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곳, 즉 스트리트 코밤에서 탈출한 남자는 그곳을 휘감아 흐르는 기묘한 흐름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그리고 교회 첨탑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마을의 집들이 잉크 같은 암흑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솟아오르는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반 동안 머물렀다. 지칠 대로 지치고 굶주린 채 햇볕에 그을린 상태였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대지 위로,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배경 삼아 벨벳처럼 검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 검은 공간 사이로 붉은 지붕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고, 나중에는 검은 베일을 쓴 듯한 관목과 대문, 헛간, 부속 건물, 그리고 담장들이 여기저기 햇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곳은 스트리트 코밤이었고, 검은 연기는 스스로 땅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대개 화성인들은 연기가 목적을 다하면,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증기를 뿜어내어 공기를 다시 깨끗이 정화하곤 했다.

우리는 다시 어퍼 할리포드로 돌아와 버려진 집 창가에서 별빛 아래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화성인들은 우리 근처의 증기 독을 두고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리치먼드 언덕과 킹스턴 언덕을 비추는 탐조등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11시쯤 되자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그곳에 배치된 거대한 공성포 소리가 들려왔다. 포격은 15분 동안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포탄은 햄프턴과 디튼 부근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화성인들을 향해 무작위로 날아갔다. 그러다 이내 창백한 전기 불빛이 사라지더니, 그 자리를 밝고 붉은 빛이 채웠다.

그 후 네 번째 원통이 떨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초록색 유성처럼 버시 파크에 떨어졌다. 리치먼드와 킹스턴 언덕 능선의 포대가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기 전, 멀리 남서쪽에서 간헐적인 포격 소리가 들려왔다. 내 생각에 그것은 검은 증기가 포병들을 덮치기 전, 그들이 무작정 쏘아댄 포성인 듯했다.

화성인들은 마치 말벌집을 연기로 몰아내듯 아주 체계적인 방식으로, 런던 방향의 교외 지역에 이 기묘하고 숨 막히는 증기를 퍼뜨렸다. 초승달 대형의 양 끝이 천천히 벌어지더니, 마침내 한웰에서 쿼, 말든에 이르는 긴 선을 형성했다. 파괴적인 관들은 밤새도록 전진했다. 세인트 조지 언덕에 있던 화성인이 격추된 이후, 화성인들은 포병들에게

단 한 번의 반격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포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담긴 새로운 통이 발사되었고, 대포가 노출된 곳에는 열선이 쏟아졌다.

그날 밤 화성인들은 열선을 아껴 썼다. 열선을 만드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라 전체를 파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보에 저항하는 세력을 짓누르고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다. 후자의 목적만큼은 확실히 달성했다. 일요일 밤을 기점으로 그들의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무리도 화성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다. 저항이라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이다. 템스강을 따라 속사포를 몰고 왔던 어뢰정이나 구축함의 승무원들조차 저항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배를 돌려 물러났다. 그날 밤 이후 인류가 감행한 유일한 공격 작전은 지뢰를 매설하거나 함정을 파는 일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매우 광기 어린 모습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었다.

황혼 속에서 잔뜩 긴장한 채 에서 방향을 향해 대기하던 포병 부대들의 운명은,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상상해 보아야 한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그 광경은 이랬을 것이다. 장교들은 경계하며 주시하고 포수들은 전투 준비를 마친 채, 질서 정연하게 대기하며 다가올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탄약은 손닿는 곳에 쌓여 있었고, 마차와 말을 끄는 포병 부대들도 자리를 지켰다. 허가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서 있던 민간인 구경꾼 무리와 저녁의 정적, 그리고 웨이브리지에서 실려 온 화상 환자와 부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구급차와 병원 텐트들까지 말이다. 그러다 화성인이 발사한 포탄

이 둔탁한 울림을 내며 날아왔다. 투박한 발사체는 나무와 집들 위를 휘감아 돌더니, 인근 들판 한복판에 처박히며 굉음을 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갑작스럽게 시선이 쏠리며, 머리부터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검은 어둠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치고 팽창하며 하늘 높이 솟구치는 모습을 말이다. 그 어둠은 황혼을 손에 잡힐 듯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치 증기로 이루어진 기이하고도 끔찍한 적이 희생자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그 근처에서 사람과 말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달아나다 머리부터 고꾸라졌다. 공포에 질린 외침이 들려왔고, 총들은 갑자기 버려졌다. 사람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숨이 막혀 몸부림쳤다. 불투명한 연기 원뿔은 빠르게 넓게 퍼져 나갔다. 그리고 뒤이어 밤과 소멸이 찾아왔다. 죽은 자들을 숨긴 채, 침투할 수 없는 증기의 거대한 덩어리만이 고요하게 남았을 뿐이다.

동이 트기 전, 검은 연기가 리치먼드의 거리마다 흘러들었다. 붕괴해 가는 정부 조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런던 시민들에게 서둘러 피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었다.

BOOK ONE · 제XVI장

런던으로부터의 탈출

월요일의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 도시를 휩쓴 공포의 거대한 파도를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망치려는 사람들의 행렬은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다. 사람들은 거품 섞인 소용돌이가 되어 철도역 주변을 휘몰아쳤고, 템스강의 선박들 사이에서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뒤엉켰다. 그리고는 가능한 모든 통로를 따라 북쪽과 동쪽을 향해 무섭게 밀려 나갔다. 오전 10시가 되자 경찰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오에 이르러서는 철도 운영 체계마저 통제력을 잃었다. 조직의 형태와 효율성은 사라졌으며, 사회라는 유기체는 마치 녹아내리듯 급격히 붕괴하며 형체를 잃어갔다.

일요일 자정 무렵, 템스강 북쪽의 모든 철도 노선과 캐넌 스트리트 역의 사우스 이스턴 철도 회사 측에 경보가 전달되었고, 열차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벽 두 시가 되었음에도 승객들은 객차 안에 서 서 있을 공간을 확보하려고 처절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세 시가 되

자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서 수백 야드 떨어진 비숍스게이트 거리에서 조차 사람들이 깃뺏히고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다. 권총 소리가 울려 퍼졌고, 칼부림까지 일어났다. 교통 정리를 위해 파견된 경찰관들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분노마저 치밀어 올라, 정작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사와 화부들이 런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피난하려는 사람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사람들은 점점 더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역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밀려나갔다. 정오 무렵에는 반스에서 화성인이 목격되었다. 느릿하게 가라앉는 검은 증기 구름이 템스강을 따라 흐르며 램베스의 평원을 가로질렀고, 이 구름은 느릿느릿 전진하며 다리를 통한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다. 또 다른 검은 구름은 일링을 덮쳤다. 그 구름은 캐슬 힐에 고립된 생존자들을 에워쌌다. 그들은 살아 있었으나,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찰크 팜 역에서 노스웨스턴행 열차에 올라타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화물 적재용 열차들이 화물역에서 출발할 때,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사이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건장한 사내 열댓명이 달려들어, 군중이 기관사를 용광로 쪽으로 밀어붙여 압사시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했다. 내 형은 겨우 찰크 팜 도로로 빠져나왔다. 형은 뒤엉켜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달아났고, 운 좋게도 약탈당하던 자전거 가게에서 가장 먼저 물건을 챙길 수 있었다. 형이 가져온 자전거는 창문을 깨고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났지만, 형은 손목에 베인 상처 외에는 별다른 부상 없이 곧장

그곳을 벗어났다. 하버스톡 언덕의 가파른 경사로는 뒤집힌 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지나갈 수 없었기에, 형은 벨사이즈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광기에서 벗어나 에지웨어 로드를 돌아갔다. 아침 7시쯤 에지웨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굶주리고 지쳐 있었으나 인파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도로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과 기수들, 그리고 자동차 두 대가 그를 지나쳐 갔다. 에지웨어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 바퀴 테가 부서지는 바람에 더는 탈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전거를 길가에 버려두고 마을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걸었다. 마을 중심가에는 반쯤 문을 연 상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인도와 문턱, 창가에 뺨뺨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막 시작된 이 기이한 피난 행렬을 경악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어느 여관에서 겨우 음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 행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한동안 에지웨어에 머물렀다. 피란민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내 형처럼 많은 이들이 그곳에 머물며 상황을 살피는 듯했다. 화성인 침략자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당시 도로는 사람들로 붐볐으나, 아직까지는 통행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시각 피난민 대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곧 자동차와 한섬 이륜마차, 그리고 사륜마차가 뒤섞여 급히 지나가기 시작했

다. 세인트 올번스로 이어지는 길 위로는 먼지가 짙은 구름처럼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내 형이 마침내 동쪽으로 뻗은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선 것은, 아마도 친구들이 살고 있는 첼름스퍼드로 가보겠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은 계단식 울타리를 만났고, 이를 넘어 북동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형은 몇 채의 농가와 이름 모를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다. 하이 바넷 방향으로 이어지는 풀숲 길에 들어서서 동행하게 될 두 여성을 마주치기 전까지, 형은 피난민을 거의 보지 못했다. 형은 마침 딱 적절한 때에 그들을 발견하여 구해낼 수 있었다.

그는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모퉁이를 돌았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여인들이 타고 있던 작은 포니 마차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린 포니의 머리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흰 옷을 입은 키 작은 여인은 그저 비명만 내지르고 있었고, 검고 날씬한 체구의 다른 여인은 자유로운 손에 쥔 채찍으로 자신의 팔을 붙잡은 남자를 내리치고 있었다.

내 형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곳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싸움을 멈추고 형을 향해 몸을 돌렸다. 형은 상대의 표정을 보고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복싱 전문가였던 형은 곧장 상대에게 달려들어 그를 쳐눕혔고, 남자는 마차 바퀴 위로 쓰러졌다.

권투 선수처럼 품격 있게 싸울 여유 따위는 없었다. 내 형은 발로 차서 그를 단숨에 제압한 뒤, 가냘픈 여인의 팔을 잡아끌던 남자의 깃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채찍이 형의 얼굴을 매섭게 후려쳤다. 뒤이어 세 번째 습격자가 형의 미간을 강타했다. 그 사이 형이 붙잡고 있던 남자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고, 그가 달려왔던 길을 따라 골목 너머로 달아나 버렸다.

그는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말의 머리를 붙잡고 있던 남자를 마주했다. 그사이 마차는 좌우로 흔들리며 길 아래로 멀어져 갔고, 마차 앞의 여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건장하고 거친 체구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는 남자의 얼굴을 한 차례 내리쳐 저지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몸을 돌려 마차를 뒤쫓아 길 아래로 달아났다. 건장한 남자가 바로 뒤까지 바짝 추격해 왔고, 뒤를 돌아본 도망자는 멀찍이서 그들을 뒤따랐다.

그는 갑자기 발을 헛디터 넘어졌다. 뒤쫓던 자도 머리부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가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눈앞에는 다시 두 명의 적이 버티고 있었다. 만약 그 가냘픈 여인이 아주 용기 있게 마차를 세우고 그를 도우러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들을 상대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줄곧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녀와 동행인이 습격을 받았을 당시에는 좌석 밑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약 6야드 거리에서 총을 쏘자, 총알은 하마터면 내 형을 맞힐 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겁이 더 많은 강도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의 동료도 겁쟁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세 번째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길 아래쪽에서, 시야에 보이는 채로 멈춰 섰다.

“이걸 받으세요!” 날씬한 여인이 외치며 내 형에게 자신의 리볼버를 건네주었다.

“가서 마차에나 앉아 있어.” 내 형이 찢어진 입술에서 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겁에 질린 조랑말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강도들도 분명히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었다. 형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물러나고 있었다.

“괜찮다면 여기 앉을게요.” 내 형이 말했다. 그러고는 비어 있는 앞좌석에 올라탔다. 여인은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고삐를 넘겨줘요.” 그녀가 말하며 채찍으로 조그만 말의 옆구리를 후려했다. 곧이어 길이 굽어지는 지점에 가로막혀, 세 남자의 모습은 내 형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내 형은 입술이 터지고 턱이 멎든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쥐고 형은 이 두 여성을 태우고 낯선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이랬다. 두 여인은 스탠모어에 사는 한 외과 의사의 아내와 여동생이었다. 그 의사는 피너에서 있었던 위험한 수술을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동 중에 어느 기차역에서 화성인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여인들을 깨웠다. 하녀는 이틀 전에 이미 그들을 떠난 상태였다. 그는 약간의 비상식량을 챙기고, 내 형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의자 밑에 리볼버를 챙겨 두었다. 그러고는 여인들에게 에지웨어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라고 일러두었다. 그는 이웃들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잠시 뒤쳐져 머물렀다. 그는 새벽 4시 반쯤에 여인들을 따라잡겠다고 말했으나,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도록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지웨어는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여인들이 멈춰 설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이 좁은 옆길로 들어온 것이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뉴 바넷 근처에서 다시 멈춰 섰을 때, 그들은 내 형에게 그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려주었다. 형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될 때까지, 혹은 행방불명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형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은 생소한 무기인 권총을 아주 잘 다루는 전문가라고 장담했다.

그들은 길가에 임시 캠프를 차렸다. 조그만 말은 울타리에서 풀을 뜯으며 만족스러워했다. 형은 자신이 런던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화성인과 그들의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올랐고, 시간이 흐르자 대화는 잦아들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길을 따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몇몇 있었고, 형은 그들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소식을 모았

다. 사람들의 답변이 불완전할수록, 인류에게 닥친 거대한 재앙에 대한 형의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도 더욱 간절해졌다. 형은 일행에게 계속해서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요.” 날씬한 여인이 말하며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이 내 형의 눈과 마주치자, 망설임은 끝이 났다.

“나도 마찬가지야.” 형이 말했다.

그녀는 5파운드 지폐 외에도 금화로 30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 돈이면 세인트 올번스나 뉴 바넷에서 기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런던 사람들이 기차에 몰려드는 기세가 워낙 맹렬했기에, 내 형은 그 방법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형은 에섹스 지역을 가로질러 하리치로 간 뒤, 아예 나라를 완전히 탈출하자는 자기만의 계획을 꺼내 놓았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의 이름은 엘핀스톤 부인이었다. 그녀는 어떤 설득도 듣지 않은 채 계속해서 "조지"를 불러댔다. 반면 그녀의 울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했고, 결국 내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노스 로드를 건너기로 하고 바넷 방향으로 향했다. 형은 조그만 말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직접 고삐를 잡고 앞장섰다. 해가 하늘로 떠오르자 날씨가 무척 더워졌다. 발밑의 두껍고 하얀 모래는 뜨겁게 달아올라 눈을 멀게 할 정도였기에, 그들은 아주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울타리들은 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을

떠었다. 바넷을 향해 나아갈수록,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웅성 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과 마주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알아듣기 힘든 질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은 지치고 초췌했으며, 때가 묻어 지저분했다. 예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땅만 응시하며 그들 곁을 걸어서 지나갔다. 그의 목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자, 남자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의 무언가를 내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격렬한 분노가 한차례 지나가자,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길을 떠났다.

내 형의 일행이 바넷 남쪽의 교차로를 향해 나아가던 중, 왼쪽 들판 너머에서 한 여인이 길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여인은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다른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다. 이어 한 남자가 지나갔는데, 그는 때 묻은 검은 옷차림에 한 손에는 굵은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다음 길 모퉁이를 돌아, 대로와 만나는 지점에 늘어선 별장들 사이로 작은 수레 한 대가 나타났다. 땀을 흘리는 검은 조랑말이 수레를 끌고 있었고, 먼지 때문에 회색빛이 된 중절모를 쓴 창백한 안색의 청년이 수레를 몰고 있었다. 수레 안에는 이스트엔드 공장에서 일하는 세 명의 소녀와 어린아이 두 명 정도가 북적이며 타고 있었다.

“이 길로 가면 에지웨어까지 가나요?” 마부가 물었다. 눈은 뒤집힐 듯 부릅뜨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상태였다. 내 형이 왼쪽으로 돌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해주자, 마부는 고맙다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곧장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았다.

내 형은 눈앞의 집들 사이로 창백한 회색 연기 혹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연기는 빌라들의 뒷마당 사이로 보이는 도로 너머, 테라스 주택들의 하얀 외벽을 가리고 있었다. 그때 엘핀스톤 부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뜨겁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눈앞의 집들 위로 붉은 화염의 혀들이 불쑥불쑥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소란스럽던 소음은 이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인 무질서한 외침과 수많은 바퀴가 구르는 소리, 마차가 빼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말발굽이 땅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로 변해갔다. 길은 교차로에서 채 5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급격히 굽어졌다.

“세상에나!” 엘핀스톤 부인이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으려는 건가요?”

내 형이 발걸음을 멈췄다.

주요 도로는 북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거센 급류처럼 북상했다. 태양 빛에 하얗게 빛나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면에서 20피트 이내의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 먼지 구름은 뻥뻥이 몰려드는 말과 도보로 이동하는 남녀의 분주한 발길, 그리고 온갖 종류의 탈것 바퀴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피어올랐다.

“길을 비켜라!”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내 형에게 들려왔다. “길을 비켜!”

오솔길과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불길 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군중은 불길처럼 거칠게 함성을 내질렀고, 자욱한 먼지는 뜨겁고 매캐했다. 실제로 도로 위쪽에서는 빌라 한 채가 불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덩어리째 도로를 가로질러 훑날리며 혼란을 더했다.

두 남자가 그들 곁을 지나갔다. 뒤이어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 울고 있는 지저분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다. 겁에 질려 비참한 모습의 리트리버 한 마리가 혀를 길게 늘어뜨린 채 그들 주위를 의심스럽게 맴돌다가, 내 형이 위협하자 달아나 버렸다.

오른편 주택들 사이로 보이는 런던 방향의 도로는, 양옆의 별장들 사이에 갇힌 채 더럽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로 가득했다. 모퉁이를 향해 달려가다 급히 지나쳐 멀어지는 사람들의 검은 머리칼과 복색이는 형체들은, 가까워질 때면 그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 결국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어서 가! 어서 가라고!” 목소리들이 외쳤다. “길을 비켜! 길을 비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등을 짚어 지탱하고 있었다. 내 형은 조그만 말의 머리 쪽에 서 있었다. 형은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에지웨어는 혼란에 휩싸였고, 초크 팜은 소란스러운 소동이 일어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곳은 인구 전체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거대한 무리의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 무리는 딱히 어떤 특정한 형상을 띠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퉁이를 지나 쏟아져 나왔고, 골목에 모여 있는 무리를 등진 채 멀어져 갔다. 길 가장자리에는 바퀴에 치일까 두려워하며 걷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사람들은 도랑에 발을 헛디뎈 비틀거렸고, 서로 부딪히며 갈팡질팡 움직였다.

수레와 마차들이 뱅뱅하게 뒤편에 길을 메웠다. 그 사이로 더 빠르고 성미 급한 탈것들이 기회를 틈타 간간이 앞으로 튀어 나갔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튕겨 나가 저택의 울타리와 대문 쪽으로 흩어졌다.

“계속 밀어붙여!” 누군가 외쳤다. “계속 밀어붙여! 그들이 오고 있다!”

수레 한 대에는 구세군 제복을 입은 눈먼 남자가 타고 있었다. 그는 구부러진 손가락을 휘저으며 "영원! 영원!"이라고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음에도 매우 커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내 동생의 귀에 들릴 정도였다. 수레에 가득 찬 사람들 중 일부는 멍하게 말들을 채찍질하며 다른 마부들과 다투었고, 일부는 비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또 어떤 이들

은 갈증에 손등을 감아대거나 수레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말들은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수많은 인력거와 마차, 상점 수레와 짐마차가 뒤섞여 있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우편 수레와 '세인트 판크라스 교구'라고 적힌 도로 청소용 수레도 보였고, 거친 부랑자들을 가득 태운 거대한 나무 화물 마차도 지나갔다. 맥주 운반용 수레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데, 가까운 쪽 바퀴 두 개에는 신선한 피가 튀어 있었다.

“길을 비켜라!” 목소리들이 외쳤다. “길을 비켜라!”

“영원! 영원히!” 길을 따라 그 외침이 메아리쳤다.

슬프고 초췌한 모습의 여인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옷차림은 정갈했으나, 울며 비틀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느라 그 고운 옷들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지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이들 곁에는 남성들도 함께 움직였는데,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했으나 때로는 험악하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로 빛바랜 검은 누더기를 걸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지친 부랑자들도 섞여 있었다. 억척스러운 노동자들이 길을 헤치며 나아갔고, 불쌍하고 단정치 못한 차림의 남성들은 서기나 점원 같은 옷을 입은 채 발작하듯 몸을 떨며 나아갔다. 내 형은 부상당한 군인도 보았고, 철도 역무원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았으며, 겉옷 하나를 걸친 채 잠옷 차림으로 떠도는 비참한 모습의 사람도 보았다고 했다.

구성원은 제각각이었으나, 그 무리가 공통으로 지닌 몇 가지 모습이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이 서려 있었고,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길 위에서 소란이 일거나 마차 한 칸을 차지하려는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무리 전체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너무 겁에 질려 무릎이 꺾일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조차, 그 순간만큼은 다시 움직일 힘을 얻었다.

뜨거운 열기와 먼지는 이미 이 군중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피부는 메말랐고, 입술은 검게 갈라져 있었다. 모두가 갈증과 피로에 시달렸으며 발은 통통 부어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울음소리 사이로 말다툼과 비난, 그리고 지친 신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대부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다. 그 모든 소음 사이로 하나의 구절이 반복되어 흘러나왔다.

“비켜! 비켜! 화성인이 오고 있다!”

그 인파의 물결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좁은 입구로 이어진 그 길은 큰길과 비스듬히 맞닿아 있었는데, 마치 런던 방향에서 이어지는 길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들의 흐름은 소용돌이치듯 그 길 입구로 밀려 들어갔다. 약한 자들은 인파에 밀려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나, 대부분은 잠시 숨을 고를 뿐 곧 다시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니, 두 친구가 몸을 굽혀 살피고 있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피 묻은 형짚을 다리에 감은 채 맨다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회색빛 군인 스타일의 콧수염을 기르고 때가 찌든 검은색 프록코트를 입은 작은 노인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마차 옆에 앉아 장화를 벗었다. 양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노인은 신발 속에서 조약돌 하나를 털어내더니 다시 절뚝거리며 길을 떠났다. 뒤이어 여덟아홉 살 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서 울며 달려오더니, 내 형 바로 옆 울타리 밑으로 몸을 던졌다.

“더는 못 가! 더는 못 가겠어!”

내 형은 경악에 빠져 멍하니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달래며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그녀를 엘핀스톤 양에게 데려갔다. 형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는 겁에 질린 듯이 완전히 몸을 굳혔다.

“엘렌!” 군중 속의 한 여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엘렌!”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내 형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 나가며 “엄마!”라고 외쳤다.

“그들이 오고 있소!” 말을 타고 길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외쳤다.

“비켜요, 거기!” 마부 하나가 마부석 위로 높이 우뚝 솟은 채 고함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내 형은 달힌 마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달려오는 말을 피하려 서로 밀치며 뒤로 물러났다. 내 형은 포니와 마차를 덩불 쪽으로 밀어 넣었고, 그사이 마부는 말을 몰아 지나가더니 길 모퉁이에서 멈춰 섰다. 마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형

태였으나, 마구에는 말 한 마리만 매여 있었다. 형은 자욱한 먼지 사이로 두 남자가 흰 들것에 실린 무언가를 들어 올려, 쥐똥나무 산울타리 아래 잔디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사내 중 한 명이 내 형에게 달려왔다.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개릭 경께서 숨이 아주 가빠지셨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르다고 하십니다.”

“개릭 경 말씀이야?” 형이 물었다. “대법원장님 말이지?”

“물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어쩌면 집들 중 몇 곳에는 수도꼭지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 내 형이 말했다. “우리는 물이 없어. 하지만 가족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구나.”

남자는 모퉁이 저택의 정문을 향해 인파를 밀치며 나아갔다.

“어서 가요!” 사람들이 그를 밀치며 소리쳤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어서 가라고요!”

그때 내 형의 시선이 한 남자의 움직임에 쏠렸다. 수염이 덩수룩하고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작은 핸드백 하나를 킁킁대며 들고 있었다. 형의 눈길이 닿는 순간 핸드백이 터져 버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금화 더미는 바닥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금화들은 사람과 말의 발길질 사이를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남자는 걸

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 금화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때 마차가 남자의 어깨를 들이받았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하자, 수레바퀴가 그의 몸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지나갔다.

“길을 비켜라!” 주변의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길을 비켜!”

마차가 지나가자마자 그는 양손을 펼쳐 동전 더미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동전을 한 움큼씩 움켜쥐어 주머니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때 말 한 마리가 그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는 몸을 반쯤 일으키려 했으나, 다음 순간 말발굽 아래 깔리고 말았다.

“멈춰!” 내 형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형은 앞을 가로막던 여성을 밀쳐내고는 말의 재갈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가 미쳐 손을 쓰기도 전이었다. 바퀴 아래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자욱한 먼지 사이로 바퀴 테두리가 불쌍한 사내의 등을 짓누르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레를 몰던 마부는 수레 뒤편으로 달려간 내 형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외침 때문에 형은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다. 사내는 흠어진 돈더미 사이 먼지 바닥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다. 바퀴가 그의 등을 부러뜨린 탓에 하반신은 힘없이 늘어져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다. 형은 몸을 일으켜 다음 수레를 몰던 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때 검은 말을 탄 한 남자가 형을 도우러 달려왔다.

“저 사람을 길에서 치워!” 그가 소리쳤다. 형은 비어 있는 손으로 남자의 깃을 움켜쥐고는 그를 옆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돈을 놓지 않은 채 형을 매섭게 노려보며, 한 움큼의 금화를 왼손으로 형의 팔을 사정없이 두들겨 댔다. 뒤편에서 화난 목소리들이 고함을 질렀다. “어서 가! 어서 가라고!” “길을 비켜! 비키란 말이야!”

말을 탄 남자가 멈춰 세운 수레에 마차의 끌채가 들이박히며 굉음이 울렸다. 내 형이 고개를 들었을 때, 금화를 움켜쥐은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깃을 붙잡은 손목을 깨물었다. 충돌의 충격에 검은 말이 옆으로 비틀거렸고, 그 옆으로 짐말이 밀려들었다. 말발굽 하나가 형의 발을 간발의 차로 빗나갔다. 그는 쓰러진 남자를 붙잡았던 손을 놓고 뒤로 뛰어 물러났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가련한 자의 얼굴에서 분노가 공포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순식간에 남자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형은 뒤로 밀려나 골목 입구를 지나쳐 버렸다. 형은 거센 흐름 속에서 간신히 골목 입구로 되돌아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는 엘핀스톤 양이 두 눈을 가리는 것을 보았다.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곤 전혀 없는 아이답게, 굴러가는 바퀴 아래 검게 짓눌려 멈춰 있는 먼지투성이 무언가를 커진 눈으로 뚫히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가자!” 그가 소리치며 포니를 돌렸다. “이런 지옥 같은 곳을 어떻게 지나가겠어.” 그는 그렇게 내뱉었다. 그들은 왔던 길을 따라 백 야드쯤 되돌아갔고, 마침내 싸우는 군중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길의 굽이진 곳을 지날 때, 내 형은 쥐똥나무 산울타리 아래 도랑에 쓰러진 죽어가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죽음의 기

운이 서린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땀방울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두 여인은 마차에 몸을 웅크린 채 떨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굽이진 길 너머에서 형은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엘핀스톤 양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올케는 “조지”를 부를 기력조차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울기만 했다. 형은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일행이 물러나자마자 형은 이 인파를 가로질러 건너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인지 깨달았다. 형은 결연한 표정으로 엘핀스톤 양을 돌아보았다.

“그쪽으로 가야 해.” 그가 말하며 포니를 돌려세웠다.

그날 들어 이 소녀는 두 번째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 보였다. 인파의 물결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내 형은 사람들 사이로 몸을 던져 마차를 끄는 말을 붙잡아 막아섰고, 그사이 소녀는 그 말의 머리 앞을 가로질러 포니를 몰았다. 순간 짐수레가 바퀴와 맞물리면서 마차에서 긴 나뭇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은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 나갔다. 마부의 채찍 자국이 얼굴과 손에 붉게 난 채로, 형은 마차 안으로 기어 올라와 소녀에게서 고삐를 넘겨받았다.

“그가 우리를 너무 거세게 몰아붙이면, 뒤에 있는 남자를 향해 리볼버를 겨누시오.” 그는 그녀에게 권총을 건네며 말했다. “아니, 아니오! 그가 탄 말에게 겨누시오.”

그는 길 오른쪽으로 비껴갈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단 인파의 흐름에 휩쓸리자, 그는 의지를 잃고 먼지 날리는 도주 행렬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사람들은 거센 물결처럼 치핑 바넷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들이 길 반대편으로 겨우 건너갔을 때, 이미 마을 중심부에서 거의 1마일이나 지나간 뒤였다. 형언할 수 없는 소음과 혼란이 몰아쳤다. 다행히 마을 안팎으로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어느 정도 압박감이 분산되기는 했다.

그들은 해들리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나아갔다. 길 양옆은 물론이고, 더 멀리 떨어진 어느 지점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시냇가에 모여 물을 마시며, 서로 먼저 마시려고 다투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더 나아가 이스트 바넷 근처에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때, 그들은 그레이트 노던 철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두 대의 열차를 보았다. 열차들은 신호나 질서도 없이 뒤이어 느릿느릿 달리고 있었는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관차 뒤편의 석탄 더미 사이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릴 정도였다. 내 형은 당시 사람들의 광기 어린 공포 때문에 런던 중심부의 종착역들은 이미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아마 열차들은 런던 외곽에서부터 가득 찼을 것이다.

그들은 이 근처에서 오후 내내 머물렀다. 낮 동안 겪은 격렬한 사건들로 인해 세 사람 모두 이미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허기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밤공기는 차가웠고, 누구도 감히 잠을 청하지 못했다. 저녁 무렵에는 사람들이 그들이 머무는 곳 근처의 도로를 따라 다급히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정체를 모를 위험을 피해, 내 형이 왔던 방향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BOOK ONE · 제XVII장

“썬더 차일드”호

화성인이 오직 파괴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월요일에 런던 인구 전체를 몰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런던 인구가 인근 주(home counties)로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넷을 지나는 도로뿐만 아니라 에지웨어와 월섬 애비로 이어지는 길, 사우스엔드와 슈버리니스로 향하는 동쪽 도로, 그리고 템스강 남쪽의 딜과 브로드스타이스로 향하는 길을 따라 똑같이 광란의 도주가 이어졌다. 만약 그 6월의 어느 아침, 런던 상공의 타오르는 듯한 푸른 하늘 위 열기구에 매달려 내려다볼 수 있었다면, 뒤엀킨 미로 같은 거리에서 뺨어 나가는 북쪽과 동쪽의 모든 도로가 도망치는 사람들로 검게 점철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점 하나하나가 공포와 육체적 고통에 휩싸인 인간의 비명이었다. 나는 독자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느꼈던 그 검은 점들의 움직임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난 장에서 치핑 바넷을 지나는 도로에 관한 형의 기록을 상세히 서술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거대한 인파가 한꺼번에 움직이며 고통을 겪은 적은 없었다. 전설 속 고트족과

훈족의 군대나 아시아가 목격한 그 어떤 거대한 군대도 이 흐름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것은 질서 정연한 행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도 끔찍한 질주였다. 질서도 목적도 없이, 무기도 식량도 갖추지 못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앞을 가리지 않고 내달리는 아비규환이었다. 그것은 문명이 무너지고 인류가 학살당하기 시작한 서막이었다.

열기구 조종사는 발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거리의 망을 보았을 것이다. 집들과 교회, 광장과 초승달 모양의 도로, 그리고 이미 버려진 정원들이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남쪽 방향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얼룩져 있었다. 일링과 리치먼드, 워블던 상공에서 바라본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펜이 지도 위에 먹물을 뿌려놓은 것만 같았다. 검은 얼룩은 끊임없이, 쉽 없이 커지며 번져 나갔다. 얼룩은 여기저기로 가지를 치며 뻗어 나갔다. 어떤 곳에서는 언덕에 막혀 머무는 듯하다가도, 어떤 곳에서는 능선을 넘어 새로운 계곡으로 빠르게 쏟아져 내려왔다. 흡사 먹지 위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번져가는 모습과 똑같았다.

강 너머 남쪽으로 솟아오른 푸른 언덕 너머에서는, 번뜩이는 화성인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침착하고도 체계적으로 이 지역과 저 지역에 독성 구름을 퍼뜨렸다. 구름이 제 역할을 다하면 증기 분사기로 다시 뿌려가며, 화성인들은 정복한 땅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그들의 목적은 인류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고 모든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는 듯 보였다. 화성인들은 눈에 띄는 화약 저장고를 모두 폭파했고, 전신선

을 끊었으며, 곳곳의 철도를 파괴했다. 인류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작전 범위를 넓히는 데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으며, 그날 하루 동안 런던 중심부 너머로는 진격하지 않았다. 월요일 오전 내내 런던의 수많은 사람이 집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집 안에서 검은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정오 무렵까지 런던 풀(Pool of London)의 풍경은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제시하자, 온갖 종류의 증기선과 배들이 그 유혹에 이끌려 그곳에 모여들었다. 배를 향해 헤엄쳐 나간 이들 중 상당수는 보트 갈고리에 밀려나 익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후 1시경,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아치 사이로 검은 연기의 잔해가 열게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보자 런던 풀은 광기 어린 혼란과 싸움, 충돌의 현장으로 변했다. 한동안 수많은 배와 바지선이 타워 브리지의 북쪽 아치에 꽂 끼어 움직이지 못했다. 선원들과 부선 노동자들은 강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사람들은 심지어 다리 위에서 교각을 타고 아래로 기어 내려오기까지 했다.

한 시간 뒤, 시계탑 너머로 화성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강을 따라 내려왔을 때, 라임하우스 상공에는 부서진 잔해들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다섯 번째 원통이 떨어진 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다. 여섯 번째 별은 워블던에 떨어졌다. 들판에 세워둔 마차 안에서 여인들을 지키고 있던 내 형은, 언덕 너머 멀리서 번쩍이는 초록빛 섬광을 목격했다. 화요일,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던 소규모 일행은 인파로 북적이는 마을을 지나 콜체스터를 향해 나아갔다. 화성인

이 이미 런던 전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화성인들이 하이게이트에서 목격되었으며, 심지어 니즈던에서도 나타났다는 말까지 돌았다. 하지만 형의 눈에 화성인이 직접 포착된 것은 다음 날이 되어서였다.

그날, 흠어진 군중은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허기가 찾아오자 재산권 따위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다. 농부들은 무기를 손에 든 채 자신의 외양간과 곡물 창고, 그리고 익어가는 뿌리 작물들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내 형처럼 많은 이가 동쪽을 바라보았고, 어떤 절박한 이들은 식량을 구하려고 런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이들은 주로 북쪽 교외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검은 연기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정부 구성원의 절반 정도가 버밍엄에 모였으며, 미들랜드 전역에 설치할 자동 지뢰에 사용할 엄청난 양의 고성능 폭약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미들랜드 철도 회사가 첫날의 패닉으로 인한 열차 결행을 모두 수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철도는 다시 운행을 시작했으며, 홈 카운티 지역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세인트 올번스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열차를 운행 중이라고 했다. 치핑 웅가르에 붙은 게시판에는 북부 도시에 밀가루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인근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배급할 것이라는 공고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소식도 그가 세운 탈출 계획을 꺾지는 못했다. 세 사람은 하루 종일 동쪽으로 서둘러 이동했지만, 빵 배급에 관해서는 그 약속뿐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실, 그 약속 이후로 아무도 빵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날 밤, 일곱 번째 별이 프리로즈 힐 위로 떨어졌다. 엘핀스톤 양이 망을 보던 중에 별이 떨어졌다. 그녀는 내 형과 교대로 망을 보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수요일, 아직 익지 않은 밀밭에서 밤을 지낸 세 명의 도망자는 첼름스퍼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공공 보급 위원회'라 자칭하는 주민 무리가 나타나, 그들이 타고 온 조그만 말을 식량으로 빼앗아 갔다. 위원회는 그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다음 날이면 그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만 남겼다. 이곳에는 에핑에 화성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침략자 중 하나를 폭파하려다 실패하여 월섬 애비 화약 공장이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교회 종탑에 올라 화성인을 살피고 있었다. 내 형은 운 좋게도 음식을 기다리기보다 곧장 해안으로 향하는 쪽을 택했다. 세 사람 모두 몹시 허기진 상태였지만 말이다. 정오 무렵, 그들은 킬링엄을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마치 버려진 마을처럼 고요했다. 음식을 찾아 헤매는 몇몇 약탈자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킬링엄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바다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규모의 배들이 온갖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득 모여 있었다.

선원들이 더 이상 템스강을 거슬러 올라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에섹스 해안의 하리치와 월턴, 클랙턴을 거쳐 나중에는 파울니스와 슈버리까지 내려왔다. 선박들은 거대한 낮 모양의 곡선을 그리며 늘어서 있었고, 그 끝은 네이즈 방향으로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다. 해안 가까이에선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국적의 어선들이 수없이 몰려 있었다. 템스강에서 온 증기 보트와 요트, 전기 보트도 보였다. 그 너머에는 더 큰 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저분한 석탄 운반선과 깔끔한 상선, 가축 운반선, 여객선, 유조선, 대양 항로를 오가는 화물선, 심지어 낡고 하얀 수송선까지 있었다. 사우샘프턴과 함부르크에서 온 깨끗한 백색과 회색의 여객선들도 보였다. 내 형은 블랙워터강 건너 푸른 해안을 바라보며, 해변의 사람들과 흥정을 벌이는 배들이 뺄뺄하게 몰려 있는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식별할 수 있었다. 그 배들의 무리는 블랙워터강을 따라 말뚝 부근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철갑선 한 척이 떠 있었다. 배가 수면 아래로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어, 내 형의 눈에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침몰선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배는 바로 '썬더 차일드'호였다. 눈에 보이는 군함은 그 배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날 바다는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고요했다. 오른쪽 멀리 잔잔한 수면 너머를 보니, 검은 연기가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해협 함대의 다른 철갑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였다. 화성인이 정복 활동을 벌이는 동안, 함대는 템스강 하구를 가로질러 길게 늘어선 채 증기를 올리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었으나, 그 정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다가 눈앞에 나타나자 엘핀스톤 부인은 시누이의 안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영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식이었다. 가련하게도, 그녀는 프랑스인과 화성인이 매우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틀간의 여정 동안 그녀는 점점 더 히스테릭해졌고, 겁에 질렸으며, 우울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스탠모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스탠모어는 언제나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스탠모어로 돌아가면 조지를 만날 수 있을 터였다.

그들은 엄청난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그녀를 해변까지 끌어내릴 수 있었다. 그곳에서 곧 내 형은 템스강에서 온 외륜선에 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보트 한 척을 보내왔고, 세 명을 태워주는 대가로 36파운드를 받기로 협상을 마쳤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증기선은 오스텐드로 향하는 중이라고 했다.

내 형은 승선교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돌보던 두 사람과 함께 무사히 증기선에 올라탔다. 그때 시각은 2시쯤이었다. 배 안에는 음식이 있었으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앞쪽 좌석 중 하나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든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미 배에는 수십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배에 오르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선장은 오후 5시까지 블랙워터 인근 해상에서 머물며 승객을 더 태웠고, 좌석이 있는 갑판은 위험할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다. 만약 그 무렵 남쪽에서 포성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선장은 아마 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마치 그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바다 쪽을 향해 있던 철갑선이 작은 대포를 한 발 쏘

아 올리고는 일련의 깃발들을 게양했다. 선체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승객 중 일부는 그 포성이 슈버리니스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같은 시각, 멀리 남동쪽 바다에서는 검은 연기 구름 사이로 철갑선 세 척의 돛대와 상부 구조물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내 형의 관심은 곧 다시 남쪽에서 들려오는 먼 포성으로 향했다. 형은 저 멀리 회색 안개 속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작은 증기선은 이미 거대한 선박들의 초승달 모양 대열을 지나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에섹스 해안의 낮은 지평선이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잠겨갈 무렵, 멀리 파울니스 방향의 진흙투성이 해안을 따라 화성인이 나타났다. 아주 멀리서 작고 희미한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본 선교의 선장은 제때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목청껏 욕설을 내뿜었다. 선박의 패들조차 선장의 공포에 전염된 듯 요동쳤다.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난간이나 좌석에 달라붙어 저 멀리 보이는 형체를 응시했다. 그것은 내륙의 나무나 교회 첨탑보다도 높았으며, 마치 인간의 걸음걸이를 여유롭게 흉내 내듯 다가오고 있었다.

내 형이 목격한 첫 번째 화성인이었다. 형은 공포보다도 경악에 찬 눈으로 그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해안선이 멀어짐에 따라 화성인은 점점 더 깊은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선박들을 향해 느릿하고도 단호하게 다가왔다. 그때 크라우치 강 너머 멀리서 또 다른 화성인이 나타났다. 그 존재는 키 작은 나무들을 짓밟으며 성큼성큼 걸어

오고 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는 또 다른 화성인이 보였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듯한 번들거리는 갯벌을 헤치며 깊은 물속을 걸어오고 있었다. 화성인들은 마치 파울니스와 네이즈 사이에 밀집한 수많은 배의 탈출을 가로막으려는 듯, 모두 바다를 향해 위협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작은 외륜선은 엔진이 요동치도록 안간힘을 썼고, 외륜이 뒤로 거품을 뿜어냈지만, 그 불길한 진격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무서울 만큼 느리기만 했다.

형은 북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거대한 초승달 모양으로 늘어선 배들이 다가오는 공포에 질려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배들은 서로 뒤엉켜 지나갔고, 어떤 배는 옆면을 보이다가 갑자기 뒤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증기선들은 경적을 울려대며 엄청난 양의 증기를 뿜어냈고, 돛들은 펼쳐졌으며, 작은 보트들은 이리저리 급히 움직였다. 형은 이 광경과 왼쪽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바다 쪽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그때 그들이 탄 증기선이 급히 움직였다. 충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방향을 튼 탓에, 형은 서 있던 자리에서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환호성을 내질렀으나, 그 소리에 희미하게 응답하는 듯한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증기선이 크게 휘청거리는 바람에 형은 손을 짚으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우현을 바라보았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며 요동치는 바로 곁, 백 야드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거대한 철제 덩어리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쟁기 날처럼 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그 거대한 물체

가 지나갈 때마다 거대한 거품 파도가 증기선 쪽으로 솟구쳤다. 파도는 배의 패들을 속수무책으로 허공에 내던졌고, 이내 갑판을 수면 근처까지 집어삼킬 듯 끌어내렸다.

물보라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형의 눈이 잠시 가려졌다. 시야가 다시 확보되었을 때, 형은 괴물이 이미 지나쳐 육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무서운 형체 위로 거대한 철제 상부 구조물이 솟아 있었고, 두 개의 굴뚝에서는 불꽃을 머금은 연기가 실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선박들을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어뢰 충각함, '썬더 차일드'호였다.

내 형은 난간을 붙잡고 요동치는 갑판 위에서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달려드는 거대한 괴물을 넘어 다시 화성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형의 눈에 세 대의 기계가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화성인들의 기계는 바다 아주 먼 곳에 서 있었고, 삼각대 다리는 거의 다 잠겨 있었다. 그렇게 가라앉은 채 멀리 보이는 모습은, 증기선이 무력하게 파도를 헤치며 뒤따르는 그 거대한 철제 덩어리만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화성인들은 이 새로운 적을 경계하며 놀라워하는 듯했다. 어쩌면 그들의 지성으로는 저 거대한 배를 자신들과 비슷한 존재로 인식했는지 모른다. 썬더 차일드호는 포를 쏘지 않고 그저 전속력으로 적을 향해 돌진했다. 어쩌면 포를 쏘지 않았기에 그토록 적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화성인들은 이 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갈피를 잡

지 못하는 듯했다. 만약 포탄 한 발이라도 날아왔다면, 그들은 즉시 열선을 쏘아 배를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혔을 것이다.

썬더 차일드호는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불과 1분 만에 그 배는 증기선과 화성인들 사이의 어느 중간 지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멀어져 가는 에섹스 해안의 수평선을 배경으로, 그 검은 덩어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갑자기 맨 앞의 화성인이 관을 낮추더니, 철갑선에 검은 가스가 담긴 통을 발사했다. 가스는 철갑선의 좌현에 부딪혔고, 잉크 같은 줄기가 되어 바다 쪽으로 흩어지며 튕겨 나갔다. 검은 연기가 거대한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철갑선은 그 흐름을 피해 멀리 벗어났다. 물 위에 낮게 떠 있는 증기선 위에서 관찰하던 사람들은, 눈부신 햇살 때문에 그 광경이 마치 철갑선이 이미 화성인들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안으로 물러나는 화성인들의 수척한 형체가 물속에서 갈라지며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중 하나가 카메라처럼 생긴 열선 발생기를 들어 올렸다. 화성인이 발생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자, 그것이 닿은 물 위로 증기가 솟구쳐 올랐다. 열선은 마치 달궈진 인두가 종이를 뚫고 지나가듯 배의 철제 측면을 그대로 관통해 버린 것이 분명했다.

피어오르는 증기 사이로 불꽃이 번쩍하더니, 화성인이 비틀거리며 휘청거렸다. 곧이어 화성인은 쓰러졌고, 엄청난 양의 물과 증기가 공중으로 높이 솟구쳤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썬더 차일드호의 포가 연이

어 불을 뿜었다. 포탄 한 발이 증기선 근처의 물 위로 높게 튀어 올랐고, 북쪽으로 달아나는 다른 배들을 향해 튕겨 나가더니, 근처에 있던 작은 어선 한 척을 나뭇가지처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화성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함교의 선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비명을 질렀고, 증기선 선미에 몰려 있던 승객들도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이내 다시 한번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얀 물보라를 뚫고 길고 검은 형체가 무섭게 돌진해 나왔기 때문이다. 그 물체의 중간 부분에서는 불길이 치솟았고, 환기구와 굴뚝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조타 장치는 멀쩡한 듯했고 엔진도 돌아가고 있었다. 배는 두 번째 화성인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열선이 조준되었을 때, 배는 이미 화성인으로부터 100야드 거리 안까지 접근한 상태였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이 터져 나왔고, 배의 갑판과 굴뚝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폭발의 충격으로 화성인은 비틀거렸다. 잠시 후, 관성에 의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던 불타는 잔해들이 화성인을 들이받았다. 화성인은 마치 종이 인형처럼 구겨지며 쓰러졌다. 내 형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뒤이어 끓어오르는 증기가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다시 가려버렸다.

“둘이다!” 선장이 외쳤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증기선 끝에서 끝까지 광적인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바다로 나아가는 수많은 배와 보트의 인파가 처음에는 한두 명씩, 그다음에는 모두가 합세하여 그 환호에 응답했다.

증기가 수면 위에 한동안 머물며 세 번째 화성인과 해안선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동안 배는 전투 현장에서 멀어지며 바다를 향해 꾸준히 노를 저어 나갔다. 마침내 자욱했던 안개가 걷혔을 때, 떠다니는 검은 증기 층이 시야를 가로막는 바람에 썬더 차일드 호의 모습은 물론 세 번째 화성인의 모습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다 쪽으로 나아갔던 철갑선들은 어느덧 증기선 너머를 지나 해안을 향해 꽤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작은 배는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나아갔고, 철갑선들은 해안을 향해 천천히 멀어졌다. 해안은 증기와 검은 가스가 기묘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대리석 무늬의 구름층에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피난선단은 북동쪽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몇 척의 소형 범선들이 철갑선과 증기선 사이를 향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함들은 가라앉는 구름층에 닿기도 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수를 돌려 저녁의 짙어지는 안개 속으로 남쪽을 향해 나아갔다. 해안선은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지는 해 주변으로 몰려드는 낮은 구름층 사이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때 갑자기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 사이로 대포 소리가 진동하며 울려 퍼졌고, 검은 그림자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증기선의 난간으로 달려가 눈이 멀 듯이 이글거리는 서쪽 하늘을 살폈으

나, 아무것도 명확히 분간할 수 없었다. 거대한 연기 덩어리가 비스듬히 솟구치며 태양을 가로막았다. 증기선은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맥박 치듯 나아갔다.

태양은 회색 구름 너머로 저물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다 이내 어두워졌으며, 저녁별이 떨어듯 모습을 드러냈다. 선장이 비명을 지르며 어딘가를 가리켰을 때, 세상은 이미 깊은 황혼에 잠겨 있었다. 형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간신히 시선을 집중했다. 회색빛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서쪽 하늘, 구름 위로 펼쳐진 빛나는 청명함을 향해 비스듬히, 아주 빠르게 치솟았다. 납작하고 넓은 형태의 거대한 물체는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휘돌아 올라가더니, 점점 작아지다가 천천히 가라앉으며 다시 밤의 회색빛 신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날아가는 길을 따라, 대지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제2권 화성인 치하의 지구

BOOK TWO · 제I장

발밑의 존재들

제1권에서 나는 형의 경험을 이야기하느라 정작 내 모험과는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지난 두 장 내내, 나와 부목사는 검은 연기를 피해 도망쳐 들어온 할리포드의 빈집에 숨어 지내야만 했다. 이제 다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우리는 일요일 밤 내내, 그리고 공포가 몰아쳤던 다음 날 내내 그곳에 머물렀다. 검은 연기가 세상의 나머지 부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바람에, 우리는 마치 빛이 비치는 작은 섬에 고립된 것만 같았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이틀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아내가 리더헤드에서 공포에 질린 채 위험에 처해 있을 모습,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양 슬퍼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렸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아내와 격리된 나의 처지와 내가 없는 동안 아내에게 닥칠지도 모를 온갖 일들을

생각하면 절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촌 형은 어떤 비상사태에도 맞설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거나 즉각 행동에 나서는 부류는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신중함이었다. 화성인들이 아내로부터 떨어져 런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믿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런 막연한 불안은 마음을 예민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부목사가 끊임없이 내뿜는 비명 섞인 탄식은 나를 몹시 지치고 짜증 나게 했다. 그의 이기적인 절망을 지켜보는 것도 진력이 났다. 몇 번이나 효과 없는 만류를 해본 뒤, 나는 그를 피해 방 하나로 들어갔다. 지구본과 모형, 공책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의 공부방인 듯했다. 부목사가 그곳까지 나를 따라오자, 나는 집 꼭대기에 있는 작은 창고 방으로 들어가 고통스러운 비애를 홀로 견디기 위해 문을 잠갔다.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는 검은 연기에 갇혀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일요일 저녁, 옆집에 사람이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창가에 비친 얼굴도 보였고, 움직이는 불빛과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을 전혀 보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내내 검은 연기는 강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연기는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마침내 우리가 몸을 숨긴 집 밖의 도로를 따라 밀려 들어왔다.

정오 무렵, 화성인이 들판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화성인은 초고온의 증기를 내뿜어 검은 가루를 가라앉혔는데, 그 증기는 벽에 부딪히며 쇠 쇠 소리를 냈고 닿는 창문마다 모조리 박살 났다. 앞방에서 급히 도망

치던 부목사의 손에도 뜨거운 증기가 닿아 화상을 입혔다. 마침내 우리가 물에 젖은 방들을 가로질러 살금살금 기어 나와 다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북쪽의 들판은 마치 검은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 었다. 강 쪽을 바라보던 우리는 타버린 초원의 검은 빛 사이로 알 수 없는 붉은 빛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한동안 우리는 검은 연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외에는, 상황이 변한 것이 우리의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이야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 사방이 가로막힌 상태가 아니며, 이제는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탈출로가 열렸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부목사는 무기력하고 비이성적인 상태였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그가 되풀이했다. “여기라면 안전해.”

나는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포병에게서 배운 덕분에 조금 더 현명해진 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나섰다. 화상을 입은 곳에 바를 기름과 걸레를 찾아두었고, 어느 침실에서 모자와 플란넬 셔츠도 챙겼다. 내가 혼자 가려 한다는 사실을, 즉 혼자 가는 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자,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따라나서겠다고 했다. 오후 내내 정적이 흐르던 중, 대략 다섯 시쯤 되었을 때 우리는 검게 그을린 선버리행 도로를 따라 길을 떠났다.

선버리에서는 물론이고 길을 따라 곳곳에 시신들이 뒤엉킨 채 널브러져 있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들도 죽어 있었고, 뒤집힌 수레와 짐들 위로 검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그 재 같은 가루가 온 세상을 뒤덮은 모습은 마치 폼페이와 파멸을 기록한 글을 읽을 때 느꼈던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별다른 사고 없이 햄프턴 코트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기괴하고 생소한 풍경에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다. 햄프턴 코트에 이르러서야 그 숨 막히는 먼지 구름을 피한 초록빛 풀밭을 발견하고서야 겨우 안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밤나무 아래를 오가는 사슴들이 있는 부시 파크를 지나갔다. 멀리서는 남녘 몇몇이 햄프턴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트위컴에 도착했다. 그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들이었다.

도로 건너편, 햄과 피터스햄 너머의 숲은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트위컴은 열선이나 검은 연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으나 누구도 소식을 전해주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잠시 소강상태인 틈을 타 거처를 옮기려는 중이었다. 이곳의 많은 집에는 겁에 질린 주민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공포에 질린 상태였다. 도로를 따라 급히 도망친 흔적도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도로 위에 뭉쳐져 있던 부서진 자전거 세 대였다. 뒤따라오던 수레바퀴에 짓눌려 도로 바닥에 박혀 있었다.

우리는 8시 반쯤 리치먼드 다리를 건넜다. 노출된 다리 위를 서둘러 지나갔지만, 나는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오는 수많은 붉은 덩어리들을 목격했다. 어떤 것은 크기가 몇 피트나 되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자

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었기에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나는 그것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로 짐작하며 두려워했다. 서리 측인 이곳에서도 한때 연기였을 검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역 진입로 근처에는 시신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바언스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할 때까지 화성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검게 그을린 먼 곳에서 세 명의 사람이 골목길을 따라 강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나, 그 외에는 마을 전체가 텅 빈 듯했다. 언덕 너머 리치먼드 시내는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리치먼드 시 외곽에는 검은 연기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무더기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동시에 우리로부터 채 백 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 지붕 너머로 화성인 전투 기계의 상부 구조물이 거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눈앞의 위협에 질려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만약 화성인이 고개를 아래로 숙이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더는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길을 벗어나 어느 정원에 있는 창고로 몸을 숨겼다. 그곳에서 부목사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듯 소리 없이 흐느끼며 웅크리고 있었다.

레더헤드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결국 황혼이 깔릴 무렵, 나는 다시 밖으로 나섰다. 관목 숲을 지나 넓은 대지 위에 홀로 서 있는 저택 옆길을 따라 걸었고, 마침내

큐를 향하는 도로로 나왔다. 부목사는 창고에 남겨두고 왔지만, 그는 나를 급히 뒤쫓아왔다.

두 번째로 무모하게 행동한 것은 내 생애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다. 화성인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부목사가 나를 따라잡자마자, 우리는 멀리 큐 로지 방향의 초원 너머에서 이전에 보았던 전투 기계나 혹은 또 다른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회색빛이 도는 초원 위로 네다섯 명의 작은 검은 형체들이 그 기계 앞에서 급히 달아나고 있었다. 곧이어 화성인이 그들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계는 단 세 걸음 만에 그들에게 도달했고, 사람들은 기계의 발치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화성인은 열선을 써서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 사람들을 하나씩 집어 올렸다. 화성인은 마치 작업자가 어깨에 바구니를 매달고 다니듯, 자신의 뒤쪽에 돌출된 거대한 금속 운반함 속으로 사람들을 집어 던지는 듯 보였다.

패배한 인류를 상대로 화성인이 파괴 이외의 다른 목적을 품었는지 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잠시 돌처럼 굳어 서 있다가, 이내 몸을 돌려 뒤편에 있는 문을 통해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으로 도망쳤다. 그러다 운 좋게도 어느 도랑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몸을 숨겼다. 우리는 별이 뜰 때까지 서로 속삭이는 것조차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곳에 엎드려 있었다.

다시 출발할 용기를 내기까지는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도로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신 울타리를 따라, 혹은 숲 사이를 몰래 가로지르며 이동했다. 그는 오른쪽에, 나는

원편에 서서 어둠 속을 예민하게 살폈다. 화성인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것만 같았다.

견다 보니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검게 그을리고 타버린 구역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곳은 이제 식어가며 재만 남은 상태였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죽어 있었다. 머리와 몸통은 끔찍하게 타버렸지만, 다리와 장화는 대부분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약 50피트 떨어진 곳에 죽은 말들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네 문의 대포가 찢긴 채 부서진 포차와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쑤 마을은 파괴를 면한 듯 보였으나, 그곳은 적막하고 텅 비어 있었다. 밤이 너무 어두워 마을 옆길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이곳에서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쑤 마을에 들어서자 동행하던 이는 갑자기 어지러움과 갈증을 호소했다. 우리는 근처 집 중 한 곳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창문을 여느라 애를 줌 먹은 끝에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집은 작은 연립 빌라였다. 그곳에는 곰팡이 핀 치즈 말고는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도 마실 물은 있었다. 나는 도끼를 하나 챙겼다. 다음번 집을 털 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았다.

우리는 이어 도로가 모트레이크 방향으로 꺾이는 지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딸린 하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집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먹을거리를 찾아냈다. 팬에 담긴 빵 두 덩이와 익히지 않은 스테이크용 고기, 그리고 햄 반 덩이가 있었다. 내가 이 목록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우

리가 앞으로 보름 동안 이 음식들로 연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반 아래에는 병에 든 맥주가 놓여 있었고, 강낭콩 두 자루와 시든 상추 몇 포기도 있었다. 식료품 저장실은 일종의 부엌 겸 세척실로 이어졌는데, 그곳에는 빨감이 있었다. 또한 찬장 안에서는 부르고뉴 와인 열두 병 가까이와 통조림 수프, 연어 통조림, 그리고 비스킷 두 통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불을 켜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어둠이 깔린 옆집 주방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빵과 햄을 먹으며 한 병에 든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여전히 겁에 질려 안절부절못하던 부목사는 묘하게도 이제는 계속 나아가자며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기운을 차려야 한다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가두게 될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자정이 될 리가 없어.” 내가 말한 직후,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초록빛이 번쩍였다. 주방의 모든 물건이 초록색과 검은색의 대비 속에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뒤이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뒤따랐다. 천장의 석고가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며 수많은 파편으로 부서졌다. 나는 바닥을 굴러 오본 손잡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며 정신을 잃었다. 부목사의 말에 따르면 나는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주위는 다시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부목사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얼굴로 내게 물을 끼얹으며 나를 돌보고 있었다.

한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다. 관자놀이의 멍이 육신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좀 괜찮으십니까?” 부목사가 속삭이듯 물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움직이지 마시오.” 그가 말했다. “찬장에서 쏟아진 그릇 파편들이 바닥에 깔려 있소. 소리를 내지 않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군. 내 생각엔 _그들_이 바로 밖에 있는 것 같소.”

우리 둘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다. 그러다 문득 근처에서 회반죽이나 부서진 벽돌 조각 같은 것이 덜컥거리며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바깥쪽 가까운 곳에서는 금속이 간헐적으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 일이 다시 일어나자, 부목사가 외쳤다. "저것 좀 보세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대체 뭡니까?”

“화성인이오!” 부목사가 말했다.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열선과는 달랐어.” 내가 말했다. 한동안 나는 거대한 전투 기계 중 하나가 집을 들이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예전에 셰퍼턴 교회의 탑을 전투 기계가 들이받던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었기에, 동이 틀 때까지 서너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윽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빛은 여전히 검게 가려진 창문이 아니라, 우리 뒤쪽 벽면의 대들보와 부서진 벽돌 더미 사이로 난 삼각형 모양의 틈새를 통해 들어왔다. 그제야 우리는 처음으로 회색빛이 감도는 주방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정원의 흙더미가 창문을 부수고 밀고 들어왔다. 흙은 우리가 앉아 있던 탁자 위로 흘러넘쳤고, 우리 발치에도 수북이 쌓였다. 집 밖에는 흙이 집벽을 따라 높게 쌓여 있었다. 창틀 위쪽에는 뿌리째 뽑힌 배수관이 보였다. 바닥에는 부서진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과 연결된 주방 끝부분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그곳으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집의 대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이 분명했다. 이 폐허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깔끔한 찬장이었다. 찬장은 당시 유행에 따라 연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벽지는 청백색 타일을 흉내 낸 무늬였으며, 주방 난로 위쪽 벽에는 색도로 인쇄된 신문 부록 두어 장이 펴려있고 있었다.

새벽빛이 밝아오면서 벽 틈으로 화성인 하나가 보였다. 아직도 열기를 내뿜고 있는 원통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주방의 어스름을 벗어나 어두운 식기 세척실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어 나갔다.

순식간에 무엇이 진실인지 깨달았다.

“다섯 번째 원통이야.” 나는 속삭였다. “화성에서 날아온 다섯 번째 공격이 이 집을 덮쳤고, 우리는 무너진 잔해 속에 파묻히고 말았어!”

부목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곧이어 그가 혼잣말로 킁킁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식기 세척실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나 역시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주방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빛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부목사의 얼굴은 희미한 타원형으로 겨우 보였고, 그의 옷깃과 소매 끝자락도 어렴풋이 보였다.

밖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격렬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엔진이 돌아가는 듯한 싹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소음들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한 간격의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시작되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떨렸고, 식료품 저장실 안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위치를 옮길 정도로 진동은 거셌다. 한때는 빛마저 차단되어, 유령처럼 보이던 주방 문틈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도 했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그곳에 웅크린 채 떨며 한참 동안이나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마침내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몹시 허기가 진 상태였다. 깨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 것이 분명하다. 허기가 너무나 강렬하게 밀려온 나머지,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부목사에게 음식을 좀 찾아보겠다고 말한 뒤, 손을 더듬어 식료품 저장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희미한 소리에 자극을 받았는지 그가 내 뒤를 따라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BOOK TWO · 제II장

폐허가 된 집에서 본 것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식기 세척실로 기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또다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시 후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쿵쿵거리는 진동은 지칠 줄 모르고 끈질기게 계속 이어졌다. 나는 몇 번이고 부목사를 낮은 목소리로 불러보았고, 마침내 손을 더듬어 주방 문까지 다가갔다. 아직은 낮이었기에 방 건너편이 보였다. 부목사는 화성인들이 내다보이는 삼각형 구멍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다.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어서 머리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기관차 보관소에서나 들릴 법한 소음들이 여러 갈래로 들려왔다. 장소 전체가 쿵쿵거리는 육중한 울림과 함께 흔들렸다. 벽에 난 구멍 사이로 금빛으로 물든 나무 꼭대기와 평온한 저녁 하늘의 따스한 푸른빛이 보였다. 나는 잠시 동안 부목사를 지켜보다가,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피해 몸을 낮춘 채 극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부목사의 다리를 건드리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그 반동으로 석고 덩어리 무더기가 밖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가 비명을 지를까 두려워 나는 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우리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우리가 만든 방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렸다. 석고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잔해 사이에 세로로 길게 틈이 생겨 있었다. 나는 들보를 타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교외의 도로가 보였다. 우리가 목격한 변화는 실로 엄청났다.

다섯 번째 원통은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집 한복판에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 충격으로 건물은 형체도 없이 완전히 박살 나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 원통은 원래 건물의 기초보다 훨씬 깊은 곳에 처박혀 있었다. 그 구덩이는 내가 워킹에서 들여다보았던 구덩이보다 이미 훨씬 더 거대해져 있었다. 엄청난 충격 탓에 원통 주변의 흙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튀어 올랐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튀어 나간 흙더미는 주변 집들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언덕을 이루며 쌓여 있었다. 마치 망치로 강하게 내리쳤을 때 진흙이 사방으로 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우리가 머물던 집은 뒤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앞쪽은 1층마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다행히 주방과 식기 세척실은 화를 면했으나, 지금

은 원통 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이 수 톤의 흡과 잔해에 둘러싸인 채 땅 속에 파묻혀 있었다. 우리는 화성인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원형 구덩이의 바로 가장자리에 매달리듯 버티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무거운 타격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이따금 밝은 초록색 증기가 베일처럼 우리 시야를 가로질러 솟구쳐 올랐다.

구덩이 중앙에서는 이미 원통이 열려 있었다. 구덩이 너머 가장자리, 부서진 관목과 자갈더미 사이에는 거대한 전투 기계 한 대가 서 있었다. 탑승자가 떠나버린 그 기계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뻗뻗하고 높게 솟아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구덩이나 원통에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구덩이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기이하고 번쩍이는 장치와, 그 옆에 쌓인 흙더미 위를 느릿하고 고통스럽게 기어가는 기괴한 생명체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구덩이와 원통을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말이다.

내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단연 그 기계 장치였다. 그것은 훗날 조작 기계라 불리게 될, 매우 복잡한 구조의 장치 중 하나였다. 이 기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지구의 발명 기술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하기도 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눈에 비친 모습은 마디가 있는 다섯 개의 민첩한 다리를 가진 일종의 금속 거미였다. 몸체에는 관절이 달린 레버와 막대기, 그리고 무언가를 뺏어 옮겨주는 축수들이 기이할 정도로 많이 달려 있었다. 팔 대부분은 몸 안으로 접어 넣은 상태였으나, 세 개의 긴 축수만은 원통의 내벽을 따라 늘어선 막대와 판, 그리고 막대기들을 하나씩 꼬집어내고 있었다. 이 부품들은 원통의 벽면을 보강하는 용도로 쓰이는 듯 보였다. 기계가 부품을 하나씩 뽑아낼 때마

다, 그것들은 들어 올려져 기계 뒤편의 평평한 지면에 차곡차곡 놓였다.

그 움직임은 너무도 빠르고 복잡하며 완벽해서, 금속성의 광채가 번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기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전투 기계들도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이며 생동감이 넘쳤지만,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구조물을 직접 본 적 없이,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의존한 그림이나 나 같은 목격자들의 불완전한 묘사만을 접해본 사람들은 그 생동감 넘치는 특성을 도저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의 경과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초기 팸플릿 중 하나에 실린 삽화를 나는 특히 기억한다. 화가는 전투 기계 중 하나를 서둘러 스케치한 모양이었는데, 그의 지식은 딱 거기까지였던 듯하다. 그는 전투 기계를 유연함이나 정교함이라곤 전혀 없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뻗뻗하게 서 있는 삼각대처럼 그려 놓았다. 그 모습은 전체적으로 단조롭기까지 해서 보는 이를 오도할 정도였다. 이러한 그림들이 실린 팸플릿은 꽤나 유행했는데, 내가 여기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독자들이 그 삽화로 인해 잘못된 인상을 갖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다. 그 그림 속 모습은 내가 실제로 목격한 화성인의 움직임과는, 마치 네덜란드 인형이 실제 사람과 닮지 않은 것만큼이나 거리가 멀었다. 내 생각에 그 팸플릿은 차라리 그런 그림들이 없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작 기계가 기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번뜩이는 껍질을 두른 계와 같은 생명체처럼 보였다. 기계를 움직이는 화성인의

섬세한 촉수들은 마치 계의 뇌 부분과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기계의 회갈색빛이 도는 번들거리는 가죽 껍질이 저 멀리 널브러진 다른 몸체들의 껍질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이 능숙한 일꾼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의 관심은 진짜 화성인들, 즉 저 다른 생명체들에게로 옮겨갔다. 이미 그들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받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처음 느꼈던 구역질 때문에 관찰을 방해받지도 않았다. 게다가 나는 몸을 숨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생명체들이었다. 지름이 약 4피트 정도 되는 거대하고 둥근 몸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라고 해야 할 것들이었다. 그 몸체 앞쪽에는 얼굴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 얼굴에는 콧구멍이 없었다. 실제로 화성인들에게는 후각이 없는 듯 보였다. 대신 아주 커다란 어두운 색 눈이 한 쌍 달려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살덩이로 된 부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머리 혹은 몸체라고 불러야 할 것의 뒷면에는 팽팽한 고막 같은 표면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해부학적으로 귀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구의 밀도 높은 공기 속에서는 거의 제 기능을 못 했을 것이 분명했다. 입 주변에는 여덟 개씩 두 묶음으로 나뉘는, 채찍처럼 가늘고 긴 촉수 열여섯 개가 모여 있었다. 저명한 해부학자인 하우스 교수는 이 촉수 묶음을 '손'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꽤 적절한 이름이다. 내가 화성인들을 처음 목격했을 때, 그들은 이 손을 이용해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구의 중력과 환경 탓에 몸이 무거워진 탓인지 그 시

도는 불가능했다. 화성에서는 이 손들을 이용해 꽤 수월하게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이후 진행된 해부 결과에 따르면, 화성인의 내부 구조 또한 거의 비슷할 정도로 단순했다. 신체의 대부분은 뇌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뇌는 눈과 귀, 그리고 촉각을 담당하는 촉수들로 거대한 신경들을 뻗고 있었다. 그 외에도 입과 연결된 거대한 폐와 심장, 그리고 혈관들이 있었다. 화성인이 처한 대기 밀도의 차이와 더 강한 중력 때문에 발생한 폐의 고통은,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는 외피의 움직임을 통해 아주 명확히 드러났다.

이것이 화성인의 신체 기관을 요약한 내용이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잡한 소화 기관 따위는 화성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머리뿐이었다. 내장도 없었다. 먹지도 않았고, 소화는 말할 것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생명체의 신선하고 살아있는 피를 취해 자신의 혈관 속으로 주입했다. 나 역시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 해도, 차마 끝까지 지켜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던 그 장면을 묘사할 수는 없다. 그저 살아있는 동물, 대개는 인간에게서 얻은 피를 작은 피펫을 이용해 화성인의 수혈관으로 직접 흘려보냈다고만 해두겠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명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럽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능을 가진 토끼의

입장에서 본다면, 육식을 즐기는 우리의 습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일지를 말이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주사 요법이 주는 생리적 이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온통 샘과 관, 그리고 장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제각기 이질적인 음식물을 피로 바꾸는 일에 매달린다. 소화 과정과 그 과정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기력을 앗아가고 정신 상태를 흐트러뜨린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간이 건강한지, 혹은 위샘이 온전한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성인은 이러한 유기적인 기분 변화와 감정의 기복을 초월한 존재였다.

화성인이 인간을 영양원으로 선호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이유의 일부는 화성에서 식량으로 가져온 희생자들의 사체 상태를 보면 설명된다. 인간의 손에 들어온 말라비틀어진 유해로 미루어 볼 때, 이 생명체들은 이족 보행을 하는 존재였다. 이들의 골격은 실리카 성분으로 이루어져 매우 연약했으며, 마치 해면동물의 골격과도 비슷했다. 근육 또한 미약했다. 키는 약 6피트 정도였고, 머리는 둥글고 곧게 서 있었으며, 단단한 안와 속에는 커다란 눈이 박혀 있었다. 원통 하나당 두세 마리 정도가 실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구에 도달하기 전 모두 죽은 상태였다. 화성인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지구의 중력에서 똑바로 서 있으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뼈가 부러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이어가는 동안,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비록 그때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 내용을 통해 사건을 모르는 독자들도 그 공격적인 생명체들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생리적 측면에서도 화성인은 우리와 세 가지 점에서 기이하게 달랐다. 인간의 심장이 쉬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유기체 또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근육 체계가 없었기에, 주기적으로 의식을 잃고 휴식하는 일 따위는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피로라는 감각은 거의, 혹은 아예 없는 듯 보였다. 지구에서라면 결코 힘들이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었겠지만, 화성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들은 24시간 동안 24시간 분량의 일을 해냈다. 아마 지구의 개미들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이 존재하는 세계의 관점에서는 경이롭게도 화성인에게는 성별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인간 사이의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정적인 감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논쟁의 여지 없이, 전쟁 중에 실제로 지구에서 태어난 어린 화성인이 있었다. 이 어린 개체는 마치 백합 알뿌리가 싹을 틔우듯, 혹은 민물 히드라의 새끼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오듯, 부모의 몸에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고등 동물에게서 이러한 증식 방식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구에서도 분명히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척추동물의 가까운 친척 격인 멧게류와 같은 하등 동물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병행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유성 생식 방식이 경쟁 상대를 완전히 대체했다. 그러나 화성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화성인의 침공이 일어나기 훨씬 전, 준과학적 명성을 지닌 한 사색적 작가가 인류의 최종적인 모습이 실제 화성인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의 예언은 1893년 11월이나 12월경에 지금은 사라진 잡지인 《팔 몰버젯(Pall Mall Budget)》에 실렸었다. 또한 침공 전의 정기 간행물인 《펀치(Punch)》에 이 내용을 풍자한 삽화가 실렸던 것도 기억난다.

그 작가는 다소 어리석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계 장치가 완벽해지면 결국 신체의 사지는 필요 없게 될 것이며, 화학 장치가 발달하면 소화 기능 또한 필요치 않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머리카락, 코, 치아, 귀, 턱과 같은 기관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며, 자연선택의 흐름에 따라 다가올 시대 속에서 이러한 부위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오직 뇌만이 핵심적인 필수 기관으로 남을 것이다. 신체 부위 중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손뿐이었는데, 그는 손을 "뇌의 스승이자 대리인"이라고 표현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점점 퇴화하는 반면, 손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농담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화성인의 사례를 보면, 지성이 유기체의 동물적 측면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논란의 여지 없이 보여준다. 화성인들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부터 진화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내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신체의 나머지 부분을 희생하는 대신, 뇌와 손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온 것이다. 여기서 손이란,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 두 뭉치의 섬세한 촉수로 변모한 그것을 말한다. 물론 신체가 사라진다면 뇌는 인간이 지닌 정서적 토대를 모두 잃어버린 채, 오로지 이기적인 지성체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생명체들의 체계가 인류의 것과 달랐던 마지막 결정적인 지점은, 어쩌면 매우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만한 대목에 있었다. 지구에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화성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화성의 위생 과학이 아주 오래전에 이를 박멸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수백 가지의 질병, 즉 온갖 열병과 전염병, 폐결핵, 암, 종양 같은 각종 병증은 화성 생명체의 생존 방식에는 전혀 끼어들 틈이 없다. 화성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 사이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여기서 붉은 잡초가 보여주는 기묘한 징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화성의 식물계는 초록색이 주를 이루는 대신, 선명한 혈색을 띠는 듯했다. 어쨌든 화성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가져온 씨앗들은 예외 없이 붉은색 생장물로 자라났다. 하지만 그중 대중에게 '붉은 잡초'로 알려진 것만이 지구의 식물들과 경쟁하며 자리를 잡았다. 붉은 덩굴은 아주 일시적으로만 자라났기에, 그것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동안 붉은 잡초는 놀라운 정도로 활기차고 무성하게 번져 나갔다. 우리가 간혀 있던 지 3, 4일째 되던 날, 붉은 잡초는 구덩이 벽면을 타고 올라왔고, 선인장을 닮은 가지들은 삼각형 창문 가장자

리에 진홍색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 후 나는 이 잡초가 전국적으로, 특히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퍼져 나간 것을 목격했다.

화성인에게는 청각 기관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머리와 몸통이 이어진 뒷부분에 둥근 북 모양의 기관이 하나 달려 있었다. 눈의 시야 범위는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필립스의 말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청색과 보라색이 검은색처럼 보였다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화성인이 소리를 내거나 축수를 흔드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앞서 언급했던, 화성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닌 듯한 이 팸플릿(내용은 훌륭하지만 서둘러 엮은 듯하다)에서도 이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팸플릿은 화성인에 관한 주요 정보원이 되어 왔다.

하지만 화성인이 활동하는 모습을 나만큼 가까이서 지켜본 생존자는 없다. 우연히 겪은 일이라 내 공으로 돌리지는 않겠다만, 사실이 그러하다. 나는 화성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수차례 면밀히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네 마리, 다섯 마리, 심지어 한 번은 여섯 마리의 화성인이 소리도 몸짓도 없이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특유의 '후우'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은 예외 없이 먹이를 먹기 전의 징조였다. 그 소리에는 고저가 없었으며, 내가 보기에는 어떤 신호도 아니었다. 그저 흡입 작업을 하기 전 공기를 내뿜는 소리에 불과했다.

나는 심리학에 대해 최소한 기초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떤 사실을 확신할 때만큼이나

단호하게 믿고 있다. 화성인들은 물리적인 매개체 없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 말이다. 나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화성인의 침공이 일어나기 전, 가끔 글을 읽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나는 텔레파시 이론에 대해 꽤 격렬하게 반대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화성인은 옷을 입지 않았다. 장식이나 예의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달랐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온도 변화에 훨씬 덜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기압 변화 또한 그들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보였다. 비록 옷은 입지 않았으나,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점은 신체적 능력을 보완해 주는 다른 인공적인 장치들에 있었다.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릴리엔탈식 비행기, 총과 지팡이 따위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은 화성인이 이미 완성해 놓은 진화의 아주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화성인은 사실상 뇌 그 자체가 된 존재였다. 인간이 필요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급할 때는 자전거를 타거나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듯, 그들도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신체를 착용했다.

그들의 장비 중 인간에게 가장 경이롭게 다가온 사실은 아마도 기계 장치의 핵심인 '바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기계적 장치에서 바퀴는 지배적인 특징을 갖지만, 화성인의 장치에는 바퀴가 없었다. 그들이 지구로 가져온 모든 물건 중 어디에서도 바퀴를 사용한 흔적이나 암시를 찾을 수 없었다. 이동 수단에서만큼은 바퀴를 사용할 것이라 당연히 예상했을 터였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

운 점은, 이 지구의 자연조차 바퀴라는 형태를 생각해 내지 못했거나, 바퀴를 발전시키는 대신 다른 방식을 택해 왔다는 사실이다.

화성인은 바퀴를 아예 모르거나(믿기 힘든 일이지만), 혹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치에는 고정된 축이나, 한 평면 안에서 원운동을 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축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기계의 관절은 대부분 작지만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마찰을 줄여주는 미끄럼 부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세부 사항 외에도 놀라운 점이 또 있었다. 기계의 긴 지렛대들은 대부분 탄성 외피에 싸인 원반 형태의 가짜 근육에 의해 작동되었다. 이 원반들은 전류가 흐르면 극성을 띠며 서로 강력하게 밀착하듯 끌어당겨졌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인간 관찰자에게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불쾌한 느낌을 주었던 동물적 움직임과의 기묘한 유사성이 구현되었다.

내가 틈새로 처음 고개를 내밀었을 때, 원통을 해체하던 게를 닮은 조작 기계에는 이런 유사 근육이 가득했다. 그 기계는 석양 빛 속에서 거대한 우주 여정을 마친 뒤, 숨을 헐떡이며 무력한 촉수를 꿈틀거리고 힘겹게 움직이는 실제 화성인들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쳐 보였다.

햇빛 아래에서 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기이한 형태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을 때였다. 부목사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고개를 돌리니 잔뜩 찌푸린 얼굴과 말은 없으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술이 보였다. 그는 틈새를 통해 밖을 내다보려 했다. 그 틈은 우리 중 한 명

만 겨우 들여다볼 수 있는 크기였다. 결국 나는 그가 그 특권을 누리는 동안 잠시 관찰을 멈춰야만 했다.

다시 살펴보니, 분주히 움직이던 조작 기계는 이미 원통에서 꺼낸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자신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갖추어 놓은 상태였다. 왼쪽 아래에는 작은 굴착 장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장치는 초록색 증기를 뿜어내며 구덩이 주위를 돌고 있었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식으로 땅을 파내고 흙을 쌓아 올렸다.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와 리듬감 있는 충격이 우리를 뒤흔들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기계는 작업하는 내내 쉴새없는 소리와 휘파람 소리를 냈다. 내가 보기에, 그 기계에는 조종하는 화성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BOOK TWO · 제III장

감금의 나날들.

두 번째 전투 기계가 나타나자 우리는 숨어 있던 구멍에서 벗어나 부엌 옆 작은 조리실로 몸을 피했다. 화성인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면, 우리가 세운 방벽 뒤에 숨은 모습까지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성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씩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은신처 밖의 눈부신 햇빛 때문에, 안쪽을 들여다보는 눈에는 그저 칙흑 같은 어둠만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져도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에 질려 조리실로 도망치기 일쑤였다.

그토록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몰래 훑쳐보고 싶은 유혹은 우리 둘 모두에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경이롭기까지 하다. 굶주림과 그보다 더 끔찍한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겠다는 권리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우리는 구경하고 싶은 갈망과 소리를

널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주방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러다 서로를 때리고 밀치고 발로 차며, 발각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거리까지 다가가곤 했다.

사실 우리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달랐고, 서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성격과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처한 위험과 고립된 상황은 이러한 불협화음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할리포드에 머물 때부터 나는 부목사의 태도가 이미 진저리나게 싫었다. 그는 매사 무력한 비명이나 지르는 버릇이 있었고, 사고방식 또한 지독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독백은 내가 행동 방침을 구상하려는 모든 노력을 망쳐놓았다. 그 소음이 억눌린 채 고조될 때면, 나는 때때로 미치기 직전의 상태까지 몰리곤 했다. 그는 철없는 여자처럼 자제력이 전혀 없었다. 몇 시간이고 눈물을 흘려대기 일쑤였는데, 나는 그 인생의 버릇없는 아이가 자신의 나약한 눈물이 무슨 효험이라도 있는 줄로 믿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가 끊임없이 보채는 통에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 화성인이 구덩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집 안에 머물며 버티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조만간 음식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소용없었다. 그는 긴 간격을 두고 몰아치듯 과하게 먹고 마셨다.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그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욱 심해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위험도 극에 달했다. 나는 차마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를 위협하고 마침내 손찌검까지 해야만 했다. 그제야 그는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겁 많고 빈혈 기운이 도는 나약한 인간 중 하나였다. 그는 비겁한 술수만 가득할 뿐, 신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혐오스러운 영혼이었다.

이런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글로 옮기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내 이야기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록해 둔다. 삶의 어둡고 끔찍한 이면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이라면, 마지막 비극 속에서 내가 보여준 잔혹함과 찰나의 분노를 쉽게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고통에 짓눌린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그림자 아래 놓여본 이들, 결국 가장 근원적인 것들로까지 내몰려 본 이들이라면 나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것이다.

우리가 안에서 속삭임과 다급한 음식 섭취, 서로를 움켜쥐는 손길과 몸싸움이 뒤섞인 어둡고 혼란스러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밖에서는 그 끔찍한 6월의 무자비한 햇살 아래 화성인들이 구덩이 속에서 보여주는 기이하고도 낯선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의 그 첫 경험들을 다시 되짚어보려 한다. 한참이 지난 뒤 나는 조심스레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사이 새로 나타난 화성인들은 적어도 세 대의 전투 기계에 올라탄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투 기계들은 원통 주변에 새로운 장치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해 두었다. 두 번째 조작 기계는 이제 조립이 완료되어, 거대한 전투 기계가 가져온 새로운 장치 중 하나를 다루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장치는 전체적인 형태가 우유통을 닮았는데, 그 위로는 배 모양의 용기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용

기에서는 하얀 가루가 줄기처럼 흘러나와 아래에 놓인 원형 대야로 쏟아져 들어갔다.

조작 기계의 축수 하나가 이 물체에 진동을 가했다. 조작 기계는 주걱 모양의 두 손으로 점토 덩어리를 파내어 위쪽에 있는 서양배 모양의 수납함 속으로 던져 넣고 있었다. 동시에 또 다른 팔로는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 기계 중앙부에 쌓인 녹슬고 검게 그을린 찌꺼기들을 밖으로 퍼냈다. 또 다른 강철 축수는 대야에 담긴 가루를 흠이 파인 통로를 따라 흘려보냈는데, 그 끝에 연결된 수납함은 푸르스름한 먼지 더미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그 수납함에서는 가느다란 초록색 연기가 고요한 공기 속으로 수직으로 피어올랐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조작 기계는 희미하고 음악적인 금속음을 내며 축수 하나를 망원경처럼 길게 뻗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몽툰한 돌출부에 불과했던 축수는 점토 더미 뒤로 끝이 사라질 때까지 길어졌다. 1초도 지나지 않아 기계는 아직 때가 타지 않아 눈부시게 빛나는 흰색 알루미늄 막대 하나를 들어 올렸다. 기계는 그 막대를 구덩이 옆에 점점 높아지는 막대 더미 위에 내려놓았다. 해가 지고 별빛이 비칠 때까지, 이 능숙한 기계는 거친 점토를 이용해 백 개가 넘는 막대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푸르스름한 먼지 더미는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꾸준히 쌓여갔을 것이다.

기계들의 빠르고 복잡한 움직임과 그 주인들의 무기력하고 험덕거리는 서투른 모습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다. 나는 이 기계들이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는 저 서투른 주인들이라는 사실을 며칠 동안이나 몇 번이고 되뇌어야 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구덩이로 실려 왔을 때, 부목사가 그 틈새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아래쪽에 몸을 웅크린 채 온 신경을 집중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부목사가 갑자기 뒤로 움찔하며 움직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나는 경련하듯 몸을 더 깊숙이 웅크렸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와 어둠 속에서 내 곁으로 기어 왔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손짓만 해댔고, 나 역시 잠시 동안은 그와 똑같은 공포를 느꼈다. 그의 몸짓은 그 틈새를 포기하자는 뜻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호기심이 용기를 북돋웠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를 넘어 지나간 뒤, 틈새를 향해 기어 올라갔다.

처음에는 그가 왜 그렇게 광적으로 행동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느덧 황혼이 내려앉아 별들은 작고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구덩이 안은 알루미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록빛 불꽃이 일렁이며 밝히고 있었다. 초록색 빛줄기와 녹슨 듯 검은 그림자가 어지럽게 교차하며 일렁이는 풍경은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기묘했다. 박쥐들은 그 광경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 사이를 가로질러 날아다녔다. 널브러져 있던 화성인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청록색 가루 더미가 그들을 덮어버린 상태였다. 구덩이 한쪽 구석에는 다리를 오므린 채 찌그러진 모습의 전투 기계가 서 있었다. 그때 기계가 내는 굉음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의구심이 스쳤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라 생각하며 넘겨버렸다.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이 전투 기계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덮개 안에 화성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초록빛 불꽃이 치솟을 때마다 화성인의 피부에서 흐르는 기름진 광택과 번뜩이는 눈동자가 보였다. 그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기계의 어깨 너머로 긴 촉수 하나가 뻗어 나와 등 위에 얹힌 작은 새장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무언가가,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무언가가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려졌다. 별빛을 배경으로 한 검고 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형체였다. 그 검은 물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때, 나는 초록빛 광채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보였다.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혈색이 좋은 중년 남성이었으며, 옷차림도 깔끔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세상 속을 당당히 거닐던, 꽤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했다. 멍하니 쓰인 그의 눈과 단추, 시계 줄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그는 언덕 뒤로 사라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화성인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끊이지 않는 즐거운 듯한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쓰레기 더미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온 뒤,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부엌으로 달려 들어갔다. 머리를 감싸 쥐고 채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부목사가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면 크게 소리를 질렀고, 내 뒤를 쫓아 달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식기 세척실에 숨어 있었다. 공포와 더불어 엿보는 행위가 주는 기괴한 매혹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한 채였다. 당장이라도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을 느꼈지만, 탈출 계획

을 세우려는 시도는 허사였다. 하지만 이튿날이 되자, 나는 우리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부목사는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새로 닥친 이 극악무도한 참상은 그에게서 이성이나 앞날을 내다보는 사고 능력의 흔적마저 모두 앗아갔다. 사실상 그는 이미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나는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통제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처지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화성인이 이 구덩이를 그저 임시 주둔지로만 사용할 가능성에 있었다. 설령 그들이 이곳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굳이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니 탈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나는 구덩이 반대 방향으로 길을 파서 나갈 가능성도 신중하게 따져 보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감시 중인 전투 기계와 마주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그 굴착 작업은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부목사에게 도움을 기대했다가는 분명 실패할 것이 뻔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소년이 죽는 것을 목격한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화성인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실제로 본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 그 일을 겪은 뒤, 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벽에 난 구멍 근처에도 가지 않은 채 보냈다. 나는 식기 세척실로 들어가 문을 떼어낸 뒤, 도끼를 들고 최대한 조용히 땅을 파 내려갔다.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어

2피트 정도 깊이로 구멍을 뚫을 때였다. 갑자기 느슨한 흙더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나는 더 이상 파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의욕을 잃고 한동안 식기 세척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움직일 기운조차 나지 않았다. 그 일을 계기로 땅을 파서 탈출하려던 생각은 완전히 접어버렸다.

화성인이 내게 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처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화성인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혹은 전혀 품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밤이 되었을 때, 나는 무거운 대포가 울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밤이 깊었으나 달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화성인들은 굴착 기계를 가져갔다. 구덩이 멀리 떨어진 제방 쪽에 서 있는 전투 기계 한 대와, 내 관측 구멍 바로 아래 구덩이 구석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조작 기계 한 대를 제외하면 그곳에 화성인은 아무도 없었다. 조작 기계에서 새어나오는 창백한 빛과 줄무늬와 얼룩처럼 비치는 하얀 달빛을 제외하면 구덩이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작 기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주 고요했다. 그날 밤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행성 하나를 제외하면, 마치 달이 하늘을 독차지한 듯한 밤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익숙한 울음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때 거대한 대포 소리와 똑같은 굉음이 아주 또렷하게 들려왔다. 분명한 폭음이 여섯 번 울렸고, 긴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여섯 번이 울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BOOK TWO · 제IV장

부목사의 죽음.

우리가 갇힌 지 엿새째 되던 날, 나는 마지막으로 밖을 살피러 나갔다가 이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목사는 내 곁에 바짝 붙어 내가 틈새로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신, 다시 식기 세척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서둘러, 그리고 조용히 식기 세척실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부목사가 무언가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둠을 틈타 손을 뻗었고, 손가락 끝에 버건디 와인 병이 걸렸다.

몇 분 동안 몸싸움이 이어졌다. 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자, 나는 싸움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위협했다. 결국 나는 음식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이제부터 엄격한 규율을 세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음식을 열흘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 배분했다. 그날은 그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음식을 먹으려고 힘없는 시도를 했다. 나는 꾸벅 꾸벅 졸고 있었지만, 기척이 느껴지자마자 즉시 깨어났다. 밤낮으로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나는 지쳤지만 결연했고, 그는 당장 배가 고프다며 울며 불평했다. 분명 하루하고도 하룻밤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내게는—지금 돌이켜봐도—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결국 서로 맞지 않던 관계는 공개적인 충돌로 치달았다. 이틀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과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내가 미친 듯이 그를 때리고 발로 차던 때도 있었고, 달래며 설득하던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마지막 남은 버건디 와인 한 병으로 그를 매수해보려 시도하기도 했다. 빗물을 받아낼 수 있는 펌프가 있어 물을 구할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을 쓰든 친절을 베풀든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정말이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식량을 공격하는 것도, 혼자서 웅얼거리는 소란을 피우는 것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있는 이 상황을 견딜 만하게 만들려는 나의 기본적인 노력들은 모두 무시당했다.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지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그리고 이 좁고 병적인 어둠 속에서 나의 유일한 동료는 미쳐 버린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렴풋한 기억을 되짚어 보면, 가끔은 내 정신마저 갈피를 못 잡고 헤맸던 것 같다. 잠들 때마다 기괴하고 끔찍한 꿈이 나를 괴롭혔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오히려 부목사가 보여준 나약함과 광기가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고, 미치지 않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는 속삭이는 대신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리 달래 보아도 그의 말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로다, 오 하나님!”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말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로다. 나와 내 가족에게 벌을 내리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도리에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가난과 슬픔이 있었으나, 가난한 이들이 먼지 속에 짓밟힐 때 나는 침묵하였나이다. 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리석은 말만을 설교하였나이다. 세상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던 말인가! 마땅히 일어서서, 설령 그것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야 했나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압제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포도즙 틀이로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내가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기도하고, 애원하고, 울며 매달리더니, 마침내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내가 약점을 잡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소리를 질러 화성인들을 우리에게 불러들이겠다고 협박했다. 한동안은 그 말이 정말 두려웠다. 하지만 그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했다가는 우리가 탈출할 기회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를 거부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가 협박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여덟째 날과 아홉째 날의 대부분 동안, 그는 목소리를 서서히 높여가며 말을 이어갔다. 협박과 간청이 뒤섞인 말들이었다. 그 말들 사이에는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행했던 자신의 공허한 가식에 대한, 반쯤 미친 듯이 쏟아

나는 경박한 참회도 섞여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나는 그가 가엾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다 그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이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간곡히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히고 몸을 일으켰다. 구리 통 근처 어둠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오래 잠잠히 있었구나.” 그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화성인들의 구덩이까지 닿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증언을 남겨야만 한다. 이 불충한 도시에 재앙이 닥치리라! 재앙이여! 재앙이여! 재앙이여! 재앙이여! 재앙이여! 재앙이여! 나팔의 다른 소리들이 울려 퍼질 때, 지구의 거주자들에게 닥칠 재앙이여——”

“입 다물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화성인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이니——”

“아닙니다!” 부목사가 소리쳤다. 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린 채 목청껏 외쳤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그는 세 걸음 만에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 앞까지 다다랐다.

“나는 증언해야 한다! 이제 가야겠다!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

나는 손을 뻗어 벽에 걸린 고기 다지는 칼을 잡았다. 순식간에 그를 뒤쫓았다. 공포로 인해 나는 사나워져 있었다. 그가 주방을 채 절반도 지나기 전에 나는 그를 따라잡았다. 마지막 남은 인류애를 발휘해 칼날을 뒤로 돌린 뒤, 칼자루로 그를 내리쳤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바닥에 길게 뻗어 누웠다. 나는 그에게 걸려 비틀거리다 멈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회반죽이 미끄러지며 부서지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더니 벽에 난 삼각형 구멍이 어두워졌다. 고개를 들어 보니, 조작 기계의 밑면이 구멍을 가로질러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기계의 집게 다리 하나가 잔해 사이로 굽어 들어왔다. 또 다른 다리가 나타나더니 무너진 들보 위를 더듬으며 움직였다. 나는 공포에 질려 굳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기계 몸체 가장자리에 있는 일종의 유리판 너머로 화성인의 얼굴이라 부를 만한 형체와 커다란 검은 눈이 보였다. 화성인이 안을 살피고 있었다. 이어 길고 금속성 느낌이 나는 뱀 같은 촉수가 구멍을 통해 천천히 더듬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안간힘을 써 몸을 돌리다 부목사에게 걸려 비틀거렸고, 세척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화성인의 촉수는 이미 방 안으로 두 야드 이상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기이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뒤틀리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느릿하고 불규칙한 전진을 넋을 잃은 채 한동안 바라만 보았다. 그러다 이윽고 가냘프고 신 목소리로 비명을 내지르며, 나는 억지로 세척실을 가로질러 나갔다. 몸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나는 석탄 저장고 문을 열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부엌 입구를 응시

하며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화성인이 나를 보았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벽을 툭툭 건드리기도 했고,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듯한 가냘픈 금속음을 내며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무거운 물체가 바닥을 훑으며 주방 입구 쪽으로 끌려왔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나는 문가로 기어가 주방 안을 살짝 엿보았다. 밝은 햇살이 삼각형 모양으로 비치는 곳에 화성인이 있었다. 화성인은 거대한 브리아레우스 같은 조작 기계에 올라탄 채 부목사의 머리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에게 가했던 타격의 흔적을 보고 화성인이 나의 존재를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즉시 들었다.

나는 석탄 저장고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땀감과 석탄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몸을 덮었다. 나는 문득문득 몸을 굳힌 채 멈춰 서서, 화성인이 다시 그 틈 사이로 축수를 들이밀지는 않는지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희미한 금속성 찰랑거림이 다시 들려왔다. 나는 주방 곳곳을 더듬으며 그 소리를 천천히 따라갔다. 곧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내 짐작으로는 세척실 쪽이었다. 소리가 내게까지 닿기에는 그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소리는 지하실 문을 긁으며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참기 힘든 긴장감이 영겁의

시간처럼 이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문고리를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문을 찾아낸 것이다! 화성인은 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잠시 동안 걸쇠를 건드리며 뒤척이더니, 이윽고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그 물체가 겨우 보였다. 무엇보다도 코끼리의 코와 흡사한 그것이 나를 향해 휘둘러지더니, 벽과 석탄, 나무, 그리고 천장을 건드리고 살피고 있었다. 마치 검은 벌레가 눈먼 머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번은 그것이 내 장화 뒷굽에 닿기까지 했다.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손등을 깨물었다. 한동안 촉수는 움직임 없이 고요했다. 나는 그것이 다시 물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것이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것이 나를 잡은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촉수는 다시 지하실 밖으로 나가는 듯했다. 잠시 동안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석탄 덩어리를 집어 들어 살펴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몸을 조금 움직여 좁고 불편해진 자세를 고쳐 잡은 뒤,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부디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때 다시금 느릿하고 의도적인 소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다가왔다. 벽을 긁어대고 가구를 툭툭 건드리며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의구심이 채 가시기도 전, 그것은 지하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것이 식료품 저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스킷 통들이 달그락거리고 병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지하실 문을 둔탁하게 들이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정적이 찾아왔다.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영원처럼 이어지는 정적이었다.

이미 떠난 것인가?

마침내 나는 그것이 그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식기 세척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열흘째 되는 날 내내 석탄과 장작더미 사이에 파묻힌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목이 타들어 갈 듯 갈증이 났지만, 물 한 모금을 마시려 밖으로 기어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안전한 은신처를 벗어나 모험을 감행한 것은 열한 번째 날이 되어서였다.

BOOK TWO · 제V장

정적.

식료품 저장실로 들어가기 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방과 세척실 사이의 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장실은 비어 있었다. 음식은 단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았다. 화성인이 전날에 이미 전부 가져간 모양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절망했다. 열한 번째 혹은 열두 번째 날이 되었을 때, 나는 음식은 물론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했다.

처음에는 입과 목이 바짝 말라붙었고, 기운도 눈에 띄게 빠져나갔다. 나는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채, 어두컴컴한 세척실 한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을 것 생각뿐이었다. 구덩이 안에서 들려오던 움직임의 소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탓에, 나는 귀가 먹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살금살금 살펴볼 구멍까지 기어갈 기력조차 없었기에, 그곳으로 가보지는 못했다.

열두 번째 날이 되자 목구멍에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 나는 화성인들을 놀라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싱크대 옆에 놓인 빼걱거리는 빗물 펌프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검게 변하고 오염된 빗물을 유리잔으로 두 잔 정도 받아 마셨다. 그 물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또한 펌프질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러 다가오는 축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그 무렵 나는 부목사와 그가 맞이한 죽음의 방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두서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열세 번째 날, 나는 물을 좀 더 마셨다. 그러다 꾸벅꾸벅 졸기도 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막연하고 실현 불가능한 탈출 계획을 떠올리곤 했다. 잠결에는 부목사의 죽음이나 호화로운 만찬 같은 끔찍한 환영들이 꿈에 나타났다.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나는 계속해서 물을 마시게 만드는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세척실로 스며드는 빛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다. 혼란에 빠진 내 상상력 속에서 그 빛은 마치 피의 색처럼 보였다.

열나흘째 되는 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붉은 잡초의 잎사귀들이 벽에 난 구멍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붉은 잡초 때문에 주방 안으로 스며들던 희미한 빛마저 차단되어, 실내는 온통 붉은빛이 감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15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다. 주방에서 낮익으면서도 기묘한 소리들이 연이어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보니 개가 쿵쿵거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주방으로 가보니 붉은 잎사귀들 사이로 벌어진 틈을 통해

개의 코가 안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무척 놀랐다. 개는 내 냄새를 맡더니 짧게 짖었다.

그를 조용히 이곳으로 유인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죽여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설령 먹지 못하더라도 그를 죽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가 하는 행동이 화성인의 주의를 끌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개야!"라고 아주 나직하게 속삭이며 앞으로 살금살금 다녔다. 하지만 개는 갑자기 머리를 쭉 빼더니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귀가 먹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덩이는 분명 고요했다. 새의 날갯짓 같은 소리와 거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뿐,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한동안 구멍 가까이에 몸을 붙인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구멍을 가로막고 있는 붉은 식물들을 감히 옆으로 치울 엄두는 내지 못했다. 한두 번쯤, 저 멀리 아래 모래 위를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듯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새가 내는 듯한 소리들도 몇 번 들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마침내 정적이 이어지자 용기를 얻은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구덩이 한쪽 구석, 화성인이 먹어 치운 시체들의 유골을 두고 수많은 까마귀가 모여들어 쪼고 싸우는 곳을 제외하면, 그곳에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기계 장치가 사라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 쌓인 회청색 가루 더미와 다른 쪽의 알루미늄 막대들, 검은 새들, 그리고 죽은 이들의 유골을 제외하면, 그곳은 그저 모래 위에 뚫린 텅 빈 원형 구덩이에 불과했다.

나는 붉은 잡초를 헤치고 천천히 몸을 밀어 올린 뒤, 잔해 더미 위에 섰다. 뒤쪽인 북쪽을 제외하면 어느 방향이든 내 시야에 들어왔으나, 화성인이나 화성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발밑으로는 구덩이가 깎아지른 듯 깊게 패어 있었지만, 쓰레기 더미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폐허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가 나타났다. 탈출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다 이내 절박한 결심이 치밀어 올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나는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흙더미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다.

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북쪽 방향에서도 화성인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대낮에 이 쉼(Sheen) 지역을 보았을 때,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이 곳곳에 어우러진, 하얗고 붉은 집들이 늘어선 아늑한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부서진 벽돌과 진흙, 자갈이 뒤섞인 언덕뿐이었다. 그 언덕 위로는 무릎 높이까지 자란 붉은 선인장 모양의 식물들이 뻗뻗하게 퍼져 있었고, 그 식물들의 세력을 위협할 만한 지상의 식물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내 근처의 나무들은 이미 말라 죽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으나,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는 붉은 실 같은 줄기들이 아직 살아 있는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 그 물처럼 뒤덮고 있었다.

이웃집들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불에 타지는 않았다. 창문은 박살 나고 문은 산산조각이 난 채, 어떤 집들은 2층 높이까지 벽체가 그대로 서 있었다. 지붕이 사라진 방 안에는 붉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내 발아래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었고, 까마귀들이 그곳에 쌓인 쓰레기를 뒤지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다른 새들도 폐허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멀리서 빼만 남은 듯한 고양이 한 마리가 벽을 따라 몸을 낮게 웅크린 채 살금살금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만, 그곳에서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최근 겪었던 감금 생활과 대조적으로, 그날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고 하늘은 빛나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빈 땅을 날날이 뒤덮은 붉은 잡초는 부드러운 미풍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다. 아, 공기가 어찌나 달콤하던지!

BOOK TWO · 제VI장

보름 동안 벌어진 일.

나는 한동안 내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틀거리며 언덕 위에서 있었다. 그 불쾌한 소굴에서 막 빠져나왔을 때만 해도, 나는 오로지 당장 우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만 좁은 시야로 몰두하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눈앞에 펼쳐진 이 낯설고 경악스러운 광경을 예상하지도 못했다. 나는 쉰(Sheen) 마을이 폐허가 된 모습만을 떠올렸으나, 정작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른 행성의 기괴하고도 섬뜩한 풍경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인간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범위를 넘어선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배하는 가련한 짐승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감정이기도 했다. 마치 토끼가 자신의 굴로 돌아왔다가, 집 터를 닦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수십 명의 인부와 맞닥뜨렸을 때 느낄 법한 기분이었다. 나는 곧 머릿속에서 명확해질 어떤 징조를 처음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이후 며칠 동안 나를 짓눌렀던 감각이었다. 바로 내가 왕

좌에서 쫓겨났다는 감각,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화성인의 발밑에 놓인 수많은 동물 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확신이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은 저들의 운명과 같아질 것이다. 숨죽여 지켜보고, 도망치고, 몸을 숨기는 처지가 될 것이다. 인간의 공포와 제국은 이제 끝났다.

기이한 상황을 깨닫자마자 그 감각은 이내 사라졌다. 대신 오랫동안 이어온 처절한 굶주림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구덩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붉은 덮개로 뒤덮인 벽 너머로,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정원 한쪽이 보였다. 무언가 희망이 보였다. 나는 붉은 잡초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무릎까지, 때로는 목까지 잠길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다. 잡초가 워낙 뻥뻥하게 우거진 덕분에 몸을 숨겼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벽의 높이는 약 6피트였다. 기어오르려 애써 보았지만, 발을 들어 꼭 대기까지 닿을 수가 없었다. 결국 벽을 따라 옆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모퉁이에 있는 바위 지형을 발견했고, 덕분에 벽 위로 올라가 갈망하던 정원 안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양파 몇 개와 글라디올러스 알뿌리 두어 개, 그리고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당근들을 찾아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챙겼다.

이어 무너진 담장을 허겁지겁 넘어, 진홍빛과 선홍빛으로 물든 나무들 사이를 지나 큐(Kew)를 향해 나아갔다. 마치 거대한 핏방울이 늘어선 가로수길을 걷는 기분이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뿐이었다. 더 많은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그리고 기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

한 빨리, 최대한 멀리 이 저주받은 외계의 구덩이로부터 절뚝거리며 벗어나는 것이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풀밭에는 버섯 무리가 있었는데, 나 역시 그것들을 먹어 치웠다. 그러다 예전에 초원이 있던 자리에는 얇은 물이 찰랑거리며 흐르는 갈색 수면이 나타났다. 이런 음식 조각들은 오히려 내 허기만 더 돋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이토록 덥고 건조한 여름에 어찌 이런 범람이 일어났는지 의아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붉은 잡초의 열대적인 번식력 때문이었다. 이 비정상적인 식물은 물을 만나면 즉시 거대하게 자라났으며, 비할 데 없는 번식력을 보였다. 붉은 잡초의 씨앗은 웨이강과 템스강의 물속으로 그대로 쏟아져 들어갔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난 거대한 수초들은 순식간에 두 강을 뒤덮어 버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퍼트니에서는 이 잡초가 뒤엉켜 다리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리치먼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템스강의 물줄기가 햄프턴과 트위컴의 초원을 가로질러 넓고 얇은 흐름을 이루며 흘러들었다. 물이 퍼져 나가는 곳마다 붉은 잡초도 함께 번져 나갔다. 결국 템스 계곡의 폐허가 된 빌라들은 한동안 이 붉은 늪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나는 그 늪의 가장자리를 조사했는데, 그곳에서는 화성인이 초래한 황폐한 모습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었다.

결국 붉은 잡초는 번식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멸했다. 특정 박테리아의 작용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치명적인 병이 붉은 잡초를 덮쳤다.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박테리아 질병에 저항할 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식물들은 격렬한 투쟁 없이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붉은 잡초는 마치 이미 죽어 있던 생물처럼
속절없이 썩어 들어갔다. 잎사귀들은 색이 바래더니, 이내 시들고 부
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살짝만 건드려도 잎들은 툭툭 끊어져 나갔
고, 초기 성장을 도왔던 물줄기는 붉은 잡초의 마지막 흔적들까지 바다
로 쓸어갔다.

이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갈증을 해
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을 아주 많이 마셨다. 그러다 문득 충동이 일
어 붉은 잡초의 잎사귀를 몇 개 뜯어 씹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붉은 잡
초는 수분이 많으면서도 비릿한 금속 맛이 났다. 물은 붉은 잡초 때문
에 발에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내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았다. 다만 강 쪽으로 갈수록 물살이 분명히 깊어지는 것 같
아, 나는 다시 모틀레이크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곳곳에 남아 있는
별장 잔해와 울타리, 가로등을 이정표 삼아 간신히 길을 찾아 나갔다.
곧 범람한 물줄기를 벗어난 나는 로햄프턴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퍼트니 공유지에 다다랐다.

풍경은 기이하고 낯선 모습에서, 익숙했던 것들이 처참히 부서진 모
습으로 바뀌었다. 어떤 땅은 마치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듯 황폐해져
있었으나, 불과 수십 야드만 가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평온한 공
간이 나타나기도 했다. 집들은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듯 블라인드가
단정하게 내려져 있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 거주자들이 잠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붉은 잡초는 예전만큼 흔하지 않았다. 길을
따라 늘어선 키 큰 나무들에도 붉은 덩굴은 붙어 있지 않았다. 나는 나
무 사이를 뚫리며 먹을 것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적막

에 잠긴 집 두 채도 뒤져 보았지만, 이미 누군가 침입해 살살이 뒤져 놓은 상태였다. 기력이 쇠한 탓에 더는 나아갈 힘이 없었던 나는 남은 낮 시간 동안 관목 숲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다.

그동안 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고, 화성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배가 고파 보이는 개 두 마리를 마주치기도 했으나, 내가 다가가자 두 마리 모두 멀리 우회해서 도망쳐 버렸다. 로햄프턴 근처에서는 사람의 유골 두 구를 보았다. 시신이 아니라 뼈만 남은 상태였다. 숲속에서는 고양이와 토끼 여러 마리의 으스스하고 흩어진 뼈와 양의 해골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들을 입에 넣고 씹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먹을 것도 얻을 수 없었다.

해 질 녘이 되어서야 나는 퍼트니를 향해 길을 따라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열선이 사용되었던 곳인 듯했다. 로햄프턴 너머에 있는 어느 정원에서 나는 아직 다 익지 않은 감자를 꽤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그 정원에서 퍼트니 마을과 강이 내려다보였다. 황혼 속의 풍경은 유독 황량했다. 검게 그을린 나무들과 검고 황폐한 폐허들이 보였고, 언덕 아래로는 붉은 잡초로 물든 강물이 범람하여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은 정적뿐이었다. 이토록 파괴적인 변화가 얼마나 순식간에 닥쳐왔는지를 생각하니,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한동안 나는 인류가 멸종했고, 나만이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으로서 홀로 이곳에 서 있다고 믿었다. 퍼트니 언덕 꼭대기 근처에서 나는 또

다른 유골을 발견했다. 팔이 탈구된 채 몸통에서 몇 야드나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길을 계속 나아가며 나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다. 나처럼 겨우 살아남은 낙오자들을 제외하면, 이 지역에서 인류의 절멸은 이미 끝난 상태라는 사실을 말이다. 화성인들은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아 떠나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나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베를린이나 파리를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북쪽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다.

BOOK TWO · 제VII장

퍼트니 언덕의 사내.

그날 밤 나는 퍼트니 언덕 꼭대기에 있는 여관에서 묵었다. 레더헤드로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그 집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채 걸려만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음식을 찾아 방마다 살살이 뒤졌던 일도 말하지 않겠다. 절망하기 직전, 하인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쥐가 갇아먹은 빵 조각과 파인애플 통조림 두 개를 겨우 찾아냈을 뿐이었다. 그곳은 이미 누군가 훑고 지나가며 물건을 다 가져간 상태였다. 나중에 술집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비스킷과 샌드위치를 좀 찾기도 했다. 샌드위치는 너무 상해서 먹을 수 없었지만, 비스킷은 허기를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 혹시라도 화성인이 밤중에 먹을 것을 찾아 런던의 이 근처를 휩쓸고 다닐까 두려워 등불은 켜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창문마다 서성이며 그 괴물들의 흔적이 있는지 밖을 살폈다. 잠은 거의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으

니 생각이 차례차례 이어졌다. 부목사와 마지막으로 논쟁을 벌인 이후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나의 정신 상태는 막연한 감정들이 급하게 교차하거나, 혹은 멍하니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반복될 뿐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아마도 먹은 음식 덕분에 기운을 차린 뇌가 다시 맑아지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세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뒤엉켰다. 부목사를 죽인 일, 화성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아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였다. 부목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는 공포나 후회 같은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일어난 일을 떠올릴 뿐이었다. 무척 불쾌한 기억이긴 했으나, 결코 후회라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의 나를 지금의 내가 바라보듯 생각했다. 나는 그저 닥쳐온 상황에 떠밀려 서둘러 그 일격을 가했을 뿐이었다. 일련의 우연한 사고들이 나를 필연적으로 그 순간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정지된 채 나를 괴롭혔다. 고요한 밤, 때때로 정적과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신의 임재를 느끼며, 나는 그 찰나의 분노와 공포에 대해 나 자신을 심판했다. 그것은 내 생애 유일한 심판이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던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갈증도 잊은 채 내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한 순간부터, 웨이브리지의 폐허에서 피어오르는 불길과 연기를 그가 가리키던 그 순간까지 말이다.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혹한 운명은 우리의 그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예견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를 해리퍼드에 남겨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견하지 못했

다. 예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온 방식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적는다. 목격자는 없었다. 이 모든 사실을 숨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록하기로 했으니,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간신히 머릿속에서 쓰러진 시신의 잔상을 떨쳐냈을 때, 내 앞에는 화성인의 정체와 아내의 운명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화성인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전혀 없었으나, 아내의 운명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온갖 상상이 가능했다. 그 순간, 그날 밤은 공포로 다가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열선이 갑자기 아내를 내리쳐,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렸기를 간절히 바랐다. 레더헤드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미신처럼 중얼거리거나 이교도들이 주문을 외듯 읊조린 적은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신의 어둠을 마주한 채, 간절하고도 이성적으로 매달렸다.

참으로 기묘한 밤이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신과 대화를 나눈 내가 동이 트자마자 마치 은신처를 떠나는 쥐처럼 집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갔다는 사실이다. 나는 겨우 몸집이 조금 더 큰, 열등한 생물에 불과했다. 주인들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사냥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다. 어쩌면 그들도 신에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 다른 것은 배우지 못했는지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배웠다. 그것은 바로 연민이다. 우리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저 어리석은 영혼들에 대한 연민 말이다.

아침은 밝고 화창했다. 동쪽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작은 금빛 구름들이 그 사이로 흩어져 있었다. 퍼트니 힐 정상에서 워블던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전투가 시작된 일요일 밤 런던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왔을 공포의 행렬이 남긴 초라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부서진 바퀴를 단 이륜 수레 하나가 버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뉴 말든의 채소 장수 토마스 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버려진 양철 트렁크도 보였다.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흙 속에는 밀짚모자가 짓밟힌 채 박혀 있었고, 웨스트 힐 꼭대기에는 뒤집힌 물통 주변으로 피가 묻은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무기력하게 움직였고, 계획도 막연했다. 리더헤드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내와 사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면, 분명 그곳을 떠나 피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리 지역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곳에 가면 찾거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인간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이 아려왔지만, 정작 어떻게 아내를 찾아야 할지는 막막하기만 했다. 또한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극심한 고독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길모퉁이를 돌아 나무와 덩불이 우거진 곳을 지나, 끝없이 펼쳐진 워블던 공유지의 가장자리로 향했다.

어두운 벌판 곳곳에는 노란 가시금작화와 금작화가 점점이 피어 있었다. 붉은 잡초는 보이지 않았다. 탁 트인 벌판의 가장자리를 망설이며 서성거리던 그때, 태양이 떠오르며 온 세상을 빛과 생명력으로 가득

채웠다. 나무 사이 습지에서는 작은 개구리 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보았다.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곳곳한 의지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이 들어 급히 몸을 돌렸다. 그러자 덩불 사이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응시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것은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커틀러스를 든 한 남자였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도 나만큼이나 옷이 먼지투성이에 더러워져 있었다. 마치 배수로를 따라 질질 끌려온 사람 같은 몰골이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말라붙은 점토의 창백한 갈색 위로 도랑의 초록색 진흙과 번들거리는 석탄 가루 같은 얼룩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은 눈을 가릴 정도로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검고 더러운 데다 움푹 패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의 얼굴 하단에는 붉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멈춰!” 내가 그에게 10야드 이내로 다가갔을 때 그가 외쳤고, 나는 발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어디서 오는 건가?”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찬찬히 살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트레이크에서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화성인들이 원통을 박아 넣으려고 판 구덩이 근처에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든 길을 찾아 빠져나 왔습니다.”

“이 근처에는 먹을 게 없소.” 그가 말했다. “여긴 내 땅이라오. 강가에서부터 클랩햄을 지나 공유지 끝자락까지 이어지는 이 언덕 전체가 다 내 땅이란 말이오. 먹을 건 딱 한 사람분뿐이지.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집이 무너진 잔해 속에 열서너 날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움찔하며 표정을 싹 바꾸었다.

“이 근처에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레더헤드로 가야겠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는 손가락을 내밀어 한 곳을 가리켰다.

“당신이군요.” 그가 말했다. “워킹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웨이브리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군요?”

나 역시 그를 보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당신이 내 정원으로 들어왔던 그 포병이군요.”

“이런 행운이!” 그가 말했다. “우린 운이 좋은 거야! 당신 같은 사람까지 살아남다니!”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맞잡았다. “나는 하수구 속을 기어서 빠져나왔어.”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전부 죽인 건 아니었거든. 놈들이 떠난 뒤에 들판을 가로질러 월턴 쪽으로 도망쳤지. 그런데…… 채 열여섯 날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신 머리가 벌써 희끗해졌군.” 그는 갑자기 어깨너머를 돌아보았다. “그저 까마귀 한 마리였어.” 그가 말했다. “요즘은 새에게도 그림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여기는 너무 탁 트였어. 저 덩불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화성인을 보았습니까?” 내가 물었다. “내가 기어서 나온 이후로 말입니다.”

“그놈들은 런던 너머로 이동했어요.” 그가 말했다. “아마 그곳에 더 큰 진지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밤마다 햄프스테드 쪽 하늘을 보면 그놈들의 불빛으로 가득해요. 마치 거대한 도시 같죠. 그 눈부신 빛 속에서는 놈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더 가까이서는—그놈들을 못 봤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쥘으며 헤아렸다. “닷새째예요. 그러다 해머스미스 쪽에서 뭔가 커다란 것을 옮기는 놈 둘을 봤어요. 그리고 그저께 밤에는—” 그는 말을 멈추더니 아주 인상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그저 불빛뿐이었지만, 분명 공중에 무언가 떠 있었어요. 내 생각엔 그놈들이 비행 기계를 만들어서 날아다니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덩불 근처에 다다랐기에,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멈춰 섰다.

“난다고!”

“그래요,” 그가 말했다. “납니다.”

나는 작은 숲속 은신처로 더 깊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인류는 이제 끝났소.” 내가 말했다. “저들이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휘저으며 돌아다니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곳의 상황도 조금은 나아지겠지요. 게다가——”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인류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몰락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가 입을 열기 전까지 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평생 그래왔던 사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우린 졌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 말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 끝났어.” 그가 말했다. “놈들은 단 한 대를 잃었을 뿐이야. 고작 한 대라고. 그런데도 이미 발판을 단단히 마련했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을 무력화시켰어. 놈들은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고 있어. 웨이브리지에서 그 한 대가 파괴된 건 그저 우연이었을 뿐이야.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시작에 불과해. 놈들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어. 저 초록색 별들 말이야. 지난 대엿새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 매일 밤 어딘가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이제 손쓸 방법이 없어. 우리는 패배했어! 완전히 졌단 말이야!”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그 생각에 맞설 만한 반론을 떠올려 보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포병이 말했다. “인간과 개미 사이에 전쟁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듯, 이것도 결코 전쟁이 아닙니다.”

문득 천문대에서 보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열 번째 발사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쏘지 않았소—적어도 첫 번째 원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포병이 물었다.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대포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

“설령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다시 고쳐 쓰면 그만이지. 설령 시간이 좀 지체된다 해도 결말이 달라지겠나? 이걸 그저 인간과 개미의 싸움일 뿐이야. 개미들도 자기들만의 도시를 짓고, 삶을 영위하며, 전쟁과 혁명을 일으키곤 하지. 그러다 인간이 길을 비키라고 하면, 개

미들은 결국 길을 비키게 되어 있어. 지금 우리의 처지가 딱 그 꼴이야.
그저 재미일 뿐이지. 다만……”

“그렇소.” 내가 말했다.

“우리는 잡아먹히는 재미일 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내가 물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이지 제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웨이브리지를 떠나 남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흥분해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는 쪽은 아닙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저는 장식용 군인이 아닙니다. 좋은 나쁜 죽음이란 그저 죽음일 뿐이죠. 결국 끝까지 생각하며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먹을 게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이 들어 곧장 되돌아왔습니다. 참새가 사람 곁으로 모여들듯, 저는 화성인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그가 지평선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사람들이 떼로 굶주리고, 달아나고, 서로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는 어색하게 말을 멈췄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분명 프랑스로 피신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하더니, 내 눈을 맞추고 말을 이었다. “이 근처에는 먹을 게 널려 있습니다. 상점에는 통조림이 있고, 와인이나 독주, 광천수도 있죠. 상수도과 하수도도 비어 있고요. 음, 방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라고요. 우선 그들은 우리를 박살 낼 겁니다. 배와 기계, 대포, 도시,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질서와 조직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개미만 한 크기였다면 버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아내기엔 우리가 너무 거대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미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딱 걸려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화성인은 불과 몇 마일만 이동해도 사람들을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완즈위스 근처에서 화성인 한 마리가 집들을 산산조각 내고 잔해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대포와 군함을 무력화하고 철도를 박살 낸 뒤, 저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체계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상태가 좋은 인간들을 골라내어 우리를 우리 같은 곳에 가두고 저장하려 들 겁니다. 머지않아 바로 그 일을 시작할 겁니

다. 세상에! 아직 우리에게는 손도 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외쳤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전부 우리가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탓이야. 총을 쏘는 식의 어리석은 짓으로 놈들을 자극했으니까. 게다가 이성을 잃고는, 원래 있던 곳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군중을 이루어 무작정 몰려가기까지 했지. 놈들은 아직 우리를 괴롭힐 생각이 없어. 그저 자기들의 물건을 만들고 있을 뿐이야. 가져오지 못한 것들을 만들며, 남은 동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마 그래서 원통들이 잠시 멈춘 걸 거야. 이미 와 있는 자기 동족을 맞힐까 봐 조심하는 거지.

우리는 비명 소리에 놀라 눈먼 듯 허둥대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이너마이트를 구해 놈들을 폭파하려 애쓰는 대신, 바뀐 상황에 맞춰 스스로를 정비해야 해. 내 판단은 이래. 인류가 자기 종을 위해 바라는 바와는 거리가 멀겠지만,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이거야. 나도 그 원칙에 따라 행동했어. 도시, 국가, 문명, 진보—전부 끝났어. 그 판은 끝났다고. 우리가 졌어.”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포병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백만 년쯤은 그 잘난 음악회 따위 더는 없을 걸세. 왕립 미술원도 사라질 거고, 식당에서 즐기던 근사한 식사도 더는 못 하겠지.

만약 자네가 즐거움을 찾는 거라면,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할 거야. 거실에서 갖춰야 할 예절이라든가, 칼로 완두콩을 먹는 걸 싫어하는 취향, 혹은 ‘h’ 발음을 빠뜨리길 꺼리는 습관 같은 게 있다면 그냥 다 버려두게나. 이제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그 말은 즉——”

“내 말은, 나 같은 인간들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살아남을 거라는 뜻이야. 분명히 말해두지만, 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해. 그리고 내 짐작이 맞다면, 당신도 머지않아 당신 안에 어떤 기개가 있는지 보여주게 될 거야. 우린 결코 전멸당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저 짐승 같은 황소처럼 붙잡혀 길들여지고, 살이 오를 때까지 사육당할 생각도 추호도 없단 말이지. 음! 저 갈색 덩굴 식물들을 좀 봐!”

“설마 그게 무슨——”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밑을 파고들 겁니다. 이미 계획도 세웠고, 모든 생각을 마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패배했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회를 잡기 전에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동안 살아남아야 하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남자의 결단력에 경악하며, 깊은 감명을 받은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세상에!” 내가 외쳤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의 손을 짚 움켜쥐었다.

“어때!” 그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내가 아주 잘 생각해냈지, 안 그래?”

“계속해 보게.” 내가 말했다.

“자, 포획망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할 거요. 나도 준비 중이고. 명심하시오, 우리 모두가 야수에게 맞설 재목은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은 분명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켜봤던 거요. 의구심이 들었거든. 당신은 호리호리하군. 사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로 묻혀 있었는지 잘 몰랐으니까 말ियो. 이 집에 살던 부류나, 저쪽 길 아래 살던 그 빌어먹을 말단 서기 놈들은—전부 소용 없을 거요. 그놈들에겐 기개라는 게 없거든. 고결한 꿈도, 고결한 욕망도 없단 말ियो. 꿈도 욕망도 없는 인간이라니—맙소사! 겁쟁이처럼 몸 사리는 것 말고 그게 다 무엇이란 말ियो? 그저 일터로 허겁지겁 도망치듯 달려가기 바쁜 놈들이었지. 내가 수백 명은 봤소. 아침 식사라도 손에 든 채로, 제때 기차를 못 타서 해고될까 봐 겁에 질려 허둥지둥 뛰어가는 꼴을 말ियो. 제대로 이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터에서 일하며, 저녁 식사 시간에 늦을까 봐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고, 뒷골목이 무서워 저녁을 먹고 나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놈들 말ियो.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비참하고 짧은 인생을 안전하게 도망치듯 살아가기 위해 모아둔 돈 때문이었지. 사고가 날까 두려워 보험을 들고 조금씩 저축하며 말ियो. 일요일에는 사후 세계가 두려워 종교를 찾고. 마치 지옥이 토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यो!

글쎄, 화성인들이 나타나는 건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늘이 내린 선물일 거요. 넓고 안락한 우리, 살찌우기 좋은 먹이, 세심한 번식 관리, 걱정 없는 삶이라니. 빈속으로 들판과 땅을 헤매며 일주일쯤 도망치다 보면, 결국 기쁘게 잡혀 올 거요. 조금 지나면 아주 만족해하겠지. 화성인이 나타나 돌봐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할 정도가 될 거요. 술이나 마시는 백수나, 여자나 꼬시는 놈들이나, 노래나 부르는 놈들도 눈에 선하구려. 눈에 선해.” 그는 마치 어두운 만족감에 젖어 말했다. “그놈들 사이에서는 온갖 감상주의와 종교가 판을 칠 거요. 지난 며칠 사이,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제야 비로소 명확히 깨닫기 시작한 것들이 수백 가지나 되니까 말ियो.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찌고 멍청하게 지낼 놈들이 태반이겠지만,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느끼며 괴로워할 놈들도 많을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이 오면, 약한 자들이나 복잡한 생각에 빠져 나약해진 자들은 언제나 아주 경건하고 고결한 척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지. 그러고는 박해를 견디며 주님의 뜻에 순응하려 들 거요. 당신도 분명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거요. 겁에 질린 상태에서 에너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다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꼴 말ियो. 이 우리 안은 찬송가와 성가, 그리고 경건함으로 가득 차겠지.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 단순한 놈들은 거기에—그게 뭐였더라?—음란함까지 좀 섞어 넣을 테고 말ियो.”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마도 화성인들은 그들 중 몇몇을 애완용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채주를 부리도록 길들일 수도 있겠지요. 누가 알겠습니까? 애완용으로 키우던 소년이 자라나서 결국 죽여야만 하게 되었을 때, 화성인들이 감상에 젖어 슬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면, 우리를 사냥하도록 길들여진 이들도 생겨날지 모릅니다.”

“아니야!” 내가 외쳤다. “그럴 리 없어! 그건 불가능해!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무엇하겠소?” 포병이 말했다. “기꺼이 그런 짓을 할 인간들도 있소. 그런 자들이 없는 척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결국 나는 그의 확신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들이 나를 쫓아온다면,” 그가 말했다. “맙소사, 만약 그들이 나를 쫓아온다면!” 그는 말을 마치고는 암울한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나는 이 사실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낼 길은 없었다. 침공이 시작되기 전이었다면, 그와 나의 지적 우월함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전문 작가로 인정받던 나와, 평범한 병사에 불과한 그를 비교한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황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이윽고 물었다. “어떤 계획을 세워 두었나?”

그는 주춤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번식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는 일종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길들여진 자들은 모든 길들여진 짐승처럼 변할 겁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몸집은 커지고 외양은 아름다워지고 혈색도 좋아지겠지만, 머리는 나빠지겠지요. 그저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문제는 야성을 유지하려는 우리가 야만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거대하고 야만적인 쥐 떼처럼 퇴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 . 아시다시피, 저는 지하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수도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하수도라고 하면 끔찍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런던 아래에는 수 마일, 아니 수백 마일에 달하는 하수도가 깔려 있습니다. 며칠만 비가 내려 런던이 텅 비게 되면, 하수도는 아주 쾌적하고 깨끗해질 겁니다. 주요 하수도는 누구나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통풍도 잘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실이나 지하 저장고, 석실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수도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를 만들 수도 있겠지요. 철도 터널과 지하도도 있고요. 자,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건장하고 정신이 맑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만들 겁니다. 떠도는 부랑자들을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약한 자들은 다시 밖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가 가기를 바랐던 건가요?”

“글쎄요, 제가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겠네. 계속하게.”

“남는 자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건장하고 정신이 맑은 여성들도 필요합니다. 어머니나 교사 같은 이들 말입니다. 나약하거나 눈을 굴리며 추파나 던지는 여자들은 안 됩니다. 약해 빠졌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삶은 다시 치열해졌고, 쓸모없고 거 추장스러우며 말썽만 피우는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인류라는 종을 더럽히며 살아남는 것은 일종의 불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자들은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그 자체는 그리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끔찍하게 만드는 건 바로 겁을 집어먹는 일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장소에 모일 겁니다. 우리가 맡을 구역은 런던이 될 것이고요. 화성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감시를 계속하면서 탁 트인 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크리켓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건 그저 쥐새끼처럼 살아남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지식을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책도 있고 모형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아주 안전한 장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책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설이나 시 따위의 가벼운 책이 아니라, 사상과 과학 서적 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영박물관으로 가서 그 책들을 살살이 골라내야 합니다. 특히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고 더 많이 배

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화성인들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첩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모든 계획이 궤도에 오르면 저도 아마 그렇게 하겠지요. 들키는 역할을 맡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화성인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의 앞길을 막게 된다면 즉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화성인들은 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우리가 그저 해롭지 않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냥하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포병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갈색빛이 도는 손을 내 팔 위에 얹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네. 자, 한번 상상해 보게나. 화성인의 조종사도 없이, 전투 기계 네댓 대가 갑자기 출동하는 모습을 말이야. 열선을 좌우로 마구 쏘아대면서 말이지. 화성인은 한 명도 없고, 대신 인간이 타고 있는 거라네. 그 작동법을 터득한 인간들이 말이야. 어쩌면 내 시대에 그런 인간들이 나타날지도 모르지. 그 멋진 기계 중 하나를 내가 갖게 된다고 상상해 보게! 열선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말이야! 그 기계가 내 통제하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한바탕 휘저어 놓은 뒤에, 마지막에 박살이 나면 좀 어떤가? 내 생각엔 화성인들도 그제야 눈을 번쩍 뜨게 될 걸세! 자네,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인간들이 서둘러, 서둘러 움직이는 모습이 말이야. 다른 기계 장치들을 향해 씩씩거리며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매번 기계가 어긋나서 덜컹거리고, 쉿,

랑, 달그락, 싹! 인간들이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열선이 싹 하고 날아오면, 보게나! 드디어 인간이 주도권을 되찾는 거라고!”

한동안은 포병의 대단한 상상력과 그가 내뿜는 확신에 찬 용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다. 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의 예측은 물론, 그 놀라운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도 추호의 의심 없이 믿었다. 만약 독자가 나를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주제에 몰입해 차분히 글을 읽는 독자의 입장과, 두려움에 정신을 못 차린 채 덩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귀를 기울이던 나의 입장을 대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른 아침 내내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나중에 덩불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하늘에 화성인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살핀 뒤, 우리는 포병이 은신처로 삼은 퍼트니 힐의 집을 향해서둘러 달려갔다. 그곳의 석탄 저장실이 그의 거처였다. 그가 일주일 동안 공들인 작업물을 보았을 때, 나는 그의 꿈과 능력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가 만든 구멍은 길이가 채 10야드도 되지 않는 굴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퍼트니 힐의 하수관까지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런 구멍쪼은 나라도 하루면 뚫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충분히 신뢰했기에, 정오가 넘을 때까지 그와 함께 땅을 파는 일을 도왔다. 우리는 정원용 외바퀴 수레를 가져와 파낸 흙을 부엌 난로 옆에 쌓아 두었다. 그러다 통조림에 든 거북이 고기 맛 수프와 인근 찬장에서 가져온 와인으로 허기를 달랬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노동 덕분에, 세상이 낯설고 괴이하게 느껴져 생기던 통증으로부터 기묘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그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러자 곧 반론과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금 목적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기에, 나는 오전 내내 그곳에서 계속 일했다. 한 시간쯤 일했을 때부터, 하수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아예 찾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당장 드는 의문은, 맨홀 중 하나를 통해 하수관으로 곧장 들어간 뒤 집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긴 터널을 파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또한 집의 위치도 부적절해서 불필요하게 긴 터널이 필요해 보였다. 내가 막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려던 참에, 포병이 땅 파는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군.” 그가 말하며 삽을 내려놓았다. “잠시 쉬었다 가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주변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어.”

나는 작업을 계속하자는 쪽이었고, 그도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삽을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내가 동작을 멈추자, 그도 즉시 멈춰 섰다.

“왜 여기 있지 않고 공유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까?” 내가 물었다.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에는 이쪽이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그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매일 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가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삼을 든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제 정찰을 나가야 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 근처로 다가왔을 때, 삼질 소리를 듣고 예기치 않게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더 이상 반대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 사다리 위에 올라선 채, 지붕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다. 화성인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기와 위로 나갔고, 난간의 가림막을 이용해 몸을 낮추며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관목 숲에 가려 퍼트니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보였다. 강물은 붉은 잡초가 뒤섞인 채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고 있었고, 람베스의 저지대 역시 붉은 빛으로 침수되어 있었다. 붉은 덩굴 식물은 옛 궁전 주변의 나무들을 타고 무섭게 번져 나갔다. 덩굴 뭉치 사이로 뺨어 나온 나무의 가지들은 말라 죽은 듯 앙상했고, 시든 잎들만 매달려 있었다. 이 두 현상이 번식하는 데 있어 흐르는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했다. 우리 주변의 식물들은 아직 붉은 잡초에 점령당하지 않았다. 금사슬나무와 분홍색 꽃이 피는 나무, 눈송이꽃, 그리고 측백나무들이 월계수와 수국 사이로 솟아올라 햇빛을 받으며 푸르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켄싱턴 너머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그 연기와 푸른 안개가 북쪽의 언덕들을 가리고 있었다.

포병은 런던에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어느 날 밤이었네.” 그가 말했다. “어리석은 놈들이 전등을 켜놓는 바람에 리전트 스트리트와 서커스 광장 전체가 불을 밝힌 듯 환해졌지. 화려하게 꾸민 놈들이나 누더기를 걸친 취객들이 남녀 가릴 것 없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떠돌썩했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내게 말해주더군. 그러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랭햄 호텔 근처에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전투 기계를 발견했네. 그 기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지는 하늘만이 알겠지. 그 모습에 몇몇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겁에 질렸을 거야. 전투 기계는 길을 따라 사람들을 향해 다가왔고, 도망칠 엄두조차 못할 만큼 취했거나 겁에 질린 사람들을 거의 백 명 가까이 붙잡아 갔네.”

역사가 결코 온전히 기록하지 못할, 기괴한 광채의 시대여!

내 질문에 답하던 그는 다시금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열띤 태도를 보였다. 전투 기계를 생포할 수도 있다는 그의 유창한 설명을 듣고 있자니, 나는 다시금 그의 말을 절반 이상 믿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나는, 그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눈치챌 수 있었다. 또한 이제는 그가 직접 그 거대한 기계를 생포해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잠시 후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우리 둘 다 다시 땅을 파고 들어갈 기색은 아니었다. 그가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 역시 기꺼이 응했다. 그는 갑자기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식사를 마친 뒤에는 어디론가 갔다가 아주 좋은 시가 몇 대를 가져왔다. 우리가 시가에 불을 붙이자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나의 방문을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는 듯했다.

“지하 저장고에 샴페인이 좀 있네.” 그가 말했다.

“이 템스강 변의 버건디 와인을 마셔야 땅을 더 잘 팔 수 있지.” 내가 말했다.

“아니오.” 그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주인이라오. 샴페인이라니! 세상에! 우리 앞에는 이미 충분히 힘겨운 과업이 놓여 있지 않소! 기회가 있을 때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립시다. 이 물질 잡힌 손 좀 보시오!”

그는 휴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카드 게임을 하자고 고집했다. 그는 나에게 유커(euchre)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런던을 반으로 나누어 내가 북쪽을, 그가 남쪽을 맡은 뒤 그 구역을 두고 점수 내기를 했다. 냉철한 독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기괴하고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카드 게임을 비롯해 우리가 함께 즐긴 여러 게임이 내게는 무척 흥미로웠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정신이란 참으로 기이하다! 인류가 멸종의 위기에 처하거나 끔찍한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려, 눈앞에 끔찍한 죽음 외에는 아무런 희

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화려한 카드 몽치에 매달려 '조커'를 내밀며 생생한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으니 말이다. 그 후 그는 내게 포커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치열했던 세 판의 체스 게임에서 그를 이겼다.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기로 하고 등불을 켰다.

끝도 없이 게임이 이어지다 저녁 식사를 마쳤고, 포병은 남은 샴페인을 모두 비웠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가를 피웠다. 그는 아침에 만났던, 그토록 활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아침의 역동적인 모습보다는 훨씬 차분하고 사색적인 낙관이 었다. 그는 단조로운 내용의 연설을 중간중간 끊어가며 내 건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나는 시가를 하나 집어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말했던, 하이게이트 언덕을 따라 초록빛으로 번뜩이던 그 불빛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멍하니 런던 계곡 너머를 바라보았다. 북쪽 언덕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켄싱턴 근처의 불길은 붉게 타올랐다. 이따금 주황빛이 도는 붉은 불꽃이 깊고 푸른 밤하늘 속으로 치솟았다가 사라지곤 했다. 런던의 나머지 지역은 온통 칠흑 같았다. 그러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기이한 빛을 발견했다. 밤바람에 일렁이는, 창백하고 보랏빛이 감도는 형광색 광채였다. 잠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곧 그 희미한 빛이 붉은 잡초에서 뿔어져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잠들어 있던 경외심과 세상의 이치를 가늠하던 감각이 다시 깨어났다. 나는 그 빛에서 서쪽 하늘 높이 붉고 선명하게 빛

나는 화성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햄스테드와 하이게이트의 어둠 속을 오랫동안 간절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지붕 위에 머물며, 오늘 하루가 보여준 기괴한 변화들을 곱씹었다. 자정의 기도부터 어리석게 카드놀이를 하던 순간까지, 그사이 내가 겪은 심리적 변화들을 되짚어 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한 혐오감이 밀려왔다. 마치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도 담으려는 듯, 내가 시가를 내던져 버렸던 기억이 난다. 나의 어리석음이 눈이 시릴 정도로 과장되어 다가왔다. 나는 아내와 인류를 배신한 자처럼 느껴졌고,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나는 거창한 꿈만 꾸며 방종하게 살아가는 이 낯선 몽상가를 술과 탐식 속에 내버려 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런던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가야만 화성인과 동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았다. 달이 높이 떠오를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지붕 위에 있었다.

BOOK TWO · 제VIII장

죽어버린 런던.

포병과 헤어진 뒤, 나는 언덕을 내려가 하이 스트리트를 지나 다리를 건너 폴럼으로 향했다. 당시 붉은 잡초는 무성하게 뒤엉켜 다리의 도로를 거의 집어삼킬 듯했다. 하지만 그 잎사귀는 퍼져 나가던 병으로 인해 이미 곳곳이 하얗게 변해 있었는데, 이 병은 머지않아 붉은 잡초를 순식간에 없애 버리게 된다.

퍼트니 브리지 역으로 이어지는 길모퉁이에서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굴뚝청소부가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쓴 것처럼 새카만 상태였다. 살아는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말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욕설과 내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격렬한 몸부림뿐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 서린 잔인한 표정만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의 곁을 지켰을 것이다.

다리 너머부터 도로를 따라 검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폴럼에 이르자 그 두께는 더욱 두터워졌다. 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나

는 이곳의 한 빵집에서 음식을 구했다. 시고 딱딱하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지만, 먹을 만은 했다. 월햄 그린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니 거리
의 가루들은 사라졌다. 그 길로 불타오르는 하얀 연립주택들을 지나쳤는
데, 무언가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자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브롬턴 쪽
으로 계속 나아가자 거리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거리에는 다시금 검은 가루와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폴럼 로드 구
간에서만 대략 열두 구 정도의 시신을 보았다. 이미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상태였기에 나는 서둘러 그 곁을 지나쳤다. 검은 가루가 시신들을
뒤덮고 있어 형체가 흐릿하게 몽개져 있었다. 한두 구는 개들이 건드린
흔적이 있었다.

흑색 화약의 흔적이 없는 곳은 묘하게도 일요일의 런던 시내를 연상
시켰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집들은 자물쇠로 잠긴 채 블라인드까
지 내려져 있었다. 사람의 흔적은 사라졌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곳곳
에 약탈의 흔적이 있었으나, 식료품점이나 주류 판매점을 제외하면 드
문 편이었다. 어느 한 곳에서는 보석상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는데, 도
둑이 도중에 방해를 받은 모양이었다. 보도 위에는 금목걸이와 시계 여
러 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건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조금 더 나아가니 한 여인이 문턱에 쓰러져 있었다. 누더기가
된 옷차림이었다. 무릎 위로 늘어진 그녀의 손은 깊게 베여 있었고, 녹
슨 갈색 드레스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깨진 샴페인 대병에서는 술이
쏟아져 나와 보도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여인은 잠든 것처럼 보였
으나, 이미 죽은 상태였다.

런던 시내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정적이라기보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과 기대가 서린 정적이었다. 이미 대도시의 북서쪽 경계 지역을 그슬리고 일링과 킬번을 초토화한 파괴의 손길이, 언젠든 이 집들 사이로 들이닥쳐 연기 나는 폐허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시는 이미 파멸을 선고받은 채 버려진 상태였다.

사우스 켄싱턴의 거리에는 시체도, 검은 가루도 없었다. 그 기괴한 울음소리를 처음 들은 곳도 사우스 켄싱턴 근처였다. 소리는 감각을 파괴할 듯 아주 서서히 다가왔다. "울라, 울라, 울라, 울라." 두 음이 교차하며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북쪽으로 뻗은 거리들을 지날 때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집들과 건물들이 그 소리를 막아서며 잣아드는 듯했다. 그러다 엑시비션 로드를 따라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켄싱턴 가든 쪽을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 기이한 통곡이 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었다. 마치 저 거대한 집들의 사막이, 자신들이 느끼는 공포와 고독을 터뜨리기 위해 목소리를 찾아낸 것만 같았다.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초인적인 음성이 울부짖듯 울려 퍼졌다. 거대한 소리의 파동이 양옆으로 늘어선 높은 건물들 사이, 햇빛이 내리쬐는 넓은 도로를 따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경이로움에 휩싸인 채 하이드 파크의 철문을 향해 북쪽으로 몸을 돌렸다. 공원 너머를 살펴보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으로 뛰어 들어가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나는 몸을 빨리 숨길 수 있는 지상에 머물기로 하고, 엑시비션 로드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도로 양옆에 늘

어선 커다란 저택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집 벽면에 부딪혀 내 발소리가 메아리쳤다. 공원 입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버스 한 대가 뒤집혀 있었고, 말 한 마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살점이 다 발라져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모습에 의문을 품으며 서 있다가, 서펜타인 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북쪽 공원 지붕 너머로는 북서쪽의 뿌연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에는 마치 리전트 파크 근처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황량한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를 지탱해주던 의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통곡 소리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몸은 몹시 지치고 발은 부르텔으며, 허기와 갈증이 다시금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미 정오가 지나 있었다. 나는 왜 이 죽음의 도시를 홀로 배회하고 있는 것일까. 런던 전체가 검은 수의를 입은 채 영면에 든 이 상황에서, 왜 나만 홀로 남겨진 것일까.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정신은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옛 친구들을 떠올렸다. 약국에 쌓인 독약들과 포도주 상인들이 저장해 둔 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와 함께 살아남은, 절망에 젖은 두 명의 가련한 존재도 떠올랐다.

마블 아치를 지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들어서니, 그곳에서도 검은 화약 가루와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집들의 지하 창고 환기구

에서는 불길하고 불쾌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오랫동안 더위 속을 걸어 온 탓에 목이 몹시 말랐다. 나는 온갖 고생 끝에 겨우 선물집 하나를 찾아 들어가 음식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자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술집 카운터 뒤편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검은 말총 소파에 몸을 뉘어 잠을 청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울라, 울라, 울라, 울라" 하는 그 처절한 울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어느덧 황혼이 내려앉은 시간이었다. 나는 술집에서 비스킷 몇 조각과 치즈를 찾아냈다. 육류 보관함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구더기뿐이었다. 나는 적막이 흐르는 주택가를 지나 베이커 스트리트로 걸음을 옮겼다. 포트먼 스퀘어 외에는 이름을 기억해낼 만한 곳이 없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마침내 리전트 파크에 다다랐다. 베이커 스트리트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노을이 비치는 맑은 하늘 아래 나무 너머로 저 멀리 화성인 거인의 뒷개가 보였다. 그 괴물이 내는 울음소리가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마주하듯 그를 발견했을 뿐이다. 한동안 그를 지켜보았지만, 화성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울부짖고 있는 듯했다. 내가 알 수 있는 이유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려 애썼다. 하지만 "울라, 울라, 울라, 울라" 하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어쩌면 너무 지친 나머지 공포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나는 두려움보다 저 단조로운 울음소리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다는 사실이다.

나는 공원에서 멀어져 파크 로드(Park Road)로 향했다. 공원을 빙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테라스 건물들의 그늘을 따라 길을 따라가다 보니, 세인트 존스 우드(St. John's Wood) 방향에서 멈춰 선 채 울부짖고 있는 화성인의 모습이 보였다.

베이커 스트리트(Baker Street)에서 200야드쯤 벗어났을 때,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썩어가는 붉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문 개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것이 보였고, 그 뒤를 굶주린 잡종견 무리가 뒤쫓고 있었다. 그 개는 마치 내가 새로운 경쟁자가 될까 봐 겁이라도 난 듯, 나를 피하려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갔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적막한 도로 너머로 멀어지자, "울라, 울라, 울라, 울라" 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세인트 존스 우드 역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서 나는 파괴된 조작 기계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집 한 채가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잔해 사이를 기어오르며 살펴보던 나는, 기계가 만들어진 폐허 속에 축수를 구부러뜨리고 짓이겨진 채 쓰러져 있는 이 기계적인 삼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기계의 앞부분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마치 기계가 앞을 보지 못한 채 집을 향해 돌진했다가, 집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함께 휩쓸려 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조작 기계가 화성인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해 속으로 더 깊이 기어 들어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황혼이 이미 깊게 깔린 탓에, 기계의 좌석에 묻은 혈흔도, 개들이 먹다 남긴 화성인의 씹힌 연골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목격한 모든 일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나는 프림로즈 힐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멀리 나무 사이로 난 틈 너머로 두 번째 화성인이 보였다. 그 화성인은 첫 번째 놈처럼 미동도 없이, 동물원 쪽 공원 안에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다. 부서진 조작 기계 주변의 폐허를 조금 지나자 붉은 잡초가 다시 나타났고, 리전트 운하는 온통 짙은 붉은색 식물로 뒤덮여 스펀지처럼 흐물흐물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다리를 건너자 "올라, 올라, 올라, 올라" 하는 소리가 멎었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똑 끊어버린 것 같았다. 그 뒤에 찾아온 정적은 마치 벼락이 치는 듯 강렬했다.

주변의 어두운 집들은 희미하고 높게, 그리고 흐릿하게 서 있었다. 공원 쪽으로 뻗은 나무들은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 주변 곳곳에서는 붉은 잡초가 폐허 사이를 타고 올라오며, 어둠 속에서 내 머리 위까지 뻗치려 꿈틀거렸다. 공포와 신비의 어머니인 밤이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는 고독도, 황량함도 견딜 만했다. 그 덕분에 런던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느껴졌고, 주변에 감도는 생동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가 지나가며 변화가 일어났다. 뒤이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정적이 찾아왔다. 이 삭막한 고요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 주변의 런던은 유령처럼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얀 집들의 창문은 마치 해골의 눈구멍 같았다. 상상력이 자극되자 내 주변에는 소리 없는 적들이 수천이나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나

의 무모함에 스스로 경악했다. 눈앞의 도로는 마치 타르를 바른 듯 칙
흑같이 어두워졌고, 길 한복판에는 뒤틀린 형체 하나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세인트 존스
우드 로드로 방향을 틀어, 이 견딜 수 없는 정적을 피해 킬번을 향해 앞
만 보고 달렸다. 그리고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해로 로드에는 마
부 대기소에서 밤과 침묵을 피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 용
기가 되살아났고, 별들이 아직 하늘에 떠 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리전
트 파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골목 사이에서 길을 헤매다, 이른 새벽
의 희미한 빛 속에서 길게 뻗은 가로수길 너머로 프림로즈 힐의 능선을
발견했다. 그 정상에는 세 번째 화성인이 다른 화성인들처럼 곳곳이 선
채, 저물어가는 별들을 향해 우뚝 솟아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미친 듯한 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차라리 죽어서 이 모든 것을 끝
내리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고조차 덜고 싶을 만큼 절박했다. 나는
앞을 가로막은 이 거대한 존재를 향해 무모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
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이 점점 강해졌고, 그제야 거대한 덮개 주위로
검은 새 떼가 무리 지어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심장이 크
게 뛰었고, 나는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세인트 에드먼즈 테라스를 뒤덮은 붉은 잡초를 헤치며 서둘러 나아
갔다. (수도 시설에서 앨버트 로드 쪽으로 거세게 쏟아져 내려오는 급
류를 가슴까지 물에 잠긴 채 건넜다.) 그렇게 해가 뜨기 직전 마침내
잔디밭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언덕 정상 부근에는 거대한 흙더미가
쌓여 견고한 방어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화성인이 만든 곳 중 가장 크
고 마지막이었던 거점이었다. 그 흙더미 너머로 가느다란 연기가 하늘

을 향해 피어올랐다. 지평선 근처로는 들뜬 개 한 마리가 달려가다 사라졌다. 머릿속을 스치던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고, 믿기 힘든 사실로 체감되었다. 나는 움직임 없는 괴물을 향해 언덕을 뛰어 올라가며 두려움 대신 거칠게 떨리는 환희를 느꼈다. 덮개 사이로는 갈색의 길게 늘어진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고, 굶주린 새들이 그것을 쪼고 뜯어대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흙으로 쌓은 방벽을 기어올라 그 꼭대기에 섰다. 발아래로 요새의 내부가 내려다보였다. 그곳은 거대한 공간이었다. 요새 안 곳곳에는 거대한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엄청난 양의 자재가 쌓인 더미와 기이한 은신처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화성인들이 흠어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뒤집힌 전투 기계 안에, 어떤 이들은 이제는 굳어버린 조작 기계 안에 있었다. 또 다른 화성인 열두 명은 마치 줄을 지어 놓은 듯, 삭막하고 고요하게 죽어 있었다. 그들은 화성인의 신체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부패와 질병의 박테리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붉은 잡초가 죽어가던 것처럼 그들도 죽어갔다. 인류의 모든 수단이 실패로 돌아간 뒤, 결국 신이 그 지혜로 이 지구상에 내놓은 가장 미친한 존재들에 의해 그들은 쓰러지고 말았다.

사태는 그렇게 흘러갔다. 공포와 재앙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앓았더라도, 나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러한 질병의 미생물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인류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왔다. 생명체가 이곳에서 시작된 이후, 인류의 전 단계였던 조상들 역시 이들의 희생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저항력을 길러왔다. 우리는 결코 허무하게 미

생물에 굴복하지 않으며, 사체를 부패시키는 미생물 같은 것들로부터는 살아있는 신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면역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화성에는 박테리아가 없었다. 침략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먹고 마시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의 미세한 아군들은 침략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되어 있었다. 화성인들은 움직이는 와중에도 죽어가고 부패하고 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인류는 수십억 번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지구라는 권리를 쟁취했으며, 그 권리는 그 어떤 침입자에게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설령 화성인이 지금보다 열 배는 더 강력했다 하더라도 인류의 권리는 여전했을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덩이 곳곳에는 거의 쉰 마리에 달하는 화성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당시 나에게도 그 죽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인간에게 그토록 공포를 안겨주었던 생명체들이 이제는 죽었다는 사실뿐이었다. 잠시 동안 나는 산해립의 파멸이 재현된 것이라 믿었다. 신이 뜻을 돌이켜, 죽음의 천사를 보내 밤사이에 그들을 몰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이 내 주변의 세상을 불타오르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을 내뿜자, 내 마음도 말할 수 없이 가벼워졌다. 구덩이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거

대하고 경이로운 위력과 복잡한 구조를 지닌 기계들은, 기괴하게 뒤틀린 형태를 한 채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기묘하고 모호한 모습으로 솟아올라 있었다. 저 아래, 구덩이 깊은 곳에 검게 놓인 사체들을 두고 수많은 개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구덩이 건너편, 평평하고 광활하며 생경한 저쪽 가장자리에는 거대한 비행 기계가 놓여 있었다. 화성인들이 우리의 밀도 높은 대기에서 실험을 하던 중, 부패와 죽음이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이다. 죽음은 결코 늦지 않게 찾아왔다. 머리 위에서 까마귀가 울어대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영원히 더는 싸우지 못할 거대한 전투 기계가 보였다. 그리고 프림로즈 힐 정상, 뒤집힌 좌석 위로 붉은 살점 조각들이 너털너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언덕 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어젯밤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보았던 다른 화성인 두 기가 새 떼에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한 기는 동료들을 향해 울부짖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아마도 그 화성인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기계의 동력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비명을 내질렀던 모양이다. 떠오르는 태양 빛 아래, 그들은 이제 빛나는 금속으로 된 무해한 삼각대 탐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거대한 구덩이를 둘러싸고, 마치 기적처럼 영원한 파멸로부터 살아남은 채 도시들의 어머니라 불릴 만한 거대한 대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런던이 자욱한 연기 속에 잠긴 모습만 본 사람들은, 집들이 늘어선 이 고요한 황야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풍경을 드러내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쪽을 바라보면, 검게 그을린 앨버트 테라스의 폐허와 산산조각 난 교회의 첨탑 너머로 맑은 하늘 아래 태양이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었다. 거대한 지붕들이 황무지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곳곳의 지붕 면들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번뜩이며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북쪽으로는 푸르스름한 집들이 뺨뺨하게 들어선 킬번과 햄스테드가 보였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모습이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남쪽으로는 화성인들이 있는 곳 너머로 리전트 파크의 푸른 물결과 랭햄 호텔, 앨버트 홀의 돔, 임페리얼 인스티튜트, 그리고 브롬프턴 로드 에 늘어선 거대한 저택들이 일출 속에서 작고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너머로는 웨스트민스터의 들쭉날쭉한 폐허가 아스라이 솟아 있었다. 멀리 떨어진 서리 언덕은 푸른빛을 띠었고, 수정궁의 탑들은 두 개의 은색 막대처럼 반짝였다. 성 바울 대성당의 돔은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 서쪽 면에 거대하게 구멍이 뚫려 파손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침묵에 잠긴 채 버려진 집들과 공장, 그리고 교회들이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인류의 산호초를 쌓아 올리기 위해 쏟아부었을 수많은 희망과 노력,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떠올렸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뻔했던 그 빠르고 무자비한 파괴를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갔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다시 거리에 나와 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이 거대하고 죽어 있던 도시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어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격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통은 끝났다. 그날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이었다. 지도도, 법도, 먹을 것도 없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전국으로 흩어졌던 생존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바닷길을 통해 피신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텅 빈 거리와 적막한 광장에는 생명의 맥박이 점점 더 강하게 다시 요동칠 것이다. 어떤 파괴가 일어났든, 파괴자의 손길은 멈췄다. 햇빛이 내리쬐는 언덕의 풀밭을 향해 처량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검게 그을린 집들의 잔해와 뼈대들도, 머지않아 복구 작업에 나선 이들의 망치 소리와 흙손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신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1년이면, 나는 생각했다. 1년이면 된다…….

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희망과 다정한 보살핌으로 가득했던 옛 삶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인 힘으로 밀려왔다.

BOOK TWO · 제IX장

잔해.

이제 내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한 대목이 시작된다. 하지만 어쩌면, 그리 기이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프리로즈 힐 정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신을 찬양하기까지, 그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화성인의 패배를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나처럼 떠돌던 이들 중 몇 명은 이미 전날 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상태였다. 가장 먼저 발견한 한 남자가 세인트 마틴 레 그랑으로 달려갔다. 내가 마부들의 오두막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든 파리로 전보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끔찍한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던 수천 개의 도시가 갑자기 광적인 축하의 불빛으로 타올랐다. 내가 화성인의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던 그 시각, 더블린과 에든버러, 맨체스터와 버밍엄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 내가 전해 듣기로,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으며,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환호했다. 멀리 크루에서부터 이미 런던으로 향하는 열차들이 편성되고 있었다. 보름 전부터 멈췄던 교회 종소리가 갑자기 이 소식을 받아 울려 퍼졌고, 온 영국이 종소리로 가득 찼다. 수척한 얼굴에 형클어진 모습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시골길마다 내달리며, 절망에 빠져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지도 않았던 구원이 찾아왔다고 소리쳤다. 식량도 마찬가지였다. 해협을 건너, 아일랜드해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곡물과 빵과 고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물려들었다. 그 무렵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런던을 향해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정신을 놓은 채 그저 떠돌 뿐이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친절한 사람들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사흘째 되는 날, 세인트 존스 우드의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고 헛소리를 내뱉던 나를 발견해 주었다. 나중에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나는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이여! 만세!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이여!" 같은 미친 듯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도 각자의 일을 감당하느라 바빴을 텐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차마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맡아 돌보아 주었고, 내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내가 정신을 잃고 방황하던 기간 동안, 그들은 내게서 내 사연을 어느 정도 전해들은 모양이었다.

마음이 다시 진정되자,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리더헤드의 운명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내게 들려주었다. 내가 감금된 지 이틀째 되는 날,

레더헤드는 화성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다. 화성인은 아무런 도발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어린아이가 개미집을 짓밟듯, 그저 압도적인 힘을 휘두르는 유희를 즐기듯 레더헤드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듯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은 내게 매우 친절했다. 나는 외롭고 또 슬픈 처지였지만, 그들은 나를 인내하며 받아주었다. 몸을 회복한 뒤에도 나는 나흘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 기간 내내 나는 과거에 그토록 행복하고 밝게 빛나던 나의 작은 삶, 그 파편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는 막연하고도 커지는 갈망을 느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되새기며 탐닉하려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욕망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만류했다. 내가 이런 병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 나를 달래주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충동을 더는 이겨낼 수 없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노라 굳게 약속하고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나흘간의 친구들과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어둡고 낮설며 텅 비어 있던 거리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거리는 이미 돌아오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곳곳에는 문을 연 상점들도 있었고, 물이 흐르는 식수대도 눈에 띄었다.

워킹의 작은 집을 향해 우울한 순례길을 되짚어 가던 날, 세상이 얼마나 조롱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는지 기억한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움직임은 생생했다. 곳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서, 인구의 상당수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곧 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고, 남자들의 머리카락은 덩수룩했으며, 눈은 지나치게 크고 번뜩였다. 게다가 사람들은 여전히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표정 중 하나만이 서려 있었다. 숫구치는 환희와 활력, 혹은 비장한 결의였다. 얼굴 표정을 제외한다면, 런던은 마치 부랑자들의 도시처럼 보였다. 구역 위원회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보내온 빵을 무차별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었다. 몇 안 되는 말들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초라했다. 흰색 배지를 단 특수 경찰들은 쾅한 눈을 한 채 거리 모퉁이마다 서 있었다.

화성인이 저지른 참상을 제대로 목격한 것은 웰링턴 거리에 이르러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워털루 다리의 버팀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붉은 잡초를 보았다.

다리 모퉁이에서도 그 기괴한 시대가 보여주는 혼한 대조 중 하나를 목격했다. 붉은 잡초 덩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막대기에 고정된 채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은 발행을 재개한 첫 번째 신문인 《데일리 메일》의 벽보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찾아낸 검게 그을린 실링 동전 하나로 신문을 한 부 샀다. 신문 내용은 대부분 백지였으나, 작업을 맡았던 외로운 식자공이 뒷면에 광고용 연판을 기괴하게 배치하며 소일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인쇄된 기사들은 감정적이었고, 신문사는 아직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내가 새로 알게 된 사

실은, 화성인의 기계 장치를 조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이었다. 기사 중에는 당시의 나로서는 믿기지 않았던 내용도 있었다. 바로 '비행의 비밀'이 밝혀졌다는 확인이었다.

워털루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을 집으로 실어 나르는 무료 열차가 있었다. 첫 번째 대피 행렬은 이미 끝난 뒤였다. 열차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나는 누군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빈 객차를 하나 차지한 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으로 흘러가는 햇빛 아래 황폐해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착역 바로 바깥에서 열차는 임시 선로 위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철로 양옆으로는 검게 탄 폐허가 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틀 동안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클래팸 정선에 이르기까지 런던의 풍경은 검은 연기의 가루로 거무스름하게 뒤덮여 있었다. 클래팸 정선에서는 선로가 또다시 파손되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수백 명의 사무원과 점원들이 평소의 철도 공사 인부들과 나란히 서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열차는 급히 다시 깎 선로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그곳에서부터 이어진 지역의 풍경은 황량하고 낯설었다. 특히 워블턴 지역의 피해가 심했다. 월턴은 불타지 않은 소나무 숲 덕분에 그나마 이 노선 주변에서 피해가 가장 적은 곳처럼 보였다. 완들 강과 몰강, 그리고 모든 작은 시냇물은 붉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정육점의 고기나 절인 양배추를 쌓아 놓은 듯했다. 하지만 서리 지역의 소나무 숲은 너무 건조해서 붉은 잡초가 덩굴처럼 휘감기며 자라지는 못했다.

웁블던 너머, 노선이 내려다보이는 어느 원에 단지에는 여섯 번째 원통 주변으로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병 몇 명은 흙더미 한가운데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위로는 유니언 잭이 걸려 아침 바람에 경쾌하게 펄럭였다. 원에 단지 곳곳은 붉은 잡초로 인해 진홍빛을 띠고 있었다. 보랏빛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넓은 빛깔의 장관은 눈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 타버린 회색과 침울한 붉은색이 뒤섞인 전경을 바라보다 보면, 사람의 시선은 안도감을 느끼며 동쪽 언덕의 청록빛 부드러운 풍경으로 옮겨가곤 했다.

워킹역에서 런던 방면으로 가는 선로가 여전히 보수 작업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이플릿역에서 내려 메이베리 방향 도로를 따라 걸었다. 나와 포병이 기병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을 지나, 뇌우가 몰아치던 날 화성인이 내 눈앞에 나타났던 그 지점까지 계속 나아갔다. 호기심에 이끌린 나는 그곳에서 길을 벗어나 붉은 잡초가 뒤엉킨 덩불 사이를 살폈다. 그곳에는 뒤틀리고 부서진 마차가 놓여 있었고, 말의 하얗게 변한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 갇혀먹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참혹한 흔적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돌아갔다. 곳곳에 붉은 잡초가 목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스포티드 독 여관 주인은 이미 매장된 뒤였기에, 나는 컬리지 암즈 여관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지나가는 나를 보고, 열린 오두막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희망에 부풀어 급히 집을 바라보았으나, 그 기대는 곧바로 사라졌다. 문은 강제로 부서져 있었다. 문고리는 풀려 있었고, 내가 다가갈수록 문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문이 다시 쿵 하고 닫혔다. 나와 포병이 함께 새벽을 지켜보았던 서재의 열린 창문 너머로 커튼이 펄럭여 나왔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창문을 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짓뭇개진 덩불들은 거의 4주 전 내가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고, 집 안은 텅 빈 듯한 느낌이었다. 계단 카펫은 재앙이 닥쳤던 그날 밤 뇌우에 흠뻑 젖은 채 내가 웅크리고 있었던 자리가 흐트러지고 변색되어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의 발자국이 여전히 계단 위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 책상 위에는 셀레나이트 종이 누름돌이 놓인 채, 원통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날 오후에 쓰다 만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서, 쓰다 만 논증들을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문명화 과정에 따른 도덕 관념의 발달 가능성을 다룬 논문이었다. 마지막 문장은 예언의 서두와도 같았다. "약 200년 후에는,"이라고 나는 적어 두었다. "우리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거기서 갑작스럽게 끊겨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그날 아침에 집중력이 얼마나 흐트러졌었는지 기억이 났다. 신문팔이가 가져온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지를 사기 위해 글쓰기를 멈췄던 일도 떠올랐다. 신문팔이가 다가올 때 정원

문 앞까지 내려갔던 일, 그리고 그가 들려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기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순간도 생생히 기억났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당으로 들어갔다. 양고기와 빵이 놓여 있었으나 둘 다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맥주병은 나와 포병이 떠날 때 그대로였던 것처럼 쓰러져 있었다. 나의 집은 황량했다. 나는 그동안 품어온 희미한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소용없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은 비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괴로워하며 여기 머물지 마십시오. 살아남은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방금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었던 말인가? 뒤를 돌아보니 프랑스식 창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창가로 한 걸음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멈춰 섰다.

그곳에는 나만큼이나 경악과 공포에 질린 내 사촌과 아내가 서 있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아내는 가냘픈 비명을 내질렀다.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목을 감싸며 비틀거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BOOK TWO · 제X장

에필로그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 중인 수많은 문제에 대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너무나 적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의 전문 분야는 사변 철학이다. 비교 생리학에 관한 지식은 책 한두 권을 읽은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화성인이 그토록 빠르게 죽음에 이른 이유에 관한 카버의 가설은, 거의 증명된 결론이라 보아도 무방할 만큼 타당해 보인다. 나는 서술 과정에서 이 가설을 전제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난 뒤 조사한 화성인의 사체에서는, 이미 지구의 종으로 알려진 박테리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화성인이 죽은 동족을 전혀 매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들이 저지른 무모한 학살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부패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설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코 증명된 결론은 아니다.

화성인이 그토록 치명적으로 사용했던 검은 연기의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열선을 만들어내는 장치 또한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일링과 사우스 켄싱턴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끔찍한 재앙 때문에, 분석가들은 열선 장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꺼리고 있다. 검은 가루를 분광 분석한 결과, 녹색 영역에서 세 개의 선이 찬란하게 나타나는 미지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원소가 아르곤과 결합하여 화성인이 혈액 속의 특정 성분에 즉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인 일반 독자들에게, 이러한 증명되지 않은 추측은 그리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것이다. 셰퍼턴이 파괴된 후 템스강을 따라 떠내려온 갈색 찌꺼기들은 당시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도 그 샘플은 구할 길이 없다.

배회하던 개들이 남겨둔 흔적 덕분에 가능했던, 화성인의 해부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했다. 하지만 자연사 박물관에 보존액 속에 담긴 그 웅장하고도 거의 완전한 표본과, 그 표본을 바탕으로 그려진 수많은 삽화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화성인의 생리적 특징이나 신체 구조에 대한 관심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화성인이 다시 공격해 올 가능성은 훨씬 더 중대하며 인류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나는 이 측면에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

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화성은 '합(合)'의 위치에 있지만, 화성이 다시 '충(衝)'의 위치로 돌아올 때마다, 적어도 나는 그들의 침공이 재개될 것이라 예상한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화성인이 발사하는 포탄이 어느 지점에서 날아오는지 그 위치를 특정하고, 화성의 해당 구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다음 공격이 언제 도착할지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화성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원통이 충분히 식기도 전에 다이너마이트나 대포로 원통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나사가 풀려 뚜껑이 열리자마자 총탄에 몰살당할 수도 있다. 첫 번째 기습이 실패하면서 화성인들은 엄청난 이점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 화성인들 역시 상황을 똑같이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레싱은 화성인이 실제로 금성 착륙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훌륭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7개월 전, 금성과 화성은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다. 즉, 금성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성이 '충(衝)'의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다. 그 후 금성의 빛이 들지 않는 면에 기묘하게 빛나며 구불구불한 형상이 나타났다. 거의 동시에 화성 원반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구불구불한 형태의 희미하고 어두운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두 형상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닮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관측된 그림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어쨌든 또 다른 침공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이 행성이 인간을 위해 울타리가 쳐진 안전한 안식처라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 저편에서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나 악을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

어쩌면 우주의 거대한 설계 안에서, 이번 화성인의 침공이 인류에게 궁극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평온한 확신을 앗아갔다. 동시에 인류 과학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으며, 인류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개념을 고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어쩌면 화성인들은 광활한 우주 너머에서 자신들이 보낸 개척자들의 운명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금성에서 더 안전한 정착지를 찾아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앞으로 수년 동안 화성의 원반을 향한 인류의 간절한 감시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타는 화살, 즉 유성들은 떨어질 때마다 인류의 모든 자손에게 피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관점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통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저 깊고 아득한 우주 공간에 우리라는 작은 구체의 표면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 만약 화성인이 금성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도 그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언젠가 태양이 서서히 식어 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면, 이곳에서 시작된 생명

의 실타래가 우주로 흘러나가 우리의 자매 행성인 금성마저 그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태양계라는 이 작은 씨앗 상자에서 시작된 생명이, 별들이 박힌 광활하고 생명 없는 우주 공간으로 천천히 퍼져 나가는 모습. 내 마음속에 그려본 그 광경은 어둡고도 경이롭다. 하지만 그것은 아득한 꿈일 뿐이다. 반대로, 화성인의 파멸은 그저 잠시 숨을 돌리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당시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험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남겼다. 등불 아래 서재에 앉아 글을 쓰다 보면, 문득 발아래로 꿈틀거리는 불길이 들어찼던, 아몰어 가던 그 계곡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리고, 내 뒤와 주변을 둘러싼 집이 텅 빈 채 황량하게 느껴진다. 바이플릿 도로로 나가면 차량들이 내 곁을 지나간다. 수레를 탄 정육점 소년, 손님을 가득 태운 마차, 자전거를 탄 노동자, 학교에 가는 아이들. 그러다 갑자기 그 모습들이 희미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하더니, 나는 다시 포병과 함께 뜨겁고도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을 서둘러 달리고 있다. 밤이 되면 검은 가루가 고요한 거리를 뒤덮는 환영이 보인다. 그 가루 층에 뒤덮인 뒤틀린 시신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개에게 물어뜯긴 처참한 모습으로 내게 달려든다. 그들은 횡설수설하며 점점 더 사납고 창백하고 흉측하게 변해가다가, 마침내 인간의 형상이 미친 듯 일그러진 괴물이 되어 나를 덮치면, 나는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차갑고 비참한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

나는 런던으로 가서 플리트 스트리트와 스트랜드 거리를 가득 메운 분주한 인파를 본다. 그러면 문득 저들이 과거의 유명처럼 느껴진다. 내가 보았던 그 고요하고 비참했던 거리들을 떠도는 망령들 말이다. 죽어버린 도시를 오가는 환영이자, 전기에 자극받아 움직이는 육신에 깃든 생명의 조롱처럼 그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또한 이 마지막 장을 쓰기 바로 전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프림로즈 언덕에 서 있는 것도 기이한 경험이다. 연기와 안개로 인해 푸르스름하고 희미해진 거대한 주택 단지가 아스라이 낮은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본다. 언덕 위 화단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화성인의 기계 주변을 서성이는 구경꾼들을 본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위대한 날의 새벽녘 아래, 선명하고 또렷하며 차갑고 고요했던 그 순간을 떠올린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이한 일은 아내의 손을 다시 맞잡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죽은 사람이라 여겼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